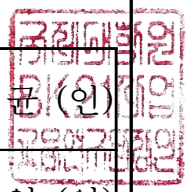


『4단계 BK21사업』 혁신인재양성사업(산업·사회 문제 해결 분야)
교육연구단 자체평가보고서

접수번호								
신청분야	인문사회 융복합				단위	전국		
학술연구분야 분류코드	구분	관련분야		관련분야		관련분야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국제/지역개발	새마을/ 국제개발협력	경제학	경제학일반	사회학	비교사회학/ 세계지역연구	
	비중(%)	40		30		30		
교육연구 단명	국문) 신국가전략을 위한 다학제적 국제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영문) Cultivating the Next Generation of Academic Leaders in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International Area and Development Cooperation for a New National Strategy							
교육연구 단장	소 속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직 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성명	국문	박태균		전화	02-880-8500		
		영문	Park Tae Gyun		팩스	02-879-1496		
				이동전화				
				E-mail	tgpark@snu.ac.kr			
연차별 총 사업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9~212)	2차년도 (213~222)	3차년도 (223~232)	4차년도 (233~242)			
	국고지원금	400	800	800	900			
총 사업기간	2020.9.1.-2027.8.31.(84개월)							
자체평가 대상기간	2022.9.1.-2023.8.31.(12개월)							
본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4단계 BK21사업』 관련 법령, 귀 재단과의 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체평가보고서 및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작성자	교육연구단장				박 태 균 (인)			
확인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 재 영 (인)			



〈자체평가 보고서 요약문〉

중심어	지역학	국제개발학	융복합적 지식
	전문지식창출	학문후속세대	전문혁신인력
	신국가전략	개발-지역 매트릭스	학문생태계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달성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교육연구단은 “국가전략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학과 국제개발을 선도하는 다학제적 학문후속세대와 전문 혁신인력 양성” 이라는 비전에 따라 교육, 연구, 국제화 세 방향에서 세부 목표를 추진해 왔으며, 주 단위, 월 단위, 학기 단위로 각각의 목표 대비 실적을 철저히 분석하면서 교육연구단의 비전 달성도를 확인하고 있음. - 교육역량 영역에서는 다학제적 교육, 총체적 지역학 교육, 지역학과 국제개발의 융복합적 접근에 따른 교육을 시행해 왔고, 연구역량 영역에서는 4대 주제인 지속가능발전, 민주적 거버넌스, 경제사회정책, 그리고 국제협력에 대해서 인문학적 통찰과 사회과학적 지식의 융합을 추구하며 심화된 연구역량을 향상해 왔음. 국제화 영역에서는 아시아의 국제개발 및 지역학의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세계저명대학, 국제기구,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 및 네트워킹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교육역량 영역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9월 ~ 2023년 8월까지 박사과정 SSCI급 논문 1건, 박사과정 KCI급 논문 8건, 석사과정 KCI급 논문 11건을 게재하였음. - 참여대학원생 총 24명이 29건의 국제·국내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음. - 2022년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를 통한 교재개발 II - 국제개발과 포용적 성장: 젠더·빈곤·교육 사례연구’ 교재개발사업(2022년 5월~10월)을 통해 총 10개 주제에 대해 각 사례연구별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 1인과 참여대학원생 1인이 팀을 이뤄 공동연구를 진행함 (참여교수 5명, 신진연구인력 1명, 참여대학원생 10명). 사례연구집을 보고서 형태로 발간완료 (2022년 12월). - 2023년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를 통한 교재개발 III -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에너지·식량안보 사례연구’ 교재개발사업(2023년 5월~8월)을 통해 총 11개 주제에 대해 각 사례연구별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 1인과 참여대학원생 1인이 팀을 이뤄 공동연구를 진행함 (참여교수 6명, 신진연구인력 2명, 참여대학원생 11명). 사례연구집을 보고서 형태로 발간 - 참여대학원생 논문발표 (GSIS BK21 워크숍) 발표: 2022년 2학기 (박사과정 4명 발표, 석사과정 4명 발표, 사회: 신진연구인력), 2023년 1학기 (박사과정 4명 발표, 석사과정 8명 발표, 사회: 신진연구인력) - 주제·지역별 라운드테이블 참여: 라틴아메리카 라운드테이블, 일본 라운드테이블, 환경지속가능성 라운드테이블 - 참여교수진은 한국, 중남미, 일본, 중국, 동남아의 문화와 사회 및 경제발전을 다루는 지역학 수업, 신국가안보전략, 개도국의 국제안보, 국제협력, 국제무역과 통상법, 국제개발협력, 국제이주와 개발·젠더,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등 다양한 정규수업을 운영해 오고 있음. 		
연구역량 영역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들은 “한국의 지역학과 국제개발의 생태계를 선도하는 학문적 수월성 증진” 이라는 연구목표에 따라 개발학과 지역학, 또는 두 영역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는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이론적인 측면과 아울러 정책적으로도 의미 있는 지식을 제공하며, 4대 주제인 지속가능발전, 민주적 거버넌스, 경제사회정책, 그리고 국제협력에 대해서 인문학적 통찰과 사회과학적 지식의 융합을 추구하며 연구를 진행해 왔음. - 2022년 9월 ~ 2023년 8월 기간 중, 동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13인의 논문·저서 실적은 국제저명(SSCI급) 논문 총 8건, 연구재단등재지(KCI급) 논문 총 15건, 저서 총 16건, 기타 학술논문 총 1건이며, 이외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 국내학술회의에서 활동하였음. - 대표적인 연구성과로 김종섭 교수가 한국연구재단등재지(KCI) 『국제개발협력연구』에 게재한 DaEun Kim and Chong-sup Kim (2023) “Budget support and governance in foreign aid: Evidence from a panel Granger causality test”, 김태균 교수가 출판한 단독 저서인 『반등 		

	<p>이후: 글로벌 사우스의 국제정치사회학』, 오윤아 교수가 국제저명(SSCI) 학술지 Pacific Review에 게재한 Yoon Ah, Oh (2023) “Assessing Myanmar’s trade dependence on China during the reform period of the 2010s: a sectoral value chain approach” 가 있음.</p> <p>-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동 교육연구단의 연구 역량 강화는 물론 참여대학원생 연구와 교육의 기회로 활용됨으로써 교육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음.</p>
<p>달성 성과 요약</p>	<p>- 코로나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팬데믹 기간 학습한 비대면 방식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동시에 대면 형태의 행사 개최와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나감. 특히, 학생들의 논문 작성을 위한 해외 현지조사를 지원하였으며, 해외 학술대회 패널을 구성하여 참가 혹은 개인 발표를 위한 여비를 지원함. 그간 비대면 발표에 익숙하던 학생들을 지도하여 대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비대면으로 학기 말 진행하던 학생 워크샵 또한 학기 중 6회 대면 개최하는 것으로 정례화함.</p> <p>- 이에 따라 참여학생들의 국제학술회의 발표실적이 크게 향상됨. 참여교수의 지도하에 학생이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논문을 발전시켜 투고 후 성공적으로 게재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과정임. 향후 이를 공고히 하여 학생들의 연구역량을 꾸준히 제고하고자 함.</p> <p>-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개발협력분야 인재 양성에 있어서 필수인 글로벌 네트워킹과 해외공동연구 플랫폼 마련을 위해 대면 방식으로는 최초로 SNU GSIS BK21 International Conference를 개최함. 1~2차 연도 BK21 대학원생 및 해외 협력대학 대학원생 발표를 중심으로 구성했던 대학원생 국제학술회의(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 Conference, IGSC)의 기존 취지를 유지·확대하면서 개발학과 한국학 분야 저명한 해외학자를 초빙하여 패널을 구성함.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미국, 캐나다 등 우수한 해외대학 소속 학자들의 발표뿐만 아니라 이들이 참여대학원생 발표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 참여학생이 준비한 발표에 대해 해외석학들로부터 코멘트를 얻어 논문을 수정할 수 있는 역량개발 및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함. 특히, 본 교육연구단이 벤치마킹 대학으로 선정된 영국 Sussex University 국제관계학과 학장도 발표자이자 대학원생 세션 토론자로 참여함.</p> <p>- 2023년 서울대학교는 QS 개발학 분야 37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국내 대학으로는 1위이며, 국제개발 분야에서 QS 등 세계대학 순위를 집계하는 리스트 50위권에 진입하겠다는 연구단 신청서상 목표를 약 3년 만에 달성한 성과임.</p>
<p>미흡한 부분 / 문제점 제시</p>	<p>- 외부자문위원 평가에 따르면, 동 교육연구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규제 완화에 따라 다양한 국제화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 하였으며, “QS 순위가 크게 개선되고 새로운 전공이 신설되어 성공적으로 운영” 되었으며, “특히 교육과 연구의 국제화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의 수월성” 을 보임.</p> <p>- 다학제적 접근을 고려한 교육방법론의 개발, 지금까지 구축한 해외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대학원생의 논문 주제 개발에서 논문게재, 졸업 및 취업까지 이르는 과정의 모델화 등이 필요함.</p> <p>- 향후 교육연구단이 구축한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구조를 공고히 하고, 해외 학자들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통해 학문후속세대 연구역량 강화 및 저명학술지 게재 성과를 제고할 계획임.</p>
<p>차년도 추진계획</p>	<p>- 본 교육연구단 지원으로 현지조사를 다녀온 학생이 정기 워크샵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등재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선순환 구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차년도에도 학생들의 연구역량 강화 및 국제화 활동에 많은 지원을 투입할 계획임.</p> <p>- 올해 첫 대면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에 이어서 차년도에도 영국 SOAS 등 벤치마킹 대학을 포함 해외대학·연구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함.</p> <p>-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 1인과 참여대학원생 1인이 팀을 이뤄 공동연구를 통해 사례연구집을 발간하는 교재개발사업을 차년도에는 ‘지역별 사례연구: 도시화·취약국·이주·인권·난민’ 주제로 진행하고자 함.</p>

1.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성 명	한 글	박태균	영 문	Park Tae Gyun
소 속 기 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부)

1) 연구역량

- 박태균 교수는 2003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전임교수로 임용된 이래 국제대학원의 교육과 연구, 그리고 행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 연구부문에서 국제대학원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전체에서 가장 수준 높은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2019년 서울대 전체에서 매년 10명의 교수에게만 주는 학술연구상을 수상하였음. 한국사를 연구하는 인문학 연구자로서는 드물게 총 6편의 SSCI급 저널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1995년 이후 현재까지 12편의 단독저서를 출간하였음.
- 학술논문 DB인 dbpia에 의하면 박태균 교수는 현재 연구자 중 역사학에서 상위 1%, 인문학 일반에서 상위 10%, 군사학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연구역량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연구역량을 학계로부터 인정받아 역사학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인 “역사비평”의 주간으로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활동하였음.
- 2013년 5월 31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대학에서 열린 유럽한국학 여름학교에서 기조연설 (스톡홀름 대학, 튀빙겐 대학, 로마 대학 등 유럽 6개 대학 교수, 대학원생 참여)
- 202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으로서 역사학 연구그룹을 이끌고 있음.

2) 교육역량

- 박태균 교수는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국제대학원의 한국학 전공주임 및 한국학센터 소장으로서 수많은 국내외 학생들을 양성하였음. 한국 학생들 중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현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멜버른 대학교 교수, 산동 대학교 교수, 출라롱콘 대학교 교수, 호치민 대학교 교수, 하노이 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연구교수 등으로 활동 중임.
- 석사학위 취득자들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획재정부, 외교부 및 CJ, 삼성 등 우수 기업의 국제협력 분야에서 전문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외국인 중 동남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은 자국의 한국학 강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그 외의 학생들은 국제기구(UN)와 기업에 취업하여 전문가로서 활약하고 있음.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독일 튀빙겐대학교에서 한국과 독일의 전후 복구과정을 비교하는 “한미관계사” e-School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2017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서 학부 4학년 을 대상으로 미국의 대한원조정책 관련 내용을 다룬 한미관계사 강의를 개설함. 2022년 2학기, 2023년 1학기에는 자유베를린대학교 공동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강의 참여한 BK학생들과 독일에 방문하여 현지답사 및 연계 세미나를 통해 학생 간 교류 증진에 힘씀.
- 이러한 교육에서의 공로로 2005년과 2013년 국제대학원 교육상을 수상하였음.

3) 행정역량

- 박태균 교수는 2005년부터 국제대학원의 한국학 전공주임과 한국학센터의 소장으로서 전공과 연구 센터를 이끌어 왔음. 2006년에는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현 통일평화연구원)의 출범을 주도하고 출판자료실장으로서 연구소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함. 2008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국제한국학센터 소장으로서 서울대학교 전체 한국학 교류를 중심으로 이끌었음. 2023년에는 “정전협정 70주년 학술회의” 등 여러 학술회의를 주최 및 주관함.
- 2019년 2월부터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주간으로서 활동하며 과거 신문사 내 교수와 학생 기자 사이

의 갈등을 해결하고, 2019년 12월 성공적으로 2000호 발간을 이끌었음.

-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외교부 산하 감사위원으로서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외교부 감사, 국제교류재단 운영자문위원으로서 재단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음.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산동대학과 후단대학의 한국학 겸무교수로 임명되기도 하였음.
- 2015년 9월부터 2017년 7월,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국제대학원 부원장으로서, 그리고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으로서 국제대학원의 교무, 학사행정을 주도하였음. 2020년 국제대학원은 서울대 우수 교육기관상을 수상함.
- 이밖에 평화·안보 증진을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음. 2021년부터 국방연구원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국방홍보원의 '역전다방' 및 KBS '역사저널 그날'에 출연, 삼성, LG, 포스코, 현대조선 등 민간기업의 개발협력 참여 역사와 연구 홍보에 기여함.

2. 대학원 신청학과 소속 전체 교수 및 참여연구진

<표 1-1>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전임 교수 현황 (단위: 명, %)

신청학과(부)	기준 학기	전체교수 수			참여교수 수		
		전임	겸임	계	전임	겸임	계
국제학과	2022년 2학기	24	0	24	12	0	12
	2023년 1학기	23	0	23	13	0	13

<표 1-2> 최근 1년간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임/겸임 교수 변동 내역

연번	성명	변동 학기	전출/전임	변동 사유	비고
1	안재빈	2022년 2학기	전출	사직	-
2	윤세미	2022년 2학기	전임	신규 임용	-
3	이혜영	2023년 1학기	전임	신규 임용	-

<표 1-3>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지도학생 현황 (단위: 명, %)

신청학과(부)	기준 학기	대학원생 수											
		석사			박사 (수료포함)			석·박사 통합			계		
		전체	참여	참여비율 (%)	전체	참여	참여비율 (%)	전체	참여	참여비율 (%)	전체	참여	참여비율 (%)
국제학과	2022년 2학기	301	90		38	14		0	0	0	339	104	30
	2023년 1학기	245	56		35	14		0	0	0	280	70	25
참여교수 대 참여학생 비율				1:6									

- 1) 현황: 참여교수 13명 / 신진연구인력 2명 (연구교수 1명, 박사후연구원 1명) / 행정전담인력 1명
- 2) 변경: 2022년 10월 1일 윤세미 참여교수 충원 (2022년 5월 09일 안덕근 참여교수 휴직)
2023년 5월 18일 이혜영 참여교수 충원 (2022년 9월 30일 안재빈 참여교수 퇴직)
2023년 8월 31일 신진연구인력(연구교수) 1명 퇴직 (김보경 박사)
2023년 9월 1일 신진연구인력(박사후연구원) 1명 충원 (최윤희 박사)

3.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달성정도

1)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교육, 연구, 국제화 등) 대비 실적

본 교육연구단은 “국가전략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학과 국제개발을 선도하는 다학제적 학문후속세대와 전문 혁신인력 양성”이라는 비전으로 교육, 연구, 국제화 부문 목표를 세우고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의 실적을 달성함.

(1) **교육:** 동 교육연구단은 지역학과 국제개발의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학문후속세대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음.

- 국제개발학의 체계적인 세부분야의 이론과 실재를 아우르는 다학제적 교육을 제공하였음.
- 지역별로 정치,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지역학 교육을 제공하였음.
-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범분야(crosscutting) 의제로서 지역학과 국제개발의 융복합적 접근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였음.
- 2022년 1학기 교육연구단의 대표적 추진과제였던 국제개발 전공 신설을 완료함에 따라 신입교수를 충원(2022년 9월 임용)하고 관련 교과과정을 재편하였음. 2022년 2학기에는 ‘국제개발세미나 1: 환경과 개발’ 과목과 ‘국제개발세미나1: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과목 등이 개설되었으며, 2023년 1학기에는 ‘지속가능발전의 이해’ 교과목을 신설하여 교육관련 목표를 크게 달성함.

(2) **연구:** 한국의 지역학과 국제개발의 생태계를 선도하는 학문적 수월성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 개발학과 지역학, 또는 두 영역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는 연구성과를 창출하여 국가전략의 이론적·정책적 지식을 제공하는 개발학과 지역학 중심의 국제협력을 선도하고자 함.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와 협력할 뿐 아니라 다양한 학술연구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개발학과 지역학의 연구성과가 체계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함.
- 인문학과 사회과학, 지역학과 국제개발을 융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4대 주제(지속가능발전, 민주적 거버넌스, 경제사회정책, 국제협력)와 4대 지역(동남아시아/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중앙아시아/기타지역)이 교차하는 다양한 연구분야를 확립해 왔음.
- 특히, 참여교수와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및 소그룹 논문작성 세미나를 통한 논문지도, 학생들의 공동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워크숍 발표 등을 정례화하여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역량 증진에 힘썼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학생들의 국내·국제학술회의 발표와 논문게재 실적이 크게 향상됨.

(3) **국제화:** 아시아의 국제개발 및 지역학의 허브로 성장하며, 세계 저명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학문의 수월성 확립

- 국제개발 분야에서 학문의 수월성을 진작하여 3년 내 QS 등 세계대학 순위를 집계하는 리스트 50위 안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학문적, 제도적 노력을 전개해 왔음.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서울대학교는 2023년 QS 개발학 분야 37위를 기록, 국내에서 1위를 달성함.
- 세계 저명대학과 정기적 연구 및 학생교류를 활성화하여 한국의 개발경험과 지역학의 지식 공유 강화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학계뿐 아니라 국제지역·개발 분야의 국제기구(UN기구, 세계은행 등) 및 연구소(IDS, ODI, CSIS, Brookings Institute 등)와 교류를 활성화하여 향후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양성한 전문인력이 해당 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공동연구 및 네트워킹의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음. 2022년 11월 16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미주개발은행(IDB) Informational Workshop을 개최, 중남미 지역개발 및 개발은행 커리어에 관심있는 참여학생들이 IDB 인사담당자와 현직 전문가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 개발정책과정(DCPP) 프로그램으로 국제대학원에 입학한 해외 학생들과의 교류를 촉진하고, 공동연구 및 지역사례연구를 위한 국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국제화

분야의 활동을 이어옴. SNU-Chula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태국 출라롱콘 대학 간 2008년 협정체결을 시작으로 매년 1학기 10명 이상의 출라롱콘 대학 한국학 전공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교환학생으로 수학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원이 강의를 진행하는 등의 학술교류 프로그램임. 2022.09.01.~2023.08.31. 기간 박태균, 은기수, 한정훈 참여교수가 국제대학원에서 파견되어 출라롱콘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함. 2023년 1학기 출라롱콘 대학 학생 10명이 서울대 국제대학원으로 파견 나왔으며, 이 같은 교류는 이후에도 지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교육연구단 주최 국제학술회의를 2023년 1월(비대면) 및 8월(대면) 개최하였으며, 해외 석학 초빙 외에도 대학원생 발표 세션을 마련하여 학생 간 활발한 연구 교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함. 1월 개최된 SNU GSIS DCPD-BK21 글로벌개발포럼(Global Development Forum, GDF)에는 12개국(우간다, 이집트, 케냐, 에콰도르, 필리핀, 콜롬비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가나) 개발정책과정 석사학위 프로그램(DCPD) 소속 개발도상국 공무원들과 국제대학원 참여대학원생이 발표에 참여하였음. 8월 개최된 첫 대면 학술회의인 SNU GSIS BK21 International Conference를 이틀에 걸쳐 총 5개 세션으로 운영되었으며,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미국, 캐나다 등 우수한 해외대학 소속 학자들의 발표뿐만 아니라 이들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대학원생 발표 세션을 기획함. 참여학생들은 준비한 발표에 대해 해외석학들로부터 리뷰받고 논문을 재정비할 수 있는 역량개발 및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함.

2) 융복합적 연구를 위한 저명대학 벤치마킹

- 신청 당시 QS 세계대학 순위 집계 국제개발학과 지역학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2023년 8월 기준 상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의 서섹스 대학교(University of Sussex)와 동양아프리카 대학교(SOAS),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를 3대 해외 벤치마킹 대학으로 선정함.
- 서섹스 대학교의 전방위형 운영방식을 본 교육연구단이 추구하는 주제별 연구의 기초플랫폼으로 수용하고, 동시에 SOAS의 지역중심형 방식을 4개의 지역부문에 기초플랫폼으로 활용하며, 이를 토대로 스탠포드 대학교의 개발학-지역학의 융복합적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하고자 계획을 수립함.
- 특히, 코로나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본 교육연구단이 개최한 첫 대면 국제학술회의에 3대 벤치마킹 대학 중 하나인 영국 서섹스 대학교(University of Sussex)의 국제관계학과 학장을 연사로 초청함. 학장은 패널발표 외에도 BK학생 세션의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공동연구 등을 통해 학술교류 기회를 넓혀가기로 논의함.
- 이 밖에도 대학원 전공 설계 마련을 위한 교과과정 개편연구를 통해 국제대학원의 전공 간 장벽을 허물고 대학원생들이 학칙상 전공을 교과목 상 전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안했음. 이는 지역학과 국제개발의 융복합적 접근에 따른 교육·연구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함.

3)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애로사항 등

- 지난 1~2차년도 기간 코로나19 관련 여러 규제에 의해 추진이 어려웠던 장기해외현지조사, 해외인턴십 파견, 해외공동연구, 방학 중 방문연수 프로그램 등의 국제화 활동 기회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세미나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외석학초청특강 시리즈, 동문초청특강 시리즈, 대학원생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성, 국제학술회의 조직·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를 이행했음.
- 목표 달성을 위한 애로사항으로 생각되었던 비대면 행사는 오히려 대면형태로 기획되었을 때보다 빈번한 국제화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으며, 관심사가 다양한 참여대학원생의 학문 분야·진로 관련 수요를 다방면으로 충족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음.
- 3~4차년도에는 코로나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팬데믹 기간 학습한 비대면 방식의 이점을 충

분히 활용하는 동시에 대면 형태의 행사 개최와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나감. 특히, 학생들의 논문작성을 위한 해외 현지조사를 지원하였으며, 국제학술대회 패널을 구성하여 참가 혹은 개인 발표를 위한 여비를 지원함. 그간 비대면 발표에 익숙하던 학생들을 지도하여 대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비대면으로 학기 말 진행하던 학생 워크샵 또한 학기 중 6회 대면 개최하는 것으로 정례화함.

- 엔데믹 전환과 재확산의 우려 등을 예의주시하며 참여학생 대상 1박 2일 논문작성 워크샵을 기획하고 있으며 타 BK사업단과의 교류도 추진하고자 함. 그간 구축해 온 여러 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육연구단이 목표한 ‘개발-지역 매트릭스’를 중심으로 지역적 다양성에 기반한 사례연구, 현지 관련기관 방문 및 해외공동연구, 대면 국제학술회의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산업·사회문제 해결 및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양성 목표를 더욱 폭넓게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II

교육역량 영역

□ 교육역량 대표 우수성과

○ 국제개발 전공 신설 및 관련 교과과정 재편

- 교육연구단의 대표적 추진과제였던 국제개발 전공 신설을 2022년 1학기에 완료함에 따라 3차년도에는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신입 교수 총원 및 관련 교과목을 신규 개설함.
- 2022년 9월 임용된 신입 교수는 10월부터 본 교육연구단에 참여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교육연구단의 ‘개발-지역 매트릭스’ 4대 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발전을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의 지역사례와 연관하여 연구하고 해당 분야에 관심있는 참여학생을 지도하고 있음.
- 2022년 2학기부터 2023년 1학기까지 국제개발과 지역학 관련 교과목은 20여 개가 개설되었으며, 대표적으로는 ‘국제개발세미나1: 환경과 개발’, ‘국제개발세미나1: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의 이해’ 등의 과목이 신규 개설됨. 국제개발 분야 인력양성에 있어 중요하지만, 기존에 부족했던 환경 및 보건분야 과목 개설을 추진함에 따라 국제개발과 지역학의 융합적 연구 비전과 목표를 실현함.
- 이 밖에도 학생수요에 따라 향후 신규 교과목이 추가 개설될 예정임 (아프리카 거버넌스와 정치, 아프리카 대외관계사, 중남미·아시아·아프리카의 경제발전 등).

○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

- 2022년 9월 ~ 2023년 8월 기간 중, 동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의 논문·저서 실적은 다음과 같음:
 - SSCI급 논문게재 총 1건, KCI급 논문게재 총 19건
-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의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실적은 다음과 같음:
 - 국제학술회의 발표 총 24건, 국내학술회의 발표 총 5건
- 지역 및 주제별 라운드테이블: 라틴아메리카 라운드테이블(총 20회 개최)
일본 라운드테이블(총 9회 개최)
환경지속가능성 라운드테이블(총 8회 개최)
- 대학원생 논문발표회 (GSIS BK21 Workshop)
 - 2022년 2학기 - 발표: 박사과정 4명, 석사과정 4명, 사회: 신진연구인력
 - 2023년 1학기 - 발표: 박사과정 4명, 석사과정 8명, 사회: 신진연구인력
- 국제개발·지역학 교재개발 지역사례 공동연구 참여
 - 2022년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를 위한 사례집 II - 국제개발과 포용적 성장:

젠더·빈곤·교육 사례연구’ : 총 10개 주제에 대해 참여대학원생이 각각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과 공동으로 사례연구 완료 및 2022년 말 최종보고서 발간 (참여교수 5명, 신진연구인력 1명, 참여대학원생 10명 공동집필)

- 2023년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를 위한 사례집 III -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에너지·식량안보 사례연구’ : 총 11개 주제에 대해 참여대학원생이 각각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과 공동사례연구 진행중 및 2023년 11월 최종보고서 발간 예정 (참여교수 6명, 신진연구인력 2명, 참여대학원생 11명 공동집필)

○ 참여교수 교육대표실적

- 동 교육연구단이 제안한 ‘개발-지역 매트릭스’ 중심으로 산업·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제개발-국제지역학 전공 간 연계성을 공고화하기 위해 전공 및 지역별 개설 교과목을 재정비하였으며, 국제개발 전공 신결과 함께 일부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세부 전공 간 상호인정함:

- 국제개발세미나2(젠더, 정치와 정책): 개발전공, 통상전공, 협력전공, 지역학전공
- 국제협력세미나1(인구, 가족, 성평등): 협력전공, 통상전공, 개발전공, 지역학전공
- 지속가능발전의 이해: 개발전공, 통상전공, 협력전공, 지역학전공
- 국제개발세미나1(양성평등의 사회경제적 분석): 개발전공, 통상전공, 협력전공, 지역학전공
- 국부론 강독:경제정책과 제도의 이해: 개발전공, 통상전공, 협력전공, 지역학전공, 한국학전공
- 국제통상특강(디지털 통상 규범과 과제): 통상전공, 협력전공, 개발전공, 지역학전공
- 에너지 정책: 개발전공, 통상전공, 협력전공, 지역학전공

- 동 교육연구단의 참여 교수진은 한국, 중남미, 일본, 중국, 동남아의 문화와 사회 및 경제발전을 다루는 지역학 수업 및 연구단 4대 주제를 아우르는 신국가안보전략, 개도국의 국제안보, 국제협력, 국제무역과 통상법, 국제개발협력, 국제이주와 개발·젠더,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등 다양한 정규수업을 운영해 오고 있음. 이 밖에 비정규, 외부 특강도 다양하게 진행하며 교육과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몇 가지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박태균 교육연구단장은 “한미관계사연구” 교과목을 자유베를린대학교 공동수업으로 진행하고, 이후 수업에 참여한 BK참여대학원생과 독일 방문하여 국제안보 및 평화SDG 관련 답사 수행함. 또한 “한국학연구프로젝트: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교과목을 개설, 참여 학생들과 서울 정동, 전쟁기념관 답사 수행함.
- 김종섭 교수는 젠더와 개발을 주제로 한 “성평등의 사회경제적 분석” 과목을 개설하여 주로 경제학적 방법론으로 각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성평등/불평등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침.
- 김태균 교수는 “국제인권과 난민문제의 이해(Understand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Refugee Issues)” 교과목을 담당하여 이론적, 실증적 관점에서 인권 인식 및 보호에 대한 기원, 역사적 발전, 인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실천 방식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함.
- 박지환 교수는 “현대일본사회의 쟁점: 청년문화의 이해” 라는 수업을 개설해, 청년의 시각과 경험을 통해 현대 일본의 구조적 변화를 검토함. 구체적으로는 청년문화론, 해외 이주 청년, 지방 거주·이주·산류 청년, 현재지향적 청년, 자기 계발과 청년 등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룸.
- 송지연 교수는 “세계화 시대의 국가, 자본, 노동,” “국제협력과 사회경제개발” 교과목 강의를 담당하여 학생들에게 세계화 시대의 국내외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사회경제개발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과 사례들을 다루었음.
- 신성호 교수는 국제대학원의 기본과목이자 최대 수강인원 과목인 “국제협력의 이해” 강의를 통해 각종 국제현안은 물론 국제개발과 기후, 에너지, 여성인권 문제 등을 60명의 학생과 토의 및 교육. 동 과목에는 특히 국제대학원의 KOICA 지원으로 참여 중인 개도국의 중견 관리 학생들이

- 전원 수강하여 개도국의 실상과 수요, 그리고 선진국 개도국 간의 협력과 발전 방안을 함께 토의
- 윤세미 교수는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한 “지속가능발전의 이해(Understanding Sustainable Development)” 과목을 신규 개설하여 환경과 경제발전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모함. 학생들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이슈(기후, 질병, 농업, 자원 고갈, 인구학적 스트레스 등)를 선정하여 각국이 처한 상황과 타개하기 위한 개발정책,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을 분석함.
- 정종호 교수는 2022년 2학기 “지역연구연습” 을 통해 “중국문화연구” 주제로 과목을 개설하여 미중 전략적 경쟁 속에서 중국의 변화를 참여대학원생들과 논의하였으며, 특히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대중국전략을 위한 중국문화의 이해에 중점을 둠.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1.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계획

1) 교육과정과 학사관리 현황

- 전문대학원인 국제대학원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운영되며, 2023년 8월 기준, 석사과정은 국제통상, 국제협력, 국제개발, 국제지역학, 한국학 5개 전공(입학정원: 연간 총 75명)으로 구성되며, 박사과정은 국제학과(입학정원: 연간 총 5명)로 통합 운영됨.
- 2023년 8월 기준 전임교원은 총 23명으로, 전공별로 국제통상전공 3명, 국제협력전공 5명, 국제개발전공 3명, 국제지역학전공 8명, 한국학전공 4명이 각 전공 소속 학생들을 담당함. 국제개발 전공을 신설함에 따라 국제개발(보건/환경분야) 신입 교수 1명을 채용하였으며 2022년 9월 1일 임용됨. 또한 국제협력전공 (국제법/국제기구) 교수 정년퇴임에 따라 신입 교수 1명을 채용하였으며 2023년 3월 1일 임용됨.

2) 현 교육과정과 학사관리 장점

- 본 교육연구단이 소속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특징점은 국내의 국제대학원 중 유일하게 동북아, 동남아, 중남미, 유럽 지역연구와 국제통상, 국제개발, 국제협력 전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임.
- 전문대학원으로서 전 교육과정을 영어 및 현지 언어(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로 강의하며, 실용적 지식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 국제개발학·지역학 분야 후속세대와 전문 혁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학제적인 방식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외국어 강의의 비중이 높아 국내외 우수 인력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체 재학생의 약 절반이 외국인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석사과정: 학생들은 4개 학기 동안 13과목(39학점)을 수학하도록 하며 이론 과목 외에 실무과목 총 6개(18학점)를 수강하도록 하고 있음. 수업은 주로 사례연구, 토론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실천적 감각과 국제무대에서의 협상 능력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석사과정은 타 대학보다 현저하게 높은 졸업요건(이수학점 수, 영어 어학 능력, 제2 외국어 시험,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요구하며, 논문계획서심사 1회와 논문종합심사 1회를 거쳐 이를 통과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함.
 - 박사과정: 박사과정은 4개 학기 동안 15과목(45학점)을 이수하도록 함. 밀도 높은 교과목 수강과 영어 능력, 제2외국어 점수, 논문제출자격시험, 논문출판요건(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그리고 총 4회에 걸친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박사학위를 수여함. 모든 박사과정생은 영어 또는 현지어로 학위논문을 작성하고 있음.
- 세부 전공 별로 2~5명의 전공 주임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교수와 학생의 정기적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지도하고 있음. 또한, 매 학기 전공 주임 지도교수들이 논문작성 워크숍, 학

생들의 연구논문 발표회, 지역별 라운드테이블 운영 등을 통해 교수와 학생들이 소통 및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3) 교육연구단의 대표적 교육목표에 대한 달성 방안 및 계획

- 동 교육연구단의 대표적 추진과제였던 국제개발 전공 신설을 완료하였음. 국제질서 재편과 국제사회 한국의 위상 변화에 따른 국제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본격적으로 글로벌 남반구의 개발 문제를 다학제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인 국제개발 전공을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국제통상, 국제협력, 지역학, 한국학의 4개 전공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인 국제학의 토대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음.
- 교육과정에서 존재하는 전공 간의 학점인정 과목 역시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연구 분야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더욱 전면적인 교과과정 개편이 필요하여, 이를 운영 계획에 포함함. 학생들은 국제대학원의 5개 전공 중 하나에 소속되어 전공별 필수교과목 및 선택교과목을 수강하고 있으나,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학생 개인의 연구 혹은 비전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전공 설계의 자유는 학부뿐 아니라 대학원 과정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학생들이 개별 전공의 경계를 넘어 보다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음.
-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박태균 교육연구단장의 주도하에 “대학원 전공 설계 마련을 위한 교과과정 개편연구” (지원기관: 서울대학교) 과제를 진행함. 기존 학칙상 전공을 새롭게 ‘교과목상 전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함으로써 국제대학원의 전공 간 장벽을 허물고 대학원생들이 자율적으로 전공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이론과 현장을 결합하기 위한 국제학 실무과목 강화, 상호인정 교과목 확대, 타전공 교과목 수강 장려를 통해 교육과정을 보다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전문대학원들이 서로 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이를 위해 현재 보건대학원, 환경대학원의 교과목을 국제대학원의 분야와 결합한 다양한 공동교과목을 생성하고자 하는 논의를 진행함. 실시할 경우, 국제대학원 학생들이 보건학 및 환경학 관련 과목을 이수한 뒤 이를 국제학과 융합된 교과목상 전공으로 학위를 받도록 과정을 개편하고자 함. 또한, 학부의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자유전공학부와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 중임.

4) 교육과정과 학사관리 운영 계획 대비 최근 1년간의 실적

- 본 교육연구단은 출범 당시 융복합적 학문후속세대 및 전문혁신인력 양성에 있어 국제대학원이 갖춘 강점과 추진해야 할 개선과제 등을 철저히 분석함. 특히, 엄격한 학사관리, 해외 최고 대학과 학생 교환 및 학술교류 통한 국제화, 각 분야 최고의 권위자로 구성된 교수진, 우수한 내외국인 학생들 등의 강점을 보유한 반면, 세부 전공 및 교육과정에서의 이론·지역 간 장벽 제거, 이론과 실무 교육 연계 강화를 개선과제로 이해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함.
- 교육연구단이 제안한 ‘개발-지역 매트릭스’를 중심으로 산업·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론수업과 실습수업을 교차 활용하며 문제해결형 사례연구 중심의 교과목 구성을 더욱 독려하고자 함. 이를 위해 남아시아·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기타지역(중동, 중앙아시아 등) 등 기존 지역기반 교과목에 대한 상호인정 범위를 구체화하고, 국제개발-지역학 전공 간 연계성을 공고화하기 위해 전공 및 지역별 개설 교과목을 재정비하였음.
-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확대 및 다양한 산학협력 연구와 교육 활용 추진전략 또한 교육연구단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이행하였음. 참여학생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참여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 중점분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함. 교재개발 사례연구, 학생워크숍 발표, 해외학술대회 패널 참가, 동문초대 커리어 특강 등 여러 채널로 참여대학원생이 이론과 실무적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해외 대학과의 공동강의를 공동연구로 확장하는 추진전략 또한 단계별로 이행하고 있음.

5) 교육-연구 선순환구조 구축방안 및 연구역량의 교육적 활용방안

-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연구 중점분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함. 교육과정 속에서 연구 아이디어 및 주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외부적 여러 채널을 통한 연구지원 방안을 모색하였음.
- 내부적으로는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참여대학원생 간 교류와 소통 및 공동연구 기회를 확대하여 국제대학원 구성원들의 연구역량이 학문후속세대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매 학기 전공 주임 지도교수들의 논문작성 워크숍,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 결과 발표회, 주제·지역별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교수와 학생들 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BK 연구장학금을 최소 한 학기 이상 받은 참여대학원생은 졸업전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석사과정생)·게재(박사과정생)하거나, 국내·국제학술회의에서 논문발표를 해야 할 의무가 부과됨. 석사과정생 역시 투고에 그치지 않고 지도를 통해 게재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1-2차년도 졸업을 앞둔 참여대학원생 중 일부 학생들을 선정하여 방학 중 진행하던 BK21워크숍(GSIS BK21 Workshop)의 경우 2022년 2학기부터 월례 행사로 정례화하여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발표 기회를 확대하였음.
- 외부적으로는 다학제적 학술 강연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활발한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함. 특히, 교육연구단 주최 해외석학 초청특강 시리즈(Special Lecture Series), 동문초청특강 시리즈(Career Development Series),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크게 기울이고 있음. 이로써 학생들이 선후배, 신진연구자, 참여 교수진, 그리고 외부 기관에서 초청된 전문가 및 해외 석학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최신 연구 동향을 접하며, 유관 분야 조연자와의 소통 기회를 다방면으로 마련함.
- 또한, 국제개발·지역연구의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개발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였고,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참여대학원생이 발표하며 교류하는 제2회 글로벌개발포럼(Global Development Forum)을 겨울방학 중 개최함. 그간 비대면으로 대학원생 발표를 중심으로 개최해 오던 국제학술회의(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 Conference)는 3-4차년도 코로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최초로 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대학원생 세션을 확대·유지하는 동시에 해외석학 초청 패널을 추가 구성함. 특히, 교육연구단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설정한 3대 대학 중 영국 Sussex University 국제관계학 학장을 발표자로 섭외하였으며, 참여대학원생 세션에서 토론자로도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획함.
- 본 교육연구단은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관심 분야와 주제를 조사하여 참여대학원생의 교육활동, 연구활동, 그리고 국제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활동들을 기획·진행하고자 함. 향후 국제대학원 개발정책과정(DCPP)의 일부 실무교과목 활용, 개발세미나 전문가초청특강, 인턴십 과목 개설, 경력개발세미나, 독립연구 등 BK21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교과·비교과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여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이론의 실무적용능력 및 리더십 함양을 기대함.

6) 해외 대학과의 공동강의를 공동연구로 확장 - 공동교과목 개설 등 계획

- 기존 해외대학과의 공동교과목 운영 지속 및 신규과목 개발·개설을 통해 공동강의를 향후 공동연구로 확장하고자 함. 2022년 2학기 ‘한미관계사연구’ 교과목을 자유베를린대학과의 공동강의로 운영하였으며, 수강생 중 참여대학원생과 함께 독일에 방문하여 현장 답사를 수행함. 향후 중국연변대학교, 태국 출라롱콘대학교 등 해외 협력대학과의 공동강의를 확대하고 이를 장기적인

국제공동연구로 발전시키고자 함.

- 기존 대학 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제지역·개발을 전공한 외국인 교수의 특별채용을 계획한 바 있음.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는 2022년 5월 26일, 호한재단(The Australia-Korea Foundation), 우드사이드 에너지(Woodside Energy Ltd.)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수파견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음. 2023년 8월 호주 캔버라에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호한재단, 우드사이드 에너지와의 세부 협약,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우드사이드 에너지와의 재정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호주 학 관련 교수 초청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추진을 계획 중임. 본 협약은 호주 대학과의 교원교류, 공동 학술행사 개최, 교환학생 제도 실시 등 활발한 인적자원 육성의 기반이 될 것임.
- 교육연구단 참여 교수진과 해외대학 교원교류를 통해 파견된 교수진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교육연구단의 국제화 역량을 향상하고 증가하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측면에서 여타 해외대학과도 유사한 교원교류 제도를 더욱 활발히 모색할 계획임.

7) 전임교수 대학원 강의 계획 대비 최근 1년간 실적·신규 개설강좌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전임교원 23명 중 총 13명이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에 해당함. 인문학적·사회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지역학으로서 한국학 연구를 진행하는 박태균 교수(교육연구단장), 경제학적 방법론으로 중남미 지역연구와 국제개발협력을 연계하는 김종섭 교수,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국제개발 이론과 정책을 강의하는 김태균 교수, 일본사회문화 관련 강의를 담당하는 박지환 교수, 국제정치경제를 연구하고 세계화 시대의 국가, 자본, 노동과 사회경제개발 과목을 담당하는 송지연 교수, 신국가안보전략과 개도국 국제안보문제 관련 강의를 전담하는 신성호 교수, 동남아 개도국의 경제성장 등 개발 전반의 문제를 탐구하는 오윤아 교수, 빈곤퇴치와 사회적 혁신을 목표로 하는 환경 분야 지속가능발전을 연구하는 윤세미 교수, 국제이주와 개발·젠더 관련 강의를 담당하는 은기수 교수, 국제개발 평가체계를 연구하는 이수형 교수, 국제법과 인권 분야 강의를 담당하는 이해영 교수, 중국문화와 현대중국의 사회문제 등을 연구하는 정종호 교수, 한국의 정치·경제적 외적 수요 및 내적 규범 등 정치과정의 이해 관련 수업을 담당하는 한정훈 교수가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해 왔음.
- 국제개발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맞추고자 여러 강좌가 신설되었으며, 현행교과목 중 국제개발연구와 지역학의 교차지점에 있는 교과목의 대표적 예시는 다음과 같음:
초국경이슈와 국제협력사례연구, 국제협력세미나1(지속가능발전과 국제협력), 한미관계연구, 중국의 금융·재정, 현대일본사회의 쟁점, 지역연구연습(중국문화연구), 중국의 권력구조와 정치체계, 지역통합비교연구: 유럽과 아시아, 지역연구의 제 쟁점, 유럽통합, 국제분쟁해결 사례연구, 글로벌 시대의 한국과 정치, 국제개발정책론, 국제개발 정책평가, 젠더와 개발, 국제개발세미나1(보건의료 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개발세미나1(환경과 개발), 국제개발세미나2(젠더, 정치와 정책), 국제인권과 난민문제의 이해, 지역연구연습(유럽과 아시아의 비교지역연구), 유럽연합의 정치적 발전, 아시아의 경제발전과 리더십, 국제협력과 사회경제개발, 세계화시대의 국가, 자본, 노동, 유럽연합과 아시아의 거시경제학연습, 젠더와 인권, 국제개발세미나1(양성평등의 사회경제적 분석).
- 2023년 1학기 지속가능발전의 이해가 신규 개설되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 수요에 따라 국제개발, 아프리카 거버넌스와 정치, 아프리카 대외관계사, 중남미·아시아·아프리카의 경제발전 등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자 함.

2.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2.1 최근 1년간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

<표 2-1>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단위: 명)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실적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확보 (재학생)	2022년 2학기	90	14		104
	2023년 1학기	56	14		70
	계	146	28	0	174
배출 (졸업생)	2022년 2학기	31	1		32
	2023년 1학기	31	1		32
	계	62	2		64

2.2 교육연구단의 우수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1) 학부생을 상대로 한 아웃리치 활동 강화

- 본 교육연구단이 속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은 학부 과정 없이 석·박사 과정만 운영하고 있어, 학부에서 바로 대학원으로 진학하려는 학생을 자체적으로 충원할 수 없으므로 우수한 신입생 확보를 위한 다양한 아웃리치 노력을 하고 있음.
- 매 학기 국제대학원 신입생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진학에 관심이 있는 교내·외부 학부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임 (2022년 10월: 2023년 전기모집 설명회, 2023년 3월: 2023년 후기 모집 설명회 개최). 해당 설명회는 BK21 장학제도와 입학 후 교과과정과 병행할 시 학습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연구단의 다양한 학술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국제대학원 BK21 공식 영문홈페이지(<https://gsisbk21.snu.ac.kr/>) 제작과 운영을 통해 동 교육연구단의 소개, 행사, 학술활동, 자료 및 공지사항을 온라인상에서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2021년 3월 ~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동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BK21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가시성을 확대하고 있음.

2) 국제개발 전공 신설·신입생 모집 및 교과 개편

- 국제개발전공이 신설됨에 따라 국제개발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개설, 논문주제지도 등 보다 조직적으로 교육·연구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교과 개편을 통해 다양한 과목이 국제개발전공 학생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음.
 - 국제개발의 이해 (Understand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 개발원조사업의 수행과 평가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Aid Projects)
 - 경제성장과 국제개발 (Economic Growth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Understand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국제개발정책론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 국제개발 정책평가 (Impact Evaluation for Development Policies)
- 한국 경제성장과 발전과정의 이해 (Understanding Korean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Process)
- 젠더와 인권 (Gender and Human Rights)
- 국제개발세미나 1: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Seminar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1: Sustainable Healthcare System Development)
- 국제개발세미나 1: 환경과 개발 (Seminar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1: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국제개발세미나 2: 젠더, 정치와 정책 (Seminar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2: Gender, Politics and Policy)
- 지속가능발전의 이해 (Understanding Sustainable Development)

3) 학술교류협약 체결 및 대학 중심의 우수 내외국인 선발 계획

- 캠퍼스아시아 사업(공동·복수 석사학위 프로그램) BESETO+LKYSPP-NUS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최대 1년간 머물며 수학하는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일본 동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학생들의 박사과정 진학을 독려함. 이를 위해 BK21 프로그램의 다양한 공동연구, 연구발표 및 학술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월 이후 개최가 어려웠던 오프라인 행사를 재개, 2023년 1월 일본 동경 소재 3개 대학(동경대, 게이오대, 와세다대)을 방문하여 국제대학원 설명회를 개최함.
- 이외에도 국제대학원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독일 튀빙겐대학교 (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프랑스 에섹경영대학교 (ESSEC Business School), 벨기에 루벤 가톨릭대학교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등 동 대학원과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해외대학 및 기관에서 우수한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고 있음.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은 SNU-Chula 한국학 프로그램(SNU-Chula Korean Studies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해당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태국 출라롱콘 대학 간 2008년 협정체결을 시작으로 매년 1학기 10명 이상의 출라롱콘 대학 한국학전공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교환학생으로 수학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원이 강의를 진행하는 등의 학술교류 프로그램임. 2023년 1학기 출라롱콘 대학 학생 10명이 서울대 국제대학원으로 파견왔으며 이 같은 교류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SNU-Chula 한국학 프로그램(SNU-Chula Korean Studies Program)을 호치민대학 및 필리핀국립대학에 유사한 형태로 설치함으로써 동남아시아 대학원생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통한 개발도상국 전문가 프로그램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개발정책과정(DCPP) 졸업생의 진학을 유도함. 교육연구단장 박태균 교수는 2022년 11월 베트남 호치민대학에서 개최되는 한국학 학술회의에 참가하여 “전쟁과 재건으로 보는 한국근현대사”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해당 방문을 통해 학술교류 관련 논의를 이어갈 기회를 모색함.

4) 대학원 신입생 첫 학기 장학금 지급 명문화 및 우수대학원생 확보

- BK21 장학금: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으로 선정된 경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석사학위 과정생의 경우 월 100만 원 이상, 박사학위 과정생의 경우 월 160만 원 이상, 박사수료생의 경우 월 13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교육연구단 내규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첫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여 신입생이 대학원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석사과정 진학생의 경우, 경제적 사정 및 학부 학점, 연구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

고 있으며 학기별 BK참여대학원생의 인원과 연구장학금 예산에 따라 학기별 지원대학원생 및 참여대학원생 간의 비율 및 총인원은 소폭 차이가 있음.

- 학문후속세대의 일원이 될 박사과정생의 경우, 서울대학교 본부에서 지급하는 연구장의조교 장학금, Global Friendship 및 BK대학원혁신 우수연구인재 Fellowship 등 중복수혜자를 제외한 나머지 박사과정생 및 박사과정 수료생(8학기 이내) 중 교육연구단 내규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학생을 지원대학원생으로 선정하여 BK21 연구장학금을 지급함.
- 또한 지원대학원생이 아닌 참여대학원생의 경우에도 연구지원금 혜택이 다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신청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함 (해외현지조사비 지원, 학술대회 발표 시 등록비와 여비 지원, 논문게재를 위한 각종 비용지원, 영문논문교정료 지원, 참여교수와의 공동연구·교재개발사업 집필 참여 기회 제공, 해외공동연구 참여기회 제공 등).

2.3 대학원생 학술활동 지원 계획 대비 실적

1) 학위 논문연구 지도 및 학술논문 작성 지원

(1) 대학원 교육과정의 핵심은 학생들이 우수한 학위논문을 쓰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국제대학원 석사과정은 3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대학원논문연구수업’을 졸업이수학점에 포함해, 지도교수가 학생의 연구과정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2) 동 교육연구단의 신청서상 “대학원논문연구수업과 연계하거나 추가로 지도학생과 논문지도 모임을 갖고, 참여대학원생이 본 교육연구단에 제출해야 하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에서부터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한다는 계획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세부전공 별로 2~5명의 전공 주임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교수와 학생의 정기적 상담 시행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지도하고 있음.
- 매 학기 전공 주임 지도교수와 함께하는 논문작성 워크숍, 전공 주임교수 주도로 학기 중 진행되는 라운드테이블, 소규모로 운영되는 BK21 대학원생 논문지도 워크샵 (Graduate Working Group),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BK21대학원생 논문발표 워크숍 (BK21 Workshop) 등을 통해 논문연구를 지원함.
- 이러한 정기모임은 학위논문 준비를 위한 일정, 정보의 제공과 공유를 위한 참여대학원생-참여교수진-신진연구인력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됨. 아울러 신진연구인력과의 상시면담, 매 학기 첫째 주에 진행되는 전체 BK학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GSIS BK21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창구를 마련함.

(3) 성과급 지급:

- 워킹페이퍼 장학금: 교재개발사업 원고제출 참여대학원생 11명에 대해 지역별 사례연구 워킹페이퍼 (각 25~30페이지 분량) 심사 및 원고료 지급을 통해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과의 공동연구가 사업단의 연차별 교재개발사업 발간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참여대학원생 연구성과급 지급: 2022.09.01.~2023.08.31. 기간에 논문 출판을 완료한 석사과정 7인 및 박사과정 5인에 대한 연구성과급을 지급하였음.

2) 학위논문작성 위한 해외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지원,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논문게재료 지원 등

(1) 해외현지조사 자료수집 및 공동연구 지원

- 국제개발·지역학 연구의 특성상 석·박사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해외에서의 현장연구(fieldwork)가 필수적인 주제가 있음. 이에 참여교수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심사를 통해 학위논문작성을 위한 현장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 우수한 대학원생을 선별, 지원함.

- 참여대학원생 해외 현장연구 및 자료수집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관련 내규를 정비하였으며, 홈페이지 및 이메일 공지를 통해 공식적인 선발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 지원학생: 석사과정생 1명(안하경) - 해외현지조사
 - 지원내용: 2023.08.06. - 2023.08.19. 라오스 현지조사를 위한 항공료 지원
 - 연구제목: “Chinese Border Policies and Border Restructuring: A Case Study of Boten and Vientiane”
 - 초청기관: 라오스 Logos Institute of Foreign Languages
 - 향후계획: 해당 학생은 2023.2학기 소그룹 논문지도 워크샵인 Graduate Working Group(GWG)에 참여하며 현지조사 내용을 토대로 논문 작성 및 성공적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임.

(2)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

- 참여대학원생의 국내·국제 학술대회 참가경비를 지원하며, 발표자로 참가할 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관련 내규를 정비함 (공식적인 신청과 선정을 통해 경비지원의 범위를 설정).
- 본 연구단이 예상한 바와 같이 해외방문이 보다 자유로워지면서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참가가 더욱 활성화됨. 이에 따라 계획한 바와 같이 학생들의 해외 학회 참가를 전폭적으로 지원함 (등록비, 여비).
- 2022년 9월 ~ 2023년 8월 현재까지 총 21명의 참여대학원생이 국제학술회의 참가 및 발표에 대해 여비 또는 교육연구단의 학술적 지원을 받았음.
- 국제학술회의 (발표자: 21명, 발표 24건)
 -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ISA) Asia-Pacific Region 2023 Annual Conference: Global Role of Asia-Indo Pacific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thropocene, Peace and Security 발표 1인 (참여대학원생 황혜진)
 - 2023 Asian Studies Conference Japan (ASCJ) 발표 3인 (참여대학원생 김치영, 금유진, 이주현)
 -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ICA) Media Sociology Post-conference 발표 1인 (참여대학원생 Zhang Yichi)
 -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80th Annual Conference 발표 1인, 2회 (참여대학원생 강나경)
 -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64th Annual Convention: Real Struggles, High Stakes: Cooperation, Contention, and Creativity 발표 1인 (참여대학원생 박지수)
 - 3rd Korean Studies Young Scholars(KSYS) Graduate Student Conference- Change & Continuity 발표 1인 (참여대학원생 김수정)
 - Palacky University “The 16th Annual Conference on Asian Studies” 발표 1인 (참여대학원생 이찬희)
 - The Third Jean Monnet Network European Transoceanic Encounters and Exchanges Kobe University, Japan 2022 “ETEE School” 발표 1인 (참여대학원생 심민경)
 - 동아시아일본학회 2022 추계학술회의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 발표 1인 (참여대학원생 장인화)
 - 2022 EAAA East Asi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EAAA) Annual Meeting 발표 12인 (참여대학원생 강나경, 구관림, 구민지, 김도경, 김수정, 박효진, 신송학, 이유림, 임평건, 임윤정, 조수빈, 줄리엔)

(3) 논문게재료/심사료/교정료 등 학술저널 투고를 위한 경비 지원

- KCI 등재 국내학술지와 SSCI, SCOPUS, A&HCI 등 국제학술지 논문투고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을 위

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내규를 정비하였으며, 다른 경비지원 항목과 함께 홈페이지상 관련 내용(신청서식 포함)이 상시 게시되어 있음. 투고료, 심사료, 영문교정료 등의 비용이 지원되며 개별 신청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함. 아울러, 참여대학원생이 참여교수와 공동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등에 투고할 때도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 심사 비용을 지원함.

-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완화되며 학생들의 해외학술대회 참여실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학회에서 발표된 소논문이 저널투고 및 게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향후 이러한 선순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참여교수진 및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질 예정임.
- 2022년 9월 ~ 2023년 8월까지의 참여대학원생 논문실적은 다음과 같음 (박사과정 SSCI급 논문 1건, 박사과정 KCI급 논문 8건, 석사과정 KCI급 논문 11건)

- (SSCI등재) 전현지 · 안덕근 (2022.12.) “Evolution and Limitations of the Lesser Duty Rule Under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56권 6호, 985-1012. DOI: 10.54648/trad2022041

- (KCI등재) 강나경 (2023.08.) “Breaking the Legislative Gridlock: Understanding Member States” 『EU연구』 67호, 113-145. DOI: 10.18109/jeus.2023.67.1

- (KCI등재) 강나경 · 임다빈 (2022.09.) “Unspeakable to Speakable Truth: Transitional Justice Process of April 3 Events”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23권 3호, 145-168. DOI: 10.14363/kaps.2022.23.3.145

- (KCI등재) 김다운 · 김종섭 (2023.06.) “Budget support and governance in foreign aid: Evidence from a panel Granger causality test” 『국제개발협력연구』 15권 2호 79-94. DOI: 10.32580/idcr.2023.15.2.79

- (KCI등재) 김도경 (2023.06.) “A Comprehensive Analysis of China’s National Cybersecurity: Objectives, Systems, and Strategies” 『국제정치연구』 26집 2호, 67-103. DOI: 10.15235/jir.2023.03.26.2.67

- (KCI등재) 김수정 · 박태균 (2023.06.) “한국의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 도입의 역사와 현황” 『국제지역연구』 32권 2호, 171-200. DOI: 10.56115/RIAS.2023.06.32.2.171

- (KCI등재) 나지원 (2022.09.)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 흑해함대 전력 강화 배경, 추세, 한계” 『슬라브研究』 38권 3호, 25-56. DOI: 10.17840/irsprs.2022.38.3.002

- (KCI등재) 윤하영 (2023.04) “The Discourse of Non-Regular Employment Policies: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6권 1호, 231-267. DOI: 10.22417/DPSS.2023.4.16.1.231.

- (KCI등재) 임평건 · 공현승 (2023.05.)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COVID-19 대유행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OECD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61호, 149-162. DOI: 10.47116/apjcri.2023.05.13.

- (KCI등재) 강승원 · 조영남 (2023.06.) “A Special Relationship not so Special Anymore: Changing

Dynamics of China-Singapore Rel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30권 1호, 45-69. DOI: 10.23071/jias.2023.30.1.45

- (KCI등재) 금유진 · 김종섭(2023.02.) “S자 다중 균형 모형 적용을 통한 조혼에 관한 양적 연구 - 지역별(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중남미연구』 42권 1호, 1-36. DOI: 10.17855/jlas.2023.2.42.1.1
- (KCI등재) 김경현 · 이수형(2023.07.) “Cayman Over China: Trends and Accounting Factors of South Korea’ 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37권 3호, 424-445. DOI: 10.1080/10168737.2023.2239205
- (KCI등재) 박도연 · 송지연 (2023.06.) “E-2020 아프리카 사례를 중심으로 본 국경 말라리아 차단 중요성” 『국제지역연구』 32권 2호, 141-169. DOI: 10.56115/RIAS.2023.06.32.2.141
- (KCI등재) 박효진 · 김종섭 (2023.04.) “Can the Law Pull the Custom? - A Gender Case Study on Rwanda and Nicaragua” 『라틴아메리카연구』 36권 1호, 35-52. DOI: 10.22945/ajlas.2023.36.1.35
- (KCI등재) 반혜원 · 김종섭 (2023.08) “브라질 파벨라의 환경개선 노력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향 모색”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20권 2호, 35-52. DOI: 10.22945/ajlas.2023.36.1.35
- (KCI등재) 손동찬 · 김종섭 (2023.07.) “환경규제 규제순응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르완다와 케냐의 비닐봉투 규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7권 3호, 117-144. DOI: 10.18327/jias.2023.7.27.3.117
- (KCI등재) 신송학 · 김보경 (2023.08.) “A Refugee Local Integration Model for the Global South? Uganda’ s Inclusive Policies Focusing on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African Studies*』 제69집: 57-90.
- (KCI등재) 이준성 · 김종섭 (2023.06.) “Community Participation in Nonformal Education Systems in Senegal and Tanzania: A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Social Capital Theory”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30권 1호, 107-127. DOI: 10.23071/jias.2023.30.1.107
- (KCI등재) 임윤정 · 김보경 (2023.04.) “아프리카 물 분쟁과 제 3자 조정(Third-Party Intervention)의 한계: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댐(GERD)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7권 2호, 105-136.
- (KCI등재) 최하은 · 김종섭 (2023.08.) “Gender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Marital Status and Type on Life Satisfaction and Self-Rated Health in Tanzania” 『*The Korean Association of African Studies*』 69권, 129-164.

3) 교육연구단 차원 국제학술회의 GSIS BK21 패널 신청

- 교육연구단은 매년 최소 1회 국제학술회의에 패널 단위 신청을 통해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이 함께 참가하며,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회의 발표기회를 확대해 왔으며, 지난 1년

실적은 다음과 같음:

- (1) 동아시아인류학회(East Asi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EAAA) 연례학술회의
 - 일시: 2022.10.15.~16.
 - 장소: 대만 타이베이
 - 패널명: Inclusive Education and Training: Issu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Asia
(사회: 박지환 참여교수, 토론: 김보경 박사 - 신진연구인력)
 - 참여학생 및 발표명: 조수빈 (Localization or Distribution? The International Delivery of Japanese Inclusive Education to Mongolia); 임윤정 (Korea's Strategie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s in Technical and Vocation Education and Training (TVET) Programs); 김도경 (Educational Inequality of the Mixed Ethnicity Children in Homogeneous Country); 김수정 (Why Stay in Korea? A Study on the Analysis of Determinants and Settlement Process of 3rd Generation Korean-Chinese Migration to Korea)
 - 패널명: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Refugees, and Women: Rights and Empowerment
(사회: 김보경 박사 - 신진연구인력, 토론: 심예리 박사 - 신진연구인력)
 - 참여학생 및 발표명: 박효진 (Can the Law Pull the Custom? Gender Case Study on Rwanda and Nicaragua), 이유림 (Neither a Refugee nor a Migrant: Examining Institutional Responses to Asylum Seekers in South Korea), 신송학 (Refugee integration in host state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ase of Uganda), 구민지 (Protection of Indigenous Peoples: Social Inclusion or Exclusion?)
- (2) 일본아시아학회(Asian Studies Conference Japan, ASCJ)
 - 일시: 2023.07.01.~02.
 - 장소: 일본 동경
 - 패널명: Hydropolitics, Transboundary Waters, and Borderlands: Conflict among Riparian Countries of the Mekong River (사회: 김종섭 참여교수, 토론: 심예리 박사 - 신진연구인력)
 - 참여학생 및 발표명: 김보경 박사 - 신진연구인력 (Transboundary Water-induced Conflict: A Review of Discursive Evolution on Hydropolitics); 김치영 (Dilemma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asons why the Mekong Project should be Continued); 금유진 (Managing Risks in Hydropower Dam Construction in Mekong reg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ree Dams in Laos- Xayaburi, Pak Beng, and Don Sahong Dams); 이주현 (The Rol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Promoting Sustainable Hydropower Dams: Case study of the Mekong and Amazon River)
 - 이 밖에도 2023년 10월 홍콩에서 개최 예정인 동아시아인류학회에 참가하여 환경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사례를 주제로 패널발표 예정이며(참여교수 2인, 신진연구인력 1인, 참여대학원생 4인), 2023년 12월 한국국제정치학회(KAIS)와 한국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연례학술대회에도 패널 신청 예정임.
 - 패널발표는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화 활동을 넓힐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발표된 논문을 발전시켜 향후 학술논문 투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채널임. 이는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구조를 활용한 대표적 학술활동이라고 볼 수 있음.

4) BK21 학생 워크샵·주제, 지역별 Round Table 운영 지원·각종 세미나 지원

- (1) 대학원생 논문발표 (GSIS BK21 학생 워크샵) 개최
 - 제5차 GSIS BK21 Workshop (2022.09.28.)

- 사회: 김보경 박사 (신진연구인력), 언어: 영어
- 발표 1: 이수지 (박사과정) “Femal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Gender Sensitive Polic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Case of Latin American Countries”
- 발표 2: 금유진 (석사과정) “Reg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Early Marriage - Focusing on South Asia, Latin America and Africa”
- 제6차 GSIS BK21 Workshop (2022.10.26.)
 - 사회: 김보경 박사 (신진연구인력), 언어: 한국어
 - 발표 1: 나지원 (박사과정) “권력과 권위: 국제정치이론으로 보는 일본의 경향모 도입”
 - 발표 2: Asuman Turna (석사과정) “1960년대 후반 박정희 정부의 정신개조 연구”
- 제7차 GSIS BK21 Workshop (2022.11.23.)
 - 사회: 심예리 박사 (신진연구인력), 언어: 영어
 - 발표 1: 장인화 (박사과정) “An Analysis of the Survival Strategies of Religion in Modern Japan: Focusing on the Shinto Shrines”
 - 발표 2: Julianne Townsend (석사과정) “Acceptance of Homosexuality: A Comparative Newspaper Content Analysis in Taiwan and South Korea”
- 제8차 GSIS BK21 Workshop (2022.12.20.)
 - 사회: 심예리 박사 (신진연구인력), 언어: 영어
 - 발표 1: 김규영 (박사과정) “The ‘Institutionalization-Implementation Gap’ in Gender Mainstreaming: Tracing the Development of UN’ s System-wide Policy”
 - 발표 2: 강승원 (석사과정) “Developments of Chinese Cybernationalism in the Xi Jinping era”
- 제9차 GSIS BK21 Workshop (2023.03.08.)
 - 사회: 심예리 박사 (신진연구인력), 언어: 영어
 - 발표 1: 홍민혁 (박사과정) “Green Growth as a Determinant of Green ODA”
 - 발표 2: 박지수 (석사과정) “Northeast Asia’ s Energy (In)security and Energy Cooperation”
- 제10차 GSIS BK21 Workshop (2023.03.22.)
 - 사회: 김보경 박사 (신진연구인력), 언어: 영어
 - 발표 1: 이지예 (박사과정) “A Comparative Study of Japan and Korea’ s Idol Industry: Focusing on the production process of major agencies”
 - 발표 2: 이수지 (석사과정) “A Comparative Study on the ROK-U.S. Alliance and the U.S.-Japan Alliance during the Moon-Trump-Abe Era: Focusing on Different Threat Perceptions toward China”
- 제11차 GSIS BK21 Workshop (2023.04.05.)
 - 사회: 심예리 박사 (신진연구인력), 언어: 영어
 - 발표 1: 김다은 (박사과정) “Budget Support and Governance in Foreign Aid: Evidence from a Panel Granger Causality Test”
 - 발표 2: Ying Ying (석사과정) “Japan in the Taiwan Strait Issue: Restrained Strategy or Choice by Default?”
- 제12차 GSIS BK21 Workshop (2023.05.10.)
 - 사회: 심예리 박사 (신진연구인력), 언어: 영어
 - 발표 1: 강나경 (박사과정) “EU’ 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Issues at Stake”
 - 발표 2: 심민경 (석사과정) “EU’ s Electric Vehicle and its Impact on the Carbon Neutrality and Economy”

- 제13차 GSIS BK21 Workshop (2023.05.24.)
 - 사회: 김보경 박사 (신진연구인력), 언어: 영어
 - 발표 1: 이주현 (석사과정) “The Rol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Promoting Sustainable Hydropower Dams: Case study of the Mekong and Amazon River”
 - 발표 2: 김치영 (석사과정) “Dilemma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asons why the Mekong Project should be continued”
- 제14차 GSIS BK21 Workshop (2023.06.14.)
 - 사회: 심예리 박사 (신진연구인력), 언어: 영어
 - 발표 1: 이유림 (석사과정) “Exploring Refugees’ Employment and Labor Market Integration: A Study under the South Korean Context”
 - 발표 2: 광지원 (석사과정) “Tragedy of the Commons and Forest Management: The Case of Indigenous Communities in Latin America”

(2) 주제 · 지역별 라운드테이블 및 세미나 개최 지원

- 기존에 운영하던 지역별 라운드테이블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환경지속가능성’ 라운드테이블을 추가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지난 1년간 실적은 다음과 같음:
- 라틴아메리카 라운드테이블: 두 학기에 걸쳐 총 20회, 참여자 수 매회 8-15명, 참여대학원생 발표 및 토론과 라운드테이블 주임교수(김종섭 교수)의 피드백으로 진행함. 주차별로 다뤄진 주제로는 라틴아메리카의 미술 (Arte de America Latina), 여행 (Viaje en la America Latina), 춤 (Baile de America Latina),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차이 (España y La América Latina) 등 라틴아메리카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함.
- 일본 라운드테이블 개최: 총 9회, 참여자 수 매회 11~12명, 참여대학원생 발표 및 토론과 라운드테이블 주임교수 (박지환 교수)의 피드백으로 진행함. 일본에 관한 학문적 관심사와 사회적 현안을 주제로 운영되었으며 주차별로 일본의 유행어와 사회배경 (미유 요코세), 아키하바라의 쇠퇴? (김현준), 일본의 한정판 제품 (박건우), 인사이드 교토 (장인화), 오키나와 여행 (김수환), 한국 스타트업 기업의 일본 진출 (신희나), 고시엔-젊음과 로망 (홍준표), 한국에서 유행 중인 J-pop (이지예) 등의 주제를 다룸.
- 환경지속가능성 라운드테이블: 총 8회, 참여자 수 매회 8~10명, 참여대학원생 발표 및 토론과 라운드테이블 주임교수 (윤세미 교수)의 피드백으로 진행함. 지속가능개발 목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환경이슈를 주제로 운영되었으며 주차별로 환경교육(박인욱), 원자력 발전(김연중), 태평양의 군소도서개발국 (Eilish Platts), 기후변화 정책 및 제도 (주다운), 미얀마에 발생 중인 환경파괴(Myo Hein)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룸.

(3) BK21 Graduate Working Group (GWG) 연구 소모임

- Graduate Working Group (GWG) 운영을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주제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논문으로 발전시켜 게재할 수 있도록 Bi-weekly 소모임을 열어 연구 진척 상황을 점검함. 2022.09.01.~2023.08.31 기간 GWG 연구 소모임에 참여한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주제 및 학술대회 발표/신청 및 논문게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2년 교재개발사업 참여 및 2022.10월 대만 EAAA 학회 BK21 패널 발표
 - 이유림(석사과정) “Neither a Refugee nor a Migrant: Examining Institutional Responses to Asylum Seekers in South Korea”
 - 박효진(석사과정) “Can the Law Pull the Custom? A Gender Case Study on Rwanda and Nicaragua”
 - 신송학(석사과정) “Refugee integration in host state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ase of

Uganda”

- 조수빈(석사과정) “Localization or Distribution? the International Delivery of Japanese Inclusive Education to Mongolia —Case Study of The Project for Strengthening Teachers’ Ability and Reasonable Treatment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START)”
- 2023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ISA) 발표
 - 박지수(석사과정) “Northeast Asia’ s Energy (In)security and Energy Cooperation”
- 2023 Asian Studies Conference Japan BK21 패널 발표
 - 금유진(석사과정) “Managing Risks in Hydropower Dam Construction in Mekong reg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ree Dams in Laos- Xayaburi, Pak Beng, and Don Sahong Dams”
 - 김치영(석사과정) “Dilemma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asons why the Mekong Project should be Continued”
 - 이주현(석사과정) “The Rol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Promoting Sustainable Hydropower Dams: Case study of the Mekong and Amazon River”
- 2023 SNU GSIS BK21 International Conference 발표
 - Jeremie Guenard(석사과정) “Can Government-Lead Greenwashing be Voluntary? The Case of the Bangladesh”
- 2023년 교재개발사업 참여 및 2023.10월 홍콩 EAAA 학회 BK21 패널 발표 예정
 - 광지원(석사과정) “Tragedy of the Commons and Forest Management: A Comparative Study of Indigenous Communities in Latin America and East Asia”
 - 반혜원(석사과정) “Are Slums a Source of Pollution? Environmental Efforts of Favelas in Brazil: The Case of Rocinha”
 - 이윤서(석사과정) “The Effects of Coastal Tourism on Promoting Climate Resilient Communities: Focusing on a Blue Economy Strategy in Guanacaste, Costa Rica”
 - 황준아(석사과정) “Research on the Impact of Local Communities on Reforestation Projects: Comparing Indonesia, Costa Rica, and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 논문 게재 완료
 - 박효진(석사과정) “Can the Law Pull the Custom? A Gender Case Study on Rwanda and Nicaragua”
 - 반혜원(석사과정) “브라질 파벨라의 환경개선 노력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향 모색”
 - 손동찬(석사과정) “환경규제 규제순응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르완다와 케냐의 비닐봉투 규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신송학(석사과정) “A Refugee Local Integration Model for the Global South? Uganda’ s Inclusive Refugee Policies Focusing on Education”
 - 이준성(석사과정) “Community Participation in Nonformal Education Systems in Senegal and Tanzania: A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Social Capital Theory”
- 논문 투고 후 심사중
 - 김다운(석사과정) “Happiness and fertility”
 - 박건우(석사과정)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Crop diversification for climate risk management”
 - 이유림(석사과정) “Basic Rights of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in South Korea”

- 조수빈(석사과정) “The International Delivery of Japanese Inclusive Education to Mongolia”
- 최진성(석사과정) “Cross-country Comparison on Gender Equality of Bangladesh and Pakistan”

5) 국제지역학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 초청특강

(1) 해외석학 초청강연 시리즈 (BK21 Special Lecture Series)

- 2022년 2학기 ~ 2023년 1학기 기간 동안 총 7회 개최, 해외 석학의 최신 연구에 관한 강의 및 질의응답. 다양한 전공, 주제,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 공유 및 교류를 위해 외부 전문가초청 특강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코로나 시기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해외석학의 특강을 기획하여 운영해 왔으나, 규제가 완화되며 한국 방문 중인 해외학자를 섭외하여 대면으로 전환함. 향후 대면·비대면 방식을 모두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특강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자 함.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며 보다 다양한 국제화 활동을 펼칠 수 있음에 따라 해외석학 초청강연 시리즈는 기존 학기당 평균 4회에서 평균 2회로 조정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 제20차 (2022.10.07.): Seonhwa Lee 교수 (Shandong University) “Flying Chickens on the Grasslands: The Eco-Politics of Grassland Restoration in Inner Mongolia, China”
- 제21차 (2022.10.27.): Matthew Goodman 수석부회장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SIS) “US Economic Statecraft at a Time of Rising Global Risk”
- 제22차 (2022.11.18.): Yong Yoon 교수 (Chulalongkorn University) “The Future of ASEAN and Korea’s Role”
- 제23차 (2022.12.02.): Heangjin Park 교수 (Loyola Marymount University) “Designing Kimchi: Semiotic, Aesthetic, and Logistical Making of “Koreanness” in China
- 제24차 (2023.04.07.): Dong Xiangrong 교수 (University of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CASS)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 제25차 (2023.04.28.): Hiroyuki Hoshiro 교수 (The University of Tokyo) “Japan’s Foreign Aid Policy, 1952-2022: How did the defeated state become a top donor?”
- 제26차 (2023.05.26.): Seung-kyung Kim 교수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Shifting Social Norms Surrounding Dating and Marriage in 21st Century South Korea”

(2) 동문초청특강 시리즈 (BK21 Career Development Series)

- 기존 공공외교 기관 인턴십 프로그램(KF 싱크탱크 인턴십), 한국국제협력단 ODA 영프로페셔널 (YP) 프로그램,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인턴십, 한·아프리카재단 인턴십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의 실무경험 축적을 학생들에게 독려함.

- 이를 위해 교육연구단에서 동문초청특강을 개최하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파견된 바 있는 KOICA ODA YP Cohort, 유엔기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조세연구원 등 연구소·공공기관·준정부기관에 진출한 여러 동문을 초청하여 재학생과 연결하는 비교과 특강시리즈를 학기당 2회 운영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엔세계식량계획, 유엔거버넌스센터,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기구와 정부기관 외에도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해외박사 진학, 국책연구소, 사기업 등 다양한 주제를 기획하여 동문을 초청하고 있으며, 2022.09.01.~2023.08.31. 기간 진행된 총 4회의 특강 주제 및 발표자는 아래와 같음:

- 2022년 2학기 제7차 동문초청특강 - 국책연구소 박사급 연구원 (2022.10.07.)
 - 발표 1: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국방전략연구실 선임연구원)
 - 발표 2: 유지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2022년 2학기 제8차 동문초청특강 - 기업 (지속가능경영) (2022.11.10.)

- 발표 1: 마지선 (LG 디스플레이 ESG 전략팀 책임)
- 발표 2: 조여진 (기아 지속가능경영팀 매니저)
- 2023년 1학기 제9차 동문초청특강 - 국제기구 (2023.03.31.)
 - 발표 1: 강경희 (UNHCR Representative in the Republic of Korea, Protection Team, Protection Intern)
 - 발표 2: Martina G. de Vries (Green Climate Fund, Independent Evaluation Unit, Evaluation Intern)
 - 발표 3: 구희원 (Green Climate Fund, Department of Portfolio Management, Results and Data Management Consultant)
- 2023년 1학기 제10차 동문초청특강 - 연구소·학계 (2023.06.02.)
 - 발표 1: 이승호 (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조교수)
 - 발표 2: 윤소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조세-개발협력팀)
- 참여대학원생 중 동문초청특강을 계기로 해당 기구에 더 큰 관심과 자신감을 얻어 인턴십에 합격하는 선순환구조가 구축되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인 국제개발협력 분야 인력양성 및 학술적·정책적 생태계 확립에 기여하고 있음.
- 앞으로도 학기별 총 2차례 (각 발표자 2~3인) 졸업생을 초청하여 동문특강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진로탐색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취업 실적을 향상할 계획임.

6) 국내외 공동연구 관련 대학원생 참여 및 국제학술대회

(1) 국제기구 관계자·해외대학과 연계한 공동연구 추진

- 참여교수들의 개인적, 기관적 차원의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기구 관계자와 연계한 공동연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2022년 2학기 “한미관계사연구” 교과목을 독일 자유베를린대학과 공동수업으로 진행하였으며, 이후 수강생 중 BK참여대학원생과 함께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독일을 방문하여 2023년 1월 31일 최종 수업을 진행하고 동년 2월 2일 공동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함께 세미나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마련함. 2월 1일에는 포츠담 회담이 열린 장소 및 베를린 장벽 박물관을 방문하여 ‘국제안보’ 및 ‘평화 SDG’ 와 관련된 답사를 실행함. 향후 이러한 공동수업 개발을 확대하고 이를 공동연구로 발전시켜 추진하고자 함.

(2) 교육연구단 주최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제지역학, 국제개발협력 주제)

- “SNU GSIS DCPD-BK21 글로벌개발포럼(Global Development Forum, GDF)” :
 - GSIS DCPD-BK21 프로그램 연계 국제학술회의를 기획하여 2023년 1월 30일 제2회 SNU GSIS DCPD-BK21 글로벌개발포럼(Global Development Forum, GDF)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12개국(우간다, 이집트, 케냐, 에콰도르, 필리핀, 콜롬비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가나) 개발정책과정 석사학위 프로그램(DCPD) 소속 개발도상국 공무원들과 국제대학원 참여대학원생이 발표에 참여함. 매년 겨울방학 중 개최하는 것으로 교육연구단이 목표한 바와 같이 2022년 2월 개최된 1회 포럼에 이어 2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GSIS BK21 국제학술회의(2023 SNU GSIS BK21 International Conference)” :
 - 1~2차년도 BK21 대학원생 및 해외 협력대학 대학원생 발표를 중심으로 구성했던 대학원생 국제학술회의(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 Conference, IGSC)를 2023년 8월 SNU GSIS BK21 International Conference로 확대·기획함. 참여대학원생의 해외학술대회 발표역량 제고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기존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개발학과 한국학 분야 저명한 해외학자를 초빙하여 패널을 구성함. 그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해 오던 학술대회를 처음으로 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이틀에 걸쳐 총 5개 세션으로 운영하였음.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미국, 캐나다 등 우수한 해외대학 소속 학자들의 발표뿐만 아니라 이들이 참여대학원생 발표세션에 토

론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참여학생들은 준비한 발표에 대해 해외석학들로부터 코멘트를 얻어 논문을 재정비할 수 있는 역량개발 및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함.

- 주제: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the Korean Parameters: For the Positive Connectivity
- 개발학 패널명: Rethink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an Uncertain World: Alternatives for New Development Justice
- 한국학 패널명: Korea's Experience as a Model of Development Strategy
- 해외석학 소속기관: 영국 Sussex University, 남아프리카공화국 University of Pretoria, 호주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미국 University of Hawaii, 중국 Peking University, 캐나다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독일 Freie Universitat Berlin, 중국 Fudan University
- 향후 교육연구단 주최 국제학술회의를 정례화하여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들의 국제교류 기회를 증진하고자 함.

2.4 참여대학원생의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표 2-2〉 2023년 8월 및 2023년 2월 졸업한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취(창)업률 실적(단위: 명, %)

구분	졸업 및 취(창)업현황 (단위: 명, %)						취(창)업률(%) (D/C)×100
	졸업자 (G)	비취업자(B)		취(창)업대상자 (C=G-B)	취(창)업자 (D)		
		진학자					
		국내	국외	입대자			
2023년 2월 졸업자	석사	31	0	0	0	31	28%
	박사	1			0	1	
2023년 8월 졸업자	석사	32	2	0	0	30	16%
	박사	0			0	0	

1) 2023년 2월 졸업생 중 취업자 (9인):

서울대학교, 법무법인 유한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IFAD, EU, 삼일회계법인, TCS, 이화여자대학교

2) 2023년 8월 졸업생 중 취업자 (5인):

주식회사엘케이벤처스,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 서울대학교, 삼일회계법인, KPMG,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인턴

3) 2023년 8월 졸업생 중 진학자 (2인): 서울대, 서울대

3.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우수성

① 참여대학원생 저명학술지 논문의 우수성

○ SSCI 주저자 1건 - 박사과정 1인

1) 전현지 [박사과정] (2022년 12월 - SSCI, 제1저자)

- 논문정보: 전현지·안덕근 (2022) "Evolution and Limitations of the Lesser Duty Rule Under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56권 6호, 985-1012. DOI: 10.54648/trad2022041
- 논문의 우수성: WTO 반덤핑협정의 최소부과원칙에 따라 덤핑 관세는 덤핑 마진과 피해 마진 중 낮은 쪽으로 부과됨.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금액에 한해 덤핑 관세를 부과하도록 제정되었음.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은 오랫동안 최소부과원칙의 의무적인 적용을 옹호해 왔음. 동 원칙은 케네디 라운드에서 처음 제안되었고 큰 변화 없이 도쿄 라운드 반덤핑

코드에서 채택되었음. 그 이후로 변경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재량적인 규칙으로 남아 있음. 최소부과원칙은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규칙이지만 실제 반덤핑 사례에 적용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또한, 최소부과원칙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EU, 호주, 한국 등은 최근 반덤핑 조사에서 동원칙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와 동원칙의 한계를 알리고, WTO 반덤핑협정상 최소부과원칙이 새로운 무역 질서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음.

○ KCI 단독저자 4건 - 박사과정 4인 / KCI 주저자 15건 - 박사과정 4인, 석사과정 11인

1) 강나경 [박사과정] (2023년 8월 - KCI, 단독저자)

- 논문정보: 강나경 (2023) “Breaking the Legislative Gridlock: Understanding Member States” 『EU 연구』 67호, 113-145, DOI: 10.18109/jeus.2023.67.113
- 논문의 우수성: 유럽연합은 최근 20년간 젠더 레짐과 성평등 체제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동일임금 제도 등의 사례가 다양한 형태로 유럽연합 역내 성차별을 줄이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정받아 왔음. 해당 연구는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에서 유럽연합 기업 이사회들의 성 균형 지침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변화를 분석함. 특히 유럽연합 각료이사회들의 반대로 10여 년간 입법교착 상태에 처했는데 이를 타개한 원인으로 회원국의 성평등 개선사항과 지침 내용 수정을 중심으로 확인하였음. 연구 결과 이 지침을 최종적으로 지지하여 입법교착상태 타개를 가져온 회원국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적극적 조치 시행과 국내 정책을 통해 여성 이사진 비율이 증가한 반면, 지침을 거부한 회원국에서는 이러한 진전이 눈에 띄게 더딘 것을 확인함. 또한 유럽연합 각료이사회 프랑스 상임이사국이 다양한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해 입법교착 상태를 극복한 것을 발견함. 따라서 본 연구는 유럽연합 기업 이사회들의 성 균형 지침 채택과정에서 드러난 회원국의 진전과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유럽연합이 성 평등영역에서 꾸준히 진전을 이루기 위해 법안을 채택하는 방식을 조명해, 유럽연합의 민주적 거버넌스 및 젠더레짐 연구에 기여함.

2) 김도경 [박사과정] (2023년 6월 - KCI, 단독저자)

- 논문정보: 김도경 (2023) “A Comprehensive Analysis of China’s National Cybersecurity: Objectives, Systems, and Strategies” 『국제정치연구』 제26집 2호, 67-103. DOI: 10.15235/jir.2023.03.26.2.67
- 논문의 우수성: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KCI)인 『국제정치연구』 제26집 2호(2023년)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연구의 목적은 중국 사이버안보체계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 사이버안보의 전반적 특성과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함임. 이를 위해 우선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이론을 논의하고, 이에 입각하여 중국의 사이버안보체계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변수를 사이버안보의 목표, 법체계, 행정체계, 전략, 국제활동을 중심으로 선정함. 다음에는 중국이 근래 들어 사이버안보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을 파룬궁 사태를 중심으로 탐색하였으며, 이어서 중국 사이버안보체계의 실태를 앞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분석변수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음. 마지막으로, 중국 사이버안보체계의 일반적 특성과 이의 정책적 함의를 논의함. 이 논문은 그동안 중국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목표체계, 법체계, 행정체계, 전략, 국제활동이라는 포괄적인 분석변수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중국의 사이버안보체계의 실태와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데에 의의가 있음.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중국의 사이버안보체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중국의 사이버안보체계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탐색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3) 나지원 [박사과정] (2022년 9월 - KCI, 단독저자)

- 논문정보: 나지원 (2022)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 흑해함대 전력 강화 배경, 추세, 한계” 『슬라브研究』 38권 3호, 25-56. DOI: 10.17840/irsprs.2022.38.3.002
- 논문의 우수성: 이 논문은 2014년 러시아에 의한 크림반도 점령 후 반도 소재 조선업을 활용해 흑해함대의 확대 및 현대화를 도모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노력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시도했음. 특히 광범위한 러시아어 원문 자료를 동원해 이러한 노력이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지, 또 러시아 정부가 향후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할 것인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데 그 의의가 있음.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의 해군력 증강계획 특히 흑해함대의 전력 증강에 대하여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러시아의 해군력 증강에 저해 요소인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와 공급망의 단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부품 조달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시일에 러시아가 원하는 해군력 증강은 매우 힘들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시의성 역시 높다는 평가를 얻으며 게재가 확정됨.

4) 윤하영 [박사과정] (2023년 4월 - KCI, 단독저자)

- 논문정보: 윤하영 (2023) “The Discourse of Non-Regular Employment Policies: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16권 1호, 231-267.
- 논문의 우수성: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 정부의 노동 정책 담론이 비정규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봄. 양국 모두 1990년대 이후 유연한 노동시장을 강조하는 노동 시장 개혁을 거치면서, 이로 인해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했음. 일본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하고 비정규직 활용을 확대하면서 비정규직을 고용형태 다변화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프레임으로 형성함. 그러나 한국은 비정규직 보호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더 집중해 왔으나, 동시에 경제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담론을 계속해서 이어갔음.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일본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망과 지원을 더 강조하기 시작한 반면, 정규직 고용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함. 한국도 고용안정성과 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 유연성을 더 강조하며 이에 따른 친기업 정책들을 펼침. 이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다른 정책 담론으로 한국과 일본은 정책적 대응과 비정규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되었음. 담론적 제도주의에 의해서 한일 양국의 비정규직 노동 정책에 비교 분석하여 정책 담론 형성이 비정규직 노동 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음.

5) 강나경 [박사과정] (2022년 9월 - KCI, 제1저자)

- 논문정보: 강나경·임다빈 (2022) “Unspeakable to Speakable Truth: Transitional Justice Process of April 3 Events”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23권 3호, 145-168 DOI: 10.14363/kaps.2022.23.3.145
- 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제주4.3사건의 전환기 정의 과정을 언론분석을 통해 보도 패턴과 변곡점을 중심으로 진행함. 전환기 정의에 대한 이론은 응보적 모델과 회복적 모델, 혹은 넓은 접근과 좁은 접근, 주요 행위자가 누구인지 등을 중심으로 나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연구를 과정의 정치적 변모를 중심으로 연구해 옴.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전환기 정의에서 주요 행위자로 진실규명을 통해 역사를 새로 정립하는 역할과 법/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상설진실위원회의 역할에 주목함. 실증적으로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4.3사건을 다룬 언론기사 키워드 변화 분석을 통해 상설진실위원회의 활동을 4개의 주요 양상으로 나눔. 그 결과 실제 상설진실위원회는 제주4.3사건에 대한 활동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며,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특히 보도 변곡점에서 지방지의 경우 국가화 시기에 변곡점이 가장 높았던 반면, 중앙지의 경우 이후 가장 큰 변곡점을 기록하여 지연화된 활성화(lagged activation)를 확인함. 또한 보도 패

턴에서도 지방지에서는 피해자, 특별법 등 피해자 중심의 좁은 접근을 보인 반면, 중앙지는 평화, 희생자, 인권, 진실추구, 현대사 등 회복적 차원에서의 보도가 강했음.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 말할 수 없는 진실이 한국의 민주화와 서울의 봄 이후 상설진실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으로 관련 담론을 형성하여 더 안전하고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한 제주4.3사건의 전환기 정의 모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음.

6) 김다운 [박사과정] (2023년 6월 - KCI, 제1저자)

- 논문정보: 김다운 · 김종섭 (2023) “Budget support and governance in foreign aid: Evidence from a panel Granger causality test” 『국제개발협력연구』 15권 2호, 79-94. DOI: 10.32580/idcr.2023.15.2.79
- 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예산지원을 유치하는 조건인지 아니면 예산지원이 굿거버넌스를 촉진하여 원조의 성과로 나타나는 것인지 두 변수 간 인과 관계의 방향성을 분석함. 기존 문헌이 예산지원과 거버넌스의 관계를 원조 선택성과 효과성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본 연구는 예산지원과 거버넌스 사이의 인과적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어 두 학문 간의 연결고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님. 본 연구는 패널 그랜저 인과성 검정을 이용하여 57개 수원국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예산지원과 거버넌스 간 양방향(bidirectional)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였음. 이는 거버넌스가 예산지원을 유치하는 조건인 동시에 예산지원의 결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과 관계의 존재와 그 방향성은 수원국이 속한 소득 그룹과 세부 거버넌스 지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음.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예산지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버넌스 차원이 정치적 역학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결과는 예산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형성하는 데 있어 거버넌스와 정치적 요인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7) 김수정 [박사과정] (2023년 6월 - KCI, 제1저자)

- 논문정보: 김수정 · 박태균 (2023.06.) “한국의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 도입의 역사와 현황” 『국제지역연구』 32권 2호, 171-200. DOI: 10.56115/RIAS.2023.06.32.2.171
- 논문의 우수성: 본고는 한국이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 현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 분석, 신문기사 자료 분석, 어네스트(David C. Earnest)의 비시민 참정권 유형과 MIPEX 스코어 분류에 따른 한국의 특징 분석을 실시하였음.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로 한국은 장기거주 혹은 영주권자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인정하였음. 이러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재일동포의 일본 내 참정권 획득과 대만 출신 화교에 대한 참정권 부여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그러나 한국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인정한 이후에도 일본의 재일동포 참정권은 지속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며, 동시에 2009년 재외국민 투표관련법의 개정으로 한국의 재외국민들은 다시금 참정권을 획득하게 되었음. 이렇듯 22년간 지속된 한국 정부의 외국인 참정권 관련 법안의 개정과 시행은 한국 사회의 이주민 정치 참여의 권리를 일부 보장하였으며, 민주주의 국가로서 ‘비차별적 지방 선거권’을 부여 하고 MIPEX 기준 56개국 중 외국인 정치 참여 분야로는 6위를 기록하는 등 선진적인 행보를 보여 왔음. 그러나 참정권을 부여받는 이주민의 국적이 중국 국적의 동포에게 집중되고, 그 숫자가 늘어나며 중국 동포들의 정치 세력화와 정치 지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이처럼 향후 더욱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에 대하여 더욱 장기적이고 다양한 논의를 통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8) 임평건 [박사과정] (2023년 5월 - KCI, 제1저자)

- 논문정보: 임평건, 공현승 (2023)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COVID-19 대유행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OECD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통권 61호, 149-162. DOI: 10.47116/apicri.2023.05.13

- 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관련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소스의 빅데이터를 통합하고 COVID-19의 확진자 및 사망자 수와 합계출산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COVID-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이 실질적으로 합계출산율과 상관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나아가 세부적으로 COVID-19 이후의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에 대해 파악하였고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합계출산율에 관한 새로운 변수를 제시하여 관련 연구에 다양성을 제시하고 포스트 팬데믹 이후의 출산정책 및 인구정책 연구에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9) 강승원 [석사과정] (2023년 6월 - KCI, 제1저자)

- 논문정보: 강승원 · 조영남 (2023) “A Special Relationship not so Special Anymore: Changing Dynamics of China-Singapore Rel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30권 1호, 45-69. DOI: 10.23071/jias.2023.30.1.45
- 논문의 우수성: 싱가포르를 중국이 개혁개방 시대 때 추구하고자 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틀과 사례를 보여줌. 특히, 어떻게 국가의 경제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아시아에서의 선례를 보였기에 중국의 정치 엘리트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비즈니스 관계자들, 학계에서도 싱가포르에 대한 열풍이 불었었음.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 싱가포르는 특별한 양자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었음. 하지만, 현재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중견국인 싱가포르와 점점 갈등이 심해지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싱가포르의 국가 독립 이후 현재까지 중국과의 관계를 역사적 접근법으로 주요 사건들을 분석함. 중국과 싱가포르는 과거에 남다른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였기에, 현재에도 어떠한 끈끈한 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유대감이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으나,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예외 없이 중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보복당하기에 헤징 전략을 써야 하는 위치에 놓였다는 결론을 도출함. 따라서 중국과 싱가포르의 앞으로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 아무리 과거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국가이더라도 현재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국가라면 예외 없이 보복할 수 있는 국력을 지녔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음.

10) 금유진 [석사과정] (2023년 2월 - KCI, 제1저자)

- 논문정보: 금유진 · 김종섭 (2023) “S자 다중 균형 모형 적용을 통한 조혼에 관한 양적 연구 - 지역별(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중남미연구』 제42권 1호, 1-36. DOI: <http://dx.doi.org/10.17855/jias.2023.2.42.1.1>
- 논문의 우수성: 조혼은 여아의 건강과 정신을 심각하게 침해하지만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관습이며 특히 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여전히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조혼의 원인에 대한 많은 기존 질적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그 원인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세 지역에서 대표적인 나라(방글라데시, 니제르, 온두라스)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하여 조혼의 근본 원인을 분석함. 특히, 조혼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다중균형을 설명하는 S자 모형에 적용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는 양적 연구를 진행함. 연구는 총 4가지 사회 요인인 미온적 정부 태도, 효과적이지 않은 법, 성차별적 문화 규범, 그리고 높은 공동체적 응집성이 조혼을 강화해 온 공통 요인임을 도출함. 특히 세 나라를 비교한 결과, 적극적인 정부 태도와 전통적 문화 규범의 해소가 조혼에 대한 기대치와 실제치를 낮추는 데 더욱 효과적임을 분석함. 세 지역의 양적 비교 연구를 통해 저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에 공동체 단위의 접근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을 그 시사점으로 제시함. 본 연구는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범지역적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앞으로 조혼 근절에 각 정부와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11) 김경현 [석사과정] (2023년 7월 - KCI, 제1저자)

- 논문정보: 김경현·이수형(2023.07.) “Cayman Over China: Trends and Accounting Factors of South Kore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37권 3호, 424-445. DOI: 10.1080/10168737.2023.2239205
- 논문의 우수성: 이 논문의 연구 중요성은 대한민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과 회계 요소를 최신으로 분석한다는 점에 있음. 수많은 학계 연구자들이 세계적으로 외국 직접투자를 조사해 왔지만, 이 논문은 대한민국 사례에만 초점을 맞추며 경제 요인과 국가 특정 요인의 중요성을 분석했음. 이 논문은 2021년까지의 최근 21년 동안의 FDI 패턴을 분석했으며, 이는 대부분의 연구가 2000년대 초까지의 FDI 패턴을 조사하는 것과 대조적임. 이 논문은 수취국별 동향에 대한 유일한 연구로, 이를 투자자 산업 및 규모별로 나누어 이질적인 패턴을 조사함. 이 논문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미래 FDI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12) 박도연 [석사과정] (2023년 6월 - KCI, 제1저자)

- 논문정보: 박도연·송지연 (2023.06.) “E-2020 아프리카 사례를 중심으로 본 국경 말라리아 차단 중요성” 『국제지역연구』 32권 2호, 141-169. DOI: 10.56115/RIAS.2023.06.32.2.141
- 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말라리아 퇴치 관련 치료 및 기술 발전과 청정국의 증가에도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여전히 말라리아 박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함.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 박멸 실패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기존 연구 대부분은 아프리카의 기후 환경적 특성과 불안정한 사회경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그러나 전염병의 확산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인 높은 국가 간 밀집도를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음. 본 연구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한 국경 유입 말라리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효과적인 말라리아 박멸 방안을 모색하고 유용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2016년 말라리아 박멸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로 언급한 E-2020 그룹 중에서 아프리카 지역 내 국가들을 주요 비교사례로 활용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였음. E-2020 목표 달성 국가인 알제리, 미달성 국가인 카보베르데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모두 말라리아 박멸 과정 중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들어오는 국경 말라리아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공통점이 있음. 국경 말라리아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성공적인 말라리아 박멸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 본 연구는 국경 말라리아 대처에 대한 방안으로 인접 국가들의 협력을 통한 국경 감시 강화로 국내로 유입되는 말라리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또한 장기적인 초국경 협력과 국제사회의 국제보건협력 노력이 필수적임.

13) 박효진 [석사과정] (2023년 4월 - KCI, 제1저자)

- 논문정보: 박효진·김종섭 (2023) “Can the Law Pull the Custom? - A Gender Case Study on Rwanda and Nicaragua” 『라틴아메리카연구』 36권 1호, 35-52.
- 논문의 우수성: 르완다와 니카라과는 권위주의 체제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법률 등 공식적인 규범으로 성평등을 측정할 때 높은 수준의 성평등을 이룬 국가로 잘 알려짐. 그러나 전통 관습, 문화적 관행, 여성에 대한 폭력 등 비공식적인 사회 규범을 고려할 때 여성의 일상생활은 공식 규범이 제시하는 것만큼 긍정적이지 않음. 이 논문은 르완다와 니카라과의 사례를 분석하여 특히 여성 권리, 토지 소유, 가정 폭력 분야를 조사하여 법과 관습 사이의 격차가 이들 국가 여성의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 결과적으로 법과 관습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습을 적당한 수준으로 뛰어넘는 온건한 법이 필요하며 나아가 적극적인 여성 운동을 통한 법 집행 메커니즘의 존재의 필요를 제시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음.

14) 반혜원 [석사과정] (2023년 8월 - KCI, 제1저자)

- 논문정보: 반혜원 · 김종섭 (2023) “브라질 파벨라의 환경개선 노력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향 모색”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20권 2호, 35-52. DOI: 10.22945/ajlas.2023.36.1.35
- 논문의 우수성: 본 논문은 노르만 룡의 행위자 중심 접근법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파벨라에서는 환경오염을 통제하지 못한 데 비해 Rocinha 파벨라가 환경보전에 성공한 원인을 분석함.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일반적인 파벨라가 자치기구, 정부, 범죄조직 간의 갈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환경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웠다는 점임. 특히 복잡한 지배구조는 파벨라의 치안을 극도로 불안하게 하여 외부 기관의 지원도 불가능함. 그러나 Rocinha의 경우 지배구조가 다른 파벨라보다는 안정적이었고 정부에서 설치한 평화유지경찰대(UPP)가 주민들의 협조로 잘 작동하면서 치안이 안정되고 이로 인해 외부기관의 지원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정책도 가능해졌다는 점을 밝혀냄.

15) 손동찬 [석사과정] (2023년 7월 - KCI, 제1저자)

- 논문정보: 손동찬 · 김종섭 (2023) “환경규제 규제순응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르완다와 케냐의 비닐봉투 규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7권 3호, 117-144. DOI: 10.18327/jias.2023.7.27.3.117
- 논문의 우수성: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 또는 지역들이 시행하고 있는 비닐봉투 관련 규제는 대표적인 환경규제의 예임. 이때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문제 해결의 시급성, 고�형폐기물을 비롯한 쓰레기 관리와 처리 시스템의 후진성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사용금지 규제를 시행하는데, 르완다의 경우 해당 분야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힘. 하지만 기존의 국내는 물론 해외의 관련 선행연구들 중 “어떻게” 르완다가 해당 규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없었음. 이에 본 연구는 규제순응 관점에 입각하여 르완다의 성공 배경에는 규제순응 확보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이를 유사 규제 시행 중인 이웃국가 케냐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더욱 명확히 입증함. 즉, 르완다의 비닐봉투 규제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임. 또한 르완다가 강제적 성격의 “우무간다”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식의 변화, 최종적으로는 규제순응을 이끌어 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비록 정부의 개입이 강제적일지라도 이것이 규제순응,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이는 환경규제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오늘날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음.

16) 신송학 [석사과정] (2023년 8월 - KCI, 교신저자)

- 논문정보: 김보경 · 신송학 (2023) “A Refugee Local Integration Model for the Global South? Uganda’s Inclusive Refugee Policies Focusing on Education”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69집: 57-90.
- 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에서는 우간다의 포용적 난민 정책을 살펴보았음. 2015년 이후 난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우간다는 통합을 강조하며 그 기초를 이어왔음. 본 논문은 특히 미래 세대에 대한 정책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육통합 정책을 분석하여 우간다가 주장하는 지역 통합의 의미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난민에 대한 글로벌 컴팩트’ 에서도 분석한 바와 같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접근은 기존의 권리 중심적 접근에서 실질적 지원으로 전환되는 추세임. 이를 고려할 때, 본 논문은 우간다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포용적 난민 정책은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국제적 인도주의 지원과 엄격한 감시가 동시에 필요하며, 그러한 지원이 있을 때 비로소 글로벌 남반구에서 잠재적 대안 모델로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시사함.

17) 이준성 [석사과정] (2023년 6월 - KCI, 제1저자)

- 논문정보: 이준성 · 김종섭 (2023) “Community Participation in Nonformal Education Systems in Senegal and Tanzania: A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Social Capital Theory”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30권 1호, 107-127. DOI:10.23071/jias.2023.30.1.107.
- 논문의 우수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프랑스, 영국 등 강대국의 식민 지배 경험이 독립 이후로도 사회 전역에 많이 남아 있으며, 특히 영향을 많이 받은 교육 제도는 각국의 사회 및 장기적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특정 국가의 교육 제도나, 공교육이 다룰 수 없는 범위의 개별적인 제도권 외 교육은 기존 연구에서 종종 다루는 주제이지만, 프랑스 구 식민지와 영국 구 식민지 아프리카 국가의 비제도권 교육을 비교한 연구는 드물. 본 연구는 세네갈과 탄자니아를 예시로 들어 비제도권 교육에서 공동체 참여가 교육 개발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함. 저자는 두 국가의 비제도권 교육을 지역사회 학교 시스템, NGO 주도 프로그램, 종교 기반 단체 활동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부르디외와 콜먼의 사회자본이론을 분석의 틀로 사용하여 각 사례에서 공동체 참여가 교육 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함. 지역사회 학교 시스템과 NGO 주도 프로그램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며, 지역 공동체 구성원에게 주인의식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생성과 긍정적 사용을 촉진함. 한편 종교 기반 단체는 지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구조의 부족과 구식 관습의 폐해로 인해 사회적 자본이 긍정적인 발전을 저해하거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결론을 도출함. 본 연구는 다양한 비제도권 교육 사례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사회적 자본 이론을 통해 접근하여 성공적인 사례를 설명하며, 종교 기반 단체의 활동에서 보이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점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18) 임윤정 [석사과정] (2023년 4월 - KCI, 교신저자)

- 논문정보: 김보경 · 임윤정 (2023) “아프리카 물 분쟁과 제 3자 조정(Third-Party Intervention)의 한계: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댐(GERD)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7권 2호, 105-136.
- 논문의 우수성: 영토 분쟁과 불공평한 자원의 재분배, 그리고 비대칭적인 권력구조로 인하여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수자원 갈등은 대표적인 지역적 대립을 초래함. 특히 자원의 소유가 국제사회에서의 높은 협상력으로 이어짐에 따라 자원을 둘러싼 분쟁은 해결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함.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2011년 착공, 2024년 완공 예정인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댐과 물 분쟁을 중심으로 교착 상태인 분쟁 조정 과정을 분석함. 현재에도 건설 중인 르네상스댐은 에티오피아, 이집트, 수단 정부의 수자원 갈등과 물 분쟁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댐 건설로 인하여 나일강 주변국 간의 충돌도 증폭되고 있음. 연구는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댐이 에티오피아, 이집트, 수단 정부의 주요 충돌과 긴장 관계를 조성함에 따라, 분쟁 해결 과정에 있어 나일 분지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한 삼국간의 협상의 한계와 제3자, 즉 국제사회의 개입을 검토함. 에티오피아 르네상스댐 협상 과정에서 평화유지 수준의 조정이 시도되지 않으면 현재의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기에, 제3자의 조정(Third-Party Intervention) 시도와 중재 형태, 이해당사국을 포함한 나일강 주변 국가의 입장을 검토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또한, 에티오피아 정부가 주변국과 공동권리권에 대한 협상, 범 지역적인 전력망 구축 등을 하며 동아프리카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접 국가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함. 에티오피아, 이집트, 수단뿐만 아니라 나일강 주변 국가들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구체적인 논의와 신중한 협상 과정이 필수적임. 여러 이해관계와 경제실익형 동기가 주변국 입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에 대한 제3자의 조정전략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연구는 제3자 조정을 통한 정교한 중재 형태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함.

19) 최하은 [석사과정] (2023년 8월 - KCI, 제1저자)

- 논문정보: 최하은 · 김종섭 (2023) “Gender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Marital Status and Type on Life Satisfaction and Self-Rated Health in Tanzania” 『The Korean Association of African Studies』 69권, 129-164.
- 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탄자니아의 젠더에 따른 결혼 여부 및 유형이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 구체적으로 2008-2015 탄자니아의 국가 패널 조사 데이터 (TNPS UPD)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측면을 살펴봄. 첫째, 기혼남녀와 미혼남녀 사이의 삶의 만족도 및 주관적 건강상태의 차이, 둘째, 결혼 유형(일부일처제 및 일부다처제)에 따른 이러한 측정치의 차이. 다중 회귀 모델을 사용한 실증 분석에 따르면 기혼 남녀 모두 미혼 남여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가 나타났음. 그러나 건강과 관련, 기혼 남성은 미혼 남성보다 건강을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기혼 여성은 미혼 여성에 비해 동일한 이점을 나타내지 않았음. 결혼 유형과 관련, 일부다처제 남성은 일부일처제 남성보다 더 높은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타내지만 일부다처제 여성은 일부일처제 여성에 비해 더 부정적인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며 두 여성 그룹 간에 삶의 만족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 탄자니아의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하나, 일부다처제와 같은 남성 중심적인 결혼 문화는 탄자니아에서 여성 건강 상태의 상당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②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 국제학술대회 발표 24건 - 박사과정 5명, 석사과정 16명

1)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ISA) Asia-Pacific Region 2023 Annual Conference: Global Role of Asia-Indo Pacific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thropocene, Peace and Security “ (2023.08.08.)

(1) 황혜진 (석사과정)

- 패널명: Group 9: Health & Population In-Person Panel (그룹 9: 보건과 인구 대학원생 패널)
- 발표제목: “Economic Nationalism and Regional Disintegration: Grassroots Nationalist Movements in Northeast Asia” (경제민족주의와 반(反)지역협력: 동아시아내 민간운동)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민족주의 운동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국가 중심적인 경제 민족주의 문헌에 기여함. 2016년 사드(THAAD)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내 반한(反韓)운동과 2019년에 시작된 한일 무역 분쟁 두 사례를 무역 통계와 여론조사를 통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비교를 분석틀로 채택. ISA Asia-Pacific의 주관으로 와세다대학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음.

2) 2023 Asian Studies Conference Japan(ASCJ) (2023.07.01.)

(1) 김치영 (석사과정)

- 패널명: Hydropolitics, Transboundary Waters, and Borderlands: Conflict among Riparian Countries of the Mekong River
- 발표제목: “Dilemma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asons why the Mekong Project should be Continued”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1950년대부터 이어져 온 메콩강 유역의 개발 협력의 노력과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현 개발 협력의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함. 1950년대부터 지속된 메콩강 유역의 개발 협력은 약 2억 명의 인구에 영향을 주지만 현 개발 협력의 미비한 결과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역 갈등 심화를 지적하며, 현재 Mekong Committee에서 Mekong River Commission으

로 이어져 온 비효율적인 모델 대신 새로운 개발 협력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함.

(2) 금유진 (석사과정)

- 패널명: Hydropolitics, Transboundary Waters, and Borderlands: Conflict among Riparian Countries of the Mekong River
- 발표제목: “Managing Risks in Hydropower Dam Construction in Mekong reg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ree Dams in Laos- Xayaburi, Pak Beng and Don Sahong Dams”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메콩 유역 수력 발전 댐을 둘러싼 국가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메콩강 본류에 있는 세 개의 수력댐 인프라 건설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을 비교·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함.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데 효과적인 위험 평가를 분석틀로 채택하여 특히 정치적 분야가 댐 인프라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방해하는 결정적 요인임을 도출하였다. 메콩 유역에서 지속적인 댐 건설, 경제발전 및 지역 안보 증진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3) 이주현 (석사과정)

- 패널명: Hydropolitics, Transboundary Waters, and Borderlands: Conflict among Riparian Countries of the Mekong River
- 발표제목: “The Rol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Promoting Sustainable Hydropower Dams: Case Study on Mekong and Amazon River”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수력 발전의 사회적, 환경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력 발전 댐의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운동의 역할과 정책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에 기여함. 각 메콩강의 자야부리댐에 반대하는 베트남과 아마존 강의 벨루 몬테댐에 반대하는 브라질의 사례의 특징과 전략을 분석하는 사례연구법을 사용함. Asian Studies Conference Japan, 일본 도쿄 소피아 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제 학회에서 발표하였음.

3)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ICA) Media Sociology Post-conference (2023.05.24.)

(1) Zhang Yichi (석사과정)

- 발표제목: “The Softcore Pornography and National Censorship on China’s Digital Platform”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논문은 현 젊은 세대가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 친밀감과 성적 판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지를 다루고 있음. 또한 디지털 플랫폼들이 전통적인 포르노에서 잠재적으로 검열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성적환상을 증대시키는 소프트 셀프 프랜딩 접근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국가 검열을 헤쳐나가는지도 설명하고 있음. 겉보기에는 조금 더 안전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인터넷상의 성 산업에서 여성행위자들이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품게 함으로써 현장에 이용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소외되고 박탈당하는지를 중국의 청소년들의 인터넷 성 상품 서비스 구매를 사례로 들어 설명함.

4)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80th Annual Conference (2023.04.13.-15.)

(1) 강나경 (박사과정)

- 패널명: LGBTQ+ Politics LGBT Movements and the politics of acceptance, liberation, and justice (성 소수자 운동과 정치적 수용성, 자유화와 정의)
- 발표제목: “Changes in the Acceptance of Homosexuality After Judicial and Legislative Interventions: The Case of Taiwan and South Korea” (사법 및 입법 개입 후 전환기의 동성애 수용성 변화: 대만과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국제대학원 동료들과의 공동연구이며, 본 연구자는 제1저자이자 교

신저자로 연구의 설계와 문헌조사, 분석, 결론을 작성함. 사법부는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입법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때에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이는 과거 여성, 소수민족, 장애인의 권리를 비롯해, 최근 성 소수자에 대한 담론에서도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옴. 그러나 이러한 전환기의 성 소수자에 대한 수용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탐구되지 않은 영역이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동성애 관련 문헌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기존 문헌을 통해 유럽과 미주의 경우 동성애에 대한 여론의 우호적 변화를 사법부 개입을 통해서 이루었던 반면, 아시아의 경우 가부장적 문화와 종교적 이유로 성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이해의 노력이 부진함을 확인. 그러나, 아시아에서도 대만과 태국을 비롯, 올해 2월 한국 서울고등법원에서 동성결합 커플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로, 전환기를 맞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의 변화하는 한국의 담론을 분석하고, 한국보다 앞서 사법부의 개입을 통해 동성혼을 합법화한 대만의 비교를 통해 추후의 변화를 예측해 보는 시의적절하며 합의가 충분한 연구로 판단됨. 사회담론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대만의 차이잉원 정부(총 378건의 언론 보도)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총 131건의 언론보도)의 대통령 선거 유세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성 소수자를 다룬 언론보도를 취합함. 이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두 주제 포용적(인권, 교육, 권리, 찬성을 중심으로 한 기사) 주제와 부정적(질병, 반대, 혐오와 거짓정보 중심으로 한 기사) 주제로 범주화하여, 실증적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함.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사회 엘리트로 행위자의 담론변화를 구체적으로 검증함. 현재 연구를 수정하여, SCOPUS 저널에 투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임.

(2) 강나경 (박사과정)

- 패널명: Effects of Legislators Background on Public Opinion and Policy Outcomes (유럽정치 의원들의 배경이 여론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 세션)
- 발표제목: “EU’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Issues at Stake: Evidence from Roll Call Votes Data Using PCA”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쟁점: 주성분분석을 활용 표결 분석을 중심으로)
- 발표논문의 우수성: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무역을 통한 기후변화 개선 방안으로 세계탄소배출감축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세계무역기구 및 국제환경레짐의 준수, 개발도상국의 반발, 유럽연합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독자적 정책이라는 비판 등을 받고 있어 다양한 쟁점을 망라하는 정책임. 유럽의회는 이러한 복잡성을 가진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유럽시민을 대표하여 다양한 정책 선호를 조정하며, 유럽시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구임. 따라서 해당 논의에서 유럽의회의원들이 어떠한 쟁점 사안을 염두에 두고 표결에 참여했는지 통계적 기법인 주성분분석을 활용해 실증적 연구를 진행함. 주성분 분석을 활용해 환경안건에 대한 지지 결정요인을 파악해 본 결과, 정당의 이념, 연령 등을 통제하더라도 의회 내 경제선진국의 여성의원들이 더 높은 지지를 보이는 것을 확인함. 토론자들은 의원들의 배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해당 시범 연구에 관심을 가짐. 따라서 이에 관해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5)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64th Annual Convention: Real Struggles, High Stakes: Cooperation, Contention, and Creativity (2023.03.15.)

(1) 박지수 (석사과정)

- 패널명: “The Politics of Energy: Security, Cooperation, and Beyond”
- 발표제목: “Northeast Asia’s Energy (In)security and Energy Cooperation”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국가들(한국, 중국, 일본)의 에너지 안보 위기와 협력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에너지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세일 혁명과 우크라이나 전쟁 후, 세계 에너지 안보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 64회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국제 학술회의에서 발표하였음.

6) 3rd Korean Studies Young Scholars(KSYS) Graduate Student Conference- Change & Continuity (2023.03.03.)

(1) 김수정 (박사과정)

- 패널명: Diaspora
- 발표제목: “Study on the Analysis of Determinants and Settlement Process of 3rd Generation Korean-Chinese Migration to Korea”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조선족의 귀환 이주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관련 선행 연구들이 귀환 이주 1·2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 것과 달리 2023년 현재 한국으로 귀환 이주를 실시한 3세대 조선족들의 이주 형태와 이주 목적에 대해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여 분석함. 귀환 이주 1세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이주 형태의 특수성과 1, 2세대 귀환 이주 조선족과 큰 차이를 보이는 3세대 이주 조선족의 이주 목적과 그 형태를 통하여 향후 한국의 노동이주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해당 연구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James Joo-Jin Kim 한국학 센터가 주최한 제3회 한국학 신진 학자 대학원생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음.

7) Palacky University “The 16th Annual Conference on Asian Studies” 학생발표 (2022.11.26.)

(1) 이찬희 (석사과정)

- 패널명: Panel 20: Female bodies, relationships, and identities (대학원생 패널)
- 발표제목: “Between The Real and the Modified body - Images of the “Natural” and Selfhood in Japanese Makeup Tutorial Videos”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현대 일본의 뷰티 문화에서 두드러지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스타일의 중요성을 해석하며, 이를 통해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자아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복합적인 과정에 대한 고찰을 제시하였음. 특히, 본 연구는 일본 여성들이 외부의 사회적 기대와 내면의 개인적 욕망 사이에서 자아를 조정하는 과정을 연구하여,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개인과 공공, 내부와 외부의 갈등하는 개념을 어떻게 매개하는지 분석함으로써, 메이크업이라는 행위가 단순한 외적인 꾸밈 행위가 아닌, 자아의 형성과 표출에 관련된 복잡한 프로세스를 파악하는 데에 기여함. 본 논문은 일본 뷰티 문화의 변화와 젊은 여성들이라는 구체적 세대의 미용을 위한 선택에 대한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화장 및 미용 문화를 일상적인 행위로서의 해석을 확장하여, 개인의 선택과 사회적 기대, 현실과 변형 사이의 상호작용을 탐구,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

8) The Third Jean Monnet Network European Transoceanic Encounters and Exchanges Kobe University, Japan 2022 “ETEE School” 학생발표 (2022.11.14.-17.)

(1) 심민경 (석사과정)

- 패널명: “ EU - Korea Relations (대학원생 패널)”
- 발표제목: “Public Perceptions on EU-Korea Relations after the EU-Korea FTA”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EU와 한국 간의 1963년부터 시작된 외교관계와 그 영향에 대해 분석, 현재까지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한국인들의 EU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분석함.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EU를 세계적인 경제 플레이어로 인식하며, 이는 주로 한국의 미디어에서 경제와 무역 이슈에 대한 주요 보도 때문임. 그러나, EU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은 정치적으로 약한 세력이며, 인권, 환경, 개발 등의 문제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음.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 체계와 그것이 한국인들의 EU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음. 특히, EU 정치와 유럽 언어 교육의 부족이 EU와 유럽 국가들을 구별하는데 혼란을 일으키며, 이는 한국인들이 유럽 문화와 다양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냄. 이러한 발견을 통해, 본 연구는 EU와 한국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며, 더 나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함. 서울대학교, KU Leuven, University of Amsterdam, Kobe University, UC Berkeley,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Jawaharlal Nehru University 후원으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음.

9) 동아시아일본학회 2022 추계학술회의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 학생발표 (2022.11.05.)

(1) 장인화 (박사과정)

- 패널명: 日本學
- 발표제목: “현대 일본종교의 생존전략 분석—신사(神社)를 중심으로—”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일본 문화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인 신사(神社)의 현황을 신사 관계자와의 인터뷰와 통계자료를 통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종교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는 현대 사회에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분석하였음. 생존전략은 크게 로컬 유형과 포괄적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분석을 통하여 신사가 여전히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면서도 생존을 위해 타지역 주민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도입하였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음. 이와 같은 분석은 새로운 시각으로 일본 문화의 기초를 파악하여 일본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향후 한일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10) 2022 EAAA East Asi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EAAA) Annual Meeting (2022.10.15.)

(1) 김도경 (박사과정)

- 패널명: Inclusive Education and Training: Issu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Asia
- 발표제목: “단일민족국가에서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불평등에 관한 연구: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변수를 탐색하여 이들의 교육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첫째, 교육불평등에 관한 적절한 이론적 틀을 탐구한 후, 한국 사회와 학교 교실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겪는 교육 불이익의 정도를 검토하였음. 다음 장에서는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의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교육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들을 분석하며, 마지막 장에서는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데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본 논문은 EAAA East Asi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주최로 대만 국립 정치 대학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2) 김수정 (박사과정), 임평건 (박사과정)

- 패널명: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Refugees, and Women: Rights and Empowerment
- 발표제목: “Why stay in Korea? - A Study on the Analysis of Determinants and Settlement Process of 3rd generation Korean-Chinese Migration to Korea”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이주민 3세대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된 한국 사회로의 조선족 이주 현상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분석하였음. 특히 이 과정에서 단순노동 인력으로 대표되어 온 조선족 이주민 1세대와 2세대의 이주 패턴이 고등교육에의 진학, 전문성 함양을 통한 전문직종 종사의 목적으로 상당 부분 변화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음. 이러한 이주 패턴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전반적인 노동 이주 정책이 향후 조선족 이주민들의 고학력화, 전문직화, 기존 조선족 이주민의 고령화 등에 맞추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3) 강나경 (박사과정), 줄리엔 (석사과정), 구관립 (석사과정)

- 패널명: Family and Partnership

- 발표제목: Acceptance of Homosexuality: a Comparative Newspaper Content Analysis in Taiwan and South Korea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관련 담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대만과 한국을 중심으로 분석함. 이를 위해 권력과 담론 이론을 활용하여 대만과 한국의 주요 언론에서 동성애, 동성혼 관련 논의가 어떻게 다루졌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했음. 한국과 대만에서의 동성애 관련 담론 행위자와 키워드 패턴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언론의 정치적 이념성에 따른 언론 보도 패턴에서 한국의 동성애 담론이 더 현저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정치화되어 있으며 언론에 따른 차이가 현저히 드러남을 실증적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함. 현재 이러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한국과 대만의 동성애 담론을 전환기를 중심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4월에 미국중부정치학회(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에서 온라인 발표를 진행, 이후 논문 투고를 준비하고 있음.

(4) 구민지 (석사과정)

- 패널명: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Refugees, and Women: Rights and Empowerment
- 발표제목: “Protection of Indigenous Peoples: Social Inclusion or Exclusion?”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인류학의 사회 통합적인 부문에서 미국과 중국 원주민의 사회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원주민 사회적 배제로부터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다양한 고전적 형태의 사회적 포함 및 배제 이론을 통합한 Mascareno와 Carvajal (2015)의 현대의 사회적 포함 및 배제 이론을 분석틀로 채택했음. 대만 국립정치대학교에서 동아시아인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음.

(5) 박효진 (석사과정)

- 패널명: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Refugees, and Women: Rights and Empowerment
- 발표제목: “Women Rights: The Gap of Law and Custom on Rwanda and Nicaragua”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르완다와 니카라과에서의 여성 인권 관련 공식적 규범(법)과 비공식적 규범(문화)의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 여성 운동, 토지 소유, 가정 폭력 등의 사회적 분야를 분석하여 법과 규범 사이의 괴리가 있음을 제시함. 이를 바탕으로 여성 운동과 법의 점진적 발전의 중요성을 해결책으로 제시함. East Asia Anthropological Association 주관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음.

(6) 신승학 (석사과정)

- 패널명: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Refugees, and Women: Rights and Empowerment
- 발표제목: “The Inclusive Policy of Uganda for Forced Migrants”
- 발표논문의 우수성: 우간다는 개발도상국 중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한 국가 중 하나로 난민에 대한 통합정책을 펼치는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음. 최근 10년간 목표치를 밑도는 경제성장을 둔화와 엄청난 출산율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간다 정부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3.22%에 달하는 약 142만 5,000명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받아들였음. A. Ager and A. Strang의 모델을 통해 이러한 우간다의 난민 통합 수준을 분석하였음.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우간다가 난민에 대한 포용적 정책을 펼치는 이유를 제시하고, 이러한 '관대한' 정책이 난민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논하였음.

(7) 이유림 (석사과정)

- 패널명: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Refugees, and Women: Rights and Empowerment
- 발표제목: “On the Basic Rights of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Right and Access to Healthcare”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 접근권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함.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 협약에 명시된 미등록 이주 아동의 건강권, 국내법 및 정책에서 정의하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건강권, 그리고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의료 접근성 및 그 실태를 분석하여, 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 및 정책, 그리고 실태 사이 준수 간극(compliance gap)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본 연구는 대만 국립정치 대학에서 2022년 10월 15~16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 2022 East Asi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EAAA) Annual Meeting에서 발표하였음.

(8) 임윤정 (석사과정)

- 패널명: Inclusive Education and Training: Issu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Asia
- 발표제목: “Korea’s Strategie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s i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Programs: Focusing on Cooperation Plans with Cambodia and Vietnam with a Case Study of Projects of the Korea-Vietnam Industrial Technical School”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한국과 베트남 교육 분야 개발 협력사업 중 성공적인 사례인 한-베 산업기술대학 지원 사업을 토대로 당시 직업 혹은 기술 훈련 분야 공적 개발원조 사업의 주요 제약 요인을 극복한 이유 분석을 제시하였음.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 과정을 스케일업 (확대) 이론으로 설명하며, 양국의 이해관계 및 소통의 과정을 검토함. 이러한 분석은 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과 원조 효과성을 고민하는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 확장 전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9) 조수빈 (석사과정)

- 패널명: Inclusive Education and Training: Issu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Asia
- 발표제목: “The In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Mongolia - with the Case of Strengthening Teachers’ Ability and Reasonable Treatment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START)”
- 발표논문의 우수성: 일본과 몽골 모두 포용적 교육이라는 국가적 교육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으나 내용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임. 본 연구는 이러한 일본(START)과 몽골(CWD)의 포용적 교육의 상이한 입장 및 태도를 다루고 있으며, 나아가 현재 두 국가의 교육 모델은 국제적 실행을 위해 협상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그러한 프로젝트의 구현과 현지화에 필요한 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논하고 있음.

○ 국내학술대회 발표 5건 - 박사과정 3명, 석사과정 1명

1)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23 하계학술회의 (2023.06.17.)

(1) 이수지 (박사과정)

- 패널명: 라틴아메리카의 근대화와 그 이후
- 발표제목: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Reducing CO2 Emissions- Evidence From Latin America”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현시대 중요한 이슈인 CO2 배출 감소에 있어 국가 및 비국가 단체 즉, 시민사회의 역할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시민사회의 활동이 활발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심층연구하여 CO2 배출량 감소에 대한 쟁점을 제시함. 고정 효과 모델을 적용하여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59개국의 데이터를 다루는 패널 데이터 세트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외교부, 제주대 평화연구소,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한국포르투갈 브라질학회의 후원으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음.

(2) 곽지원 (석사과정)

- 패널명: 라틴아메리카 환경 이슈 (대학원 세션)
- 발표제목: “Tragedy of the Commons and Forest Management - the Case of Latin American Countries”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숲의 공동자원에 있어 자연 친화적 관행을 이어온 원주민 집단과 외부 자원 개발자 간의 갈등을 자원체계 및 거버넌스의 역학과 연결 지어 분석하였음. 오스트롬(Ostrom)의 사회생태체계 프레임워크를 변형한 이론틀을 통해 브라질 와자피(Wajapi)와 페루 시피보(Shipibo) 원주민 공동체를 비교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생물 다양성 보존의 맥락에서 원주민의 영토주권, 체계적 대응, 그리고 정부와 원주민 간 협력의 중요성을 효과적인 자원 관리의 주요 변수로 도출하였음.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외교부 중남미국, 제주대 평화연구소,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그리고 한국포르투갈·브라질 학회가 공동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음.

2)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2023.02.03.)

(1) 강나경 (박사과정)

- 패널명: 제5분과회의의 한국 EU학회 세션
- 발표제목: 디지털 및 녹색전환에서의 브뤼셀 현상: 유럽연합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중심으로 (Brussels Effect in Digital and Green Transition)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유럽연합 규제의 국제화 현상인 브뤼셀 현상을 최근 디지털 및 녹색전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함. 특히 유럽연합이 신산업 전략 2020에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디지털 및 녹색전환 관련 정책에서의 합의를 이끌고 있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디지털 거버넌스에서의 규제 접근 방식에서의 차이 등 정책 기조에 반한 갈등과 합의 사안, 협력국과의 결속전략(binding strategy)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함. 이를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한국과의 결속전략에서 한국의 대응 현안을 중심으로 실천적 합의를 제시함. 해당 연구는 본 연구자가 연구용역으로 참여한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의 “2022 글로벌 코리아포럼 공동연구: 유럽과 가치 중심의 경제협력과 개발협력 파트너십 강화방안”의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발표하였으며, 본 세션은 한국 EU학회의 주관으로 개최됨.

3) 2022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 10주년 기념행사 (2022.12.01.)

(1) 홍민혁 (박사과정)

- 패널명: Voices from the Youth for Green Growth (청년패널)
- 발표제목: “Green Growth as a Driver of Green ODA”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논문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GG 수준과 그들의 G-ODA 기여액 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혼합연구 방법론을 사용했다. GG와 G-ODA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고정효과 다중변수 회귀분석에 기반을 둔 정량적 연구방법을 사용했고,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 질적 방법을 사용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GG와 G-ODA가 긍정적인 관계를 지니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 결과를 정치적 이유로 귀속할 수 있다고 주장함. 위 결과를 한국의 청년대표로 발표하여 세계은행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음.

4) 2022 글로벌 코리아 포럼 (2022.11.24.)

(1) 강나경 (박사과정)

- 패널명: 유럽의 가치 중심의 경제협력과 개발협력 파트너십 강화
- 발표제목: “미중 패권구도에서 유럽의 대외경제협력의 쟁점”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유럽의 규제권력을 역내 정책인 신산업 전략과 미국-유럽연합의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과의 경제협력에서의 정책적 합의를 제시함. 미국-유럽연합의 양자간 경제협력에서 무역과 기술 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의 설립과 관련 환경 및 노동 이슈를 중심으로 갈등과 합의 사안을 분석함. 이어 한국-유럽연합의 경제협력에서 강조되고 있

는 탄소국경조정세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지 요청, 디지털 무역과 데이터 보호법에 대한 관련 조정 현황 등 관련 정책 협의를 세부적으로 다룸. 해당 연구는 본 연구자가 연구용역으로 참여한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의 “2022 글로벌 코리아포럼 공동연구: 유럽과 가치 중심의 경제협력과 개발협력 파트너십 강화방안”의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발표하였으며, 본 세션은 한국 EU학회의 주관으로 개최됨.

③ 참여대학원생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해당 없음

4. 신진연구인력 현황 및 실적

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계획 대비 실적 및 향후계획

- 제1차년도 교육연구단의 기반구축 단계에서 국제개발, 지역학 분야 전문가 2인을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하였으며, 제2차년도와 제3차년도 교육연구단의 안정화 단계에서 산업·사회 문제 해결분야 연구 및 국제개발 분야 전문가를 충원하여 교육연구단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안정적인 추진을 모색하고자 함. 신진연구인력은 1년 단위로 신규·재임용 심사를 통해 계약연장을 하며,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즉각적인 충원을 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계획서상 기재된 바와 같이 신진연구인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박사후연구원 1명, 계약교수 1명으로 인원을 유지할 예정임. 제1차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신진연구인력 임용·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음.
 - 2020년 11월 01일 ~ 2022년 6월 30일 계약교수 김정민 박사 (개인 사유로 퇴직)
 - 2020년 10월 15일 ~ 2022년 8월 31일 박사후연구원 김보경 박사
 - 2022년 09월 01일 ~ 2023년 08월 31일 계약교수 김보경 박사 (계약만료 및 임용으로 인한 퇴직)
 - 2022년 08월 01일 ~ 현재 박사후연구원 심예리 박사
 - 2023년 09월 01일 ~ 현재 박사후연구원 최윤희 박사
- 제4~5차년도 이후부터는 교육연구단이 5년간의 교육활동을 통해 배출한 박사급 연구자 또는 교육연구단의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해외 벤치마킹 대상 대학의 박사학위취득자 중 국제개발·지역학 현장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 사업기간 후반부에 해당하는 제6~7차년도 경에는 해외대학 신진연구자를 Global Visiting Fellow로 초청하고자 함(코로나19로 인해 사업기간 전반부에는 해외신진연구자 초청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를 위해 전문가특강 초청과 같은 기회를 활용하여 사업단 목표와 연구주제 간의 부합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할 예정임. 또한 BK21 4단계 종료 후 있을 후속사업에 대비하여 신규사업단계 기획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신진연구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2) 우수 신진연구인력 지원 계획 대비 실적 및 향후계획

(1) 신진연구인력 경력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건비 책정 및 지급

- 신진연구인력의 경력에 따른 인건비를 차등 책정하고, 공무원임금인상기준 등을 참고하여 물가상승에 따라 연 단위 재임용 심사 시 계약임금을 조정함으로써, 신진연구인력의 생활여건 안정화를 도모함

(2) 안정적인 연구활동 수행을 위한 연구환경 정비

- 신진연구인력의 안정적인 학술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학내 시설 및 서비스(도서관 사용자격 등)

를 전임교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각종 기자재를 갖춘 독립된 연구 공간을 신진연구인력 2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마련함.

(3) 연구 수월성 확보를 위한 교육연구단 전담직원 채용 및 연구보조원 배정

- 신진연구인력이 연구 이외의 행정업무로 학술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받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연구단 행정전담인력 1인을 채용하여 산학협력단과의 회계 및 서류처리 업무 등 교육연구단의 일상적 행정 처리를 전담하도록 함.

- 2020년 9월 ~ 2021년 2월: 직원
- 2021년 2월 ~ 2022년 12월: 직원
- 2022년 12월 ~ 현재: 직원

- 신진연구인력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학원생과의 공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신진연구인력 1인당 1명의 BK21 참여대학원생을 RA로 배정했으며, 이는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수월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4) 국내외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확장

- 신진연구인력은 근래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학계에 들어선 연구자이므로, 국내외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대해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는 물론 국제대학원의 전임교원은 각자가 지금까지 구축해 온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본 연구단에 소속된 신진연구인력이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진은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단계적 지원을 통해 연구의 질적 우수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해외석학초청특강(BK21 Special Lecture Series) 연사 초청단계에서 신진연구인력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우수 대학의 분야 전문가와의 자연스러운 네트워킹과 연구교류가 가능하도록 함.

-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계획인 연구용역 또는 공동연구사업에 신진연구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유관기관과의 연구 네트워크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사업단장의 승인하에 학기 당 일정 정도의 강의 및 연구용역 참여가 가능하며, 이는 교육연구단 활동만으로는 경험하기 어려운 종류의 강의·연구활동에 대한 경력으로 이어짐. 신진연구인력 2인은 매 학기 서울대학교에서 한 개의 교과목을 담당하며 교육연구단 연구주제와 관련된 여러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활동함.

- 국내외 공동연구 및 국제학술대회 패널발표에 신진연구인력이 중간관리자 역할 등의 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전문가와 네트워킹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를 제공함.

- 2022년 10월 15~16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인류학대회(East Asi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EAAA) 연례학술회의에 동 교육연구단 이름으로 두 개의 패널을 신청하여, 참여교수 2명, 참여대학원생 12명 (패널발표 9명, 개인발표 3명), 신진연구인력 2명이 함께 참가함. 해당 학술대회에서 신진연구인력은 Panel Organizer이자 토론자로 소속되어 패널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경험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여러 전문가와 교류할 수 있었음.

- 2023년 7월 1~2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일본아시아학회(Asian Studies Conference Japan, ASCJ) 연례학술회의에 동 교육연구단 이름으로 패널을 신청하였으며, 참여교수 2명, 참여대학원생 3명, 신진연구인력 2명이 함께 참가함. 해당 학술대회에서 신진연구인력은 Panel Organizer이자 토론자로 소속되어 패널을 진행하였음.

(5) 참여대학원생과의 공동연구 지원 및 논문지도 참여 기회 부여

- 신진연구인력이 단지 참여대학원생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교육연구단의 실무 및 운영을 담당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참여대학원생과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논문 투고 등의 활동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또한,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주제와 신진연구인력의 연구분야가 유사한 경우, 참여교수의 판단에 따라 논문지도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신진연구인력이 연구자로서뿐만 아니라 향후 대학원생의 연구를 지도할 교육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6)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 및 학술지 논문게재 비용 지원

- 신진연구인력의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및 저널 논문게재를 장려하기 위해, 관련된 제반비용(심사비, 게재료, 국제저명학술지 투고 시 외국어 첨삭비용 등)을 지원함.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에 참가하는 경우, 교통비/숙박비/일비/숙박비를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맞춰 지급함.
 - 2022년 9월 ~ 2023년 8월 기간 중 김보경 신진연구인력에 대해 국제학술대회 등록비 및 여비를 지원 완료함 (2023 ISA 학술회의 발표, 2023 DSA 학술회의 발표, 케임브리지대학교 국제공동연구 워크숍 참여).
 - 2022년 9월 ~ 2023년 8월 기간 중 심예리 신진연구인력에 대해 국제학술대회 등록비 및 여비를 지원 완료함 (2023 DSA 학술회의 발표).

(7) 신진연구인력의 저서 출판 지원

- BK21 사업비 집행 규정상 출판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음. 이에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저서 지원 여부를 심사할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해당 저서가 본 교육연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교재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본 교육연구단이 설정한 연구 및 교육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지가 큰 비중을 차지함.
-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의 단행본 출판지원에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현재 교육연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차별 교재개발사업에 신진연구인력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를 학생과 공동집필하는 형태로 저서출판 실적 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과제를 진행 중임.
 - 2022 제3차년도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를 위한 사례집 II (국제개발과 포용적 성장: 젠더·빈곤·교육 사례연구)’ (참여교수 5인, 신진연구인력 1인, 참여대학원생 10인 공동집필)
 - 2023 제4차년도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를 위한 사례집 III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에너지·식량안보 사례연구)’ (참여교수 6인 신진연구인력 2인, 참여대학원생 11인 공동집필)

(8) 해외자료조사 기회 제공

- 신진연구인력의 논문 작성을 위한 해외자료조사 비용 혹은 해외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연수비용을 연 1회 지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신진연구인력의 해외자료조사 기간은 15일 이내의 단기연수에 준하여 설정하며, 해외자료조사에 소요되는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원함). 해외자료조사 비용 혹은 해외연구자와의 공동연구 연수비용을 지원받은 신진연구인력은 해당 조사 혹은 연구 종료 2년 내에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를 의무화함으로써 해외자료조사 지원금 수혜에 대한 책임성을 높임.
 - 김보경 신진연구인력은 제3차년도(2022.06.21.-25.)에 지원받은 동남아시아 메콩강 유역 지뢰/불발탄 제거 연구 해외현지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를 작성하여 이를 2023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ISA) 연례학술회의(2023.03.16.)에서 “Inclusive Mechanisms for

an Integrated Approach to Development: Scaling-up Dynamics in Development-Peace Projects in the Mekong Region” 제목으로 발표함. 이후 원고를 김태균 참여교수와 함께 수정·발전시켜 “Asianizing the Integrated Approach for Development Cooperation? Scaling-Up Dynamics in KOICA’s Peace-Development nexus Projects in the Mekong Region” 제목으로 2023년 4월 SCOPUS 등재지 Asia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에 투고 후 현재 원고 수정 작업 중임. 또한, 2023년 ISA 연례학술회의에서 Roundtable “Bridging Resilience Theory and Policy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Contention and Creativity” 패널리스트로 발표 (2023.03.16.)하여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함. 패널에서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2023년 6월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국제공동연구 워크샵에 참석함.

- 해외공동연구 워크샵 및 국제학술회의 발표를 위해 김보경 신진연구인력이 영국 케임브리지 및 레딩을 방문함(2023.06.22.-30.). 캠브리지대학교 국제공동연구 “Lost in Translation? Understanding Resilience in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CRASSH (Center for Research in the Arts,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워크샵 참여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서의 회복탄력성 정책담론의 양상을 분석한 여러 연구를 발표 및 공유함. 워크샵에서의 결과물을 정리하여 이를 레딩대학교에서 개최된 2023 영국개발학회(DSA) 연례학술회의에서 김태균 참여교수와 함께 공동발표함. 귀국 후 워크샵 및 학회에서의 논의내용을 반영하여, 현재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silience in South Korea’s Policy Dialogue: Its Approach and Impact on Regional Cooperation” 제목으로 논문을 공동집필 중이며 연구 종료 2년 이내에 논문출판을 통해 교육연구단 연구실적에 기여하고자 함.
- 심예리 신진연구인력은 영국 레딩대학교에서 개최된 2023 영국개발학회(DSA) 연례학술회의에 발표자로 참여함. “How does feminist thinking in gender and development affect change in the Anthropocene?” 패널에서 “Rethinking gender mainstreaming: A field-oriented approach to assessing its transformative potential with a focus on local gender network”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주제에 관심있는 학자 및 출판사들과 향후 출판 기회에 대해 미팅을 가짐. 현재 발표논문을 투고하고자 수정 중임.

(9) 학술 및 연구활동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교육연구단의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신진연구인력의 학술 및 연구 활동 실적과 교육연구단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 등을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신진연구인력의 교육연구단에 대한 기여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내규를 정립함.

3) 신진연구인력의 교육실적 및 연구실적 (2022년 9월 ~ 2023년 8월 실적)

○ 김보경 신진연구인력

(연구교수: 임용기간 - 2022년 9월 1일 ~ 2023년 8월 31일)

(1) BK21 교육연구단 관련 행정업무:

- 교육연구단 신규 홈페이지 관리업무 전담 (gsisbk21.snu.ac.kr)
- 해외석학초청·동문초청 특강시리즈 행정지원, BK21 워크숍, 세미나, IGSC-VMC, GDF, SNU GSIS BK21 International Conference 등 사업단 주최 행사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외 참여대학원생 활동지원, 개별면담 등 교육연구단 관련 업무·활동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2023 교재개발사업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를 통한 교재개발 III-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에너지·식량안보 사례연구’ 연구책임 등

(2) 교육실적:

(가) 강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2022년 2학기 『국제협력세미나1: 지속가능발전과 국제협력(Seminar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1: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과목 강의

(나) 학생 논문심사 및 공동연구

- 학위논문심사(프로포절): 석사과정 , 석사과정
- 학위논문심사(디펜스): 석사과정 , 석사과정
- 학생공동연구: 석사과정 신송학(BK교재개발사업 공동집필, 해외학회발표, KCI등재지 논문게재)
석사과정 이효은(BK교재개발사업 공동집필)

(3) 연구실적 및 기타학술활동:

(가) 학술논문: 총 4건

- 2023년 8월 (KCI등재지, 주저자) “A Refugee Local Integration Model for the Global South? Uganda’s Inclusive Refugee Policies Focusing on Education”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69집: 57-90.
- 2023년 4월 (KCI등재지, 주저자) “아프리카 물 분쟁과 제3자 조정(Third-Party Intervention)의 한계: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댐(GERD)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7권 2호: 105-136.
- 2022년 12월 (KCI등재지, 주저자) “Common or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Leveling the Playing Field for the Global South in Sustainable Development”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4권 4호: 23-40.
- 2022년 12월 (SSCI, 단독) “Mutual Accountability in Fragile States: Seeking Strategic Responses through Partnership Platforms” *Global Governance* 28(4): 534-561.

(나) 저서 및 발간물: 총 1건

- 2023년 2월 (국내단행본, 챗터공저) 누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인가? 유엔지속가능 발전의 비판적 성찰, 제3장 “SDGs 이행책임에 대한 글로벌 남반구의 대응전략” pp. 68-103. 서울: 인간사랑 (ISBN: 978-981-16-4600-3)

(다) 학술대회 발표 (국내·국제): 국내 - 토론 1건 / 국제 - 발표 6건·토론 1건

- 2023.07.01. The 25th Asian Studies Conference Japan (ASCJ) (국제-발표)
- 2023.06.29. Development Studies Association (DSA) 2023 Annual Conference (국제-공동발표)
- 2023.06.22. 2023 Academic Council on the United Nations System (ACUNS) Annual Meeting (국제-공동발표)
- 2023.03.16. 2023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ISA) Annual Convention (국제-발표)
- 2022.10.15. 2022 East Asi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EAAA) Annual Meeting (국제-발표)
- 2022.10.16. 2022 East Asi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EAAA) Annual Meeting (국제-토론)
- 2022.10.07. 국제개발협력학회 2022 추계학술대회 (국내-토론)
- 2022.09.14.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2022 (국제-발표)

(라) 연구 프로젝트 참여: 총 4건

- 2023.05.01.-2023.08.31.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를 통한 교재개발 III -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에너지·식량안보 사례연구’ 연구 책임 (연구책임: 김보경 신진연구인력)
- 2022.07.01.-2022.10.24. 주요국의 대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동향 조사 (연구책임: 김태균 교수)
- 2022.05.01.-2022.10.31.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를 통한 교재개발 II - 국제개발과 포용적 성장: 젠더·빈곤·교육 사례연구’ 연구 참여 (연구책임: 박태균 교육연구단장)

2021.11.07.-2022.10.31. 유엔사회개발연구소 (UNRISD, 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DEEPEN (The Development-Environment-Peace Nexus in Borders and Borderlands) 프로젝트’ 참여 (연구책임: UNRISD 선임연구원)

(마) 기타 학회활동: 3건

- 2022.03.01. ~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센터 공동연구원
- 2022.01.01. ~ 현재: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편집부위원장
- 2022.01.01. ~ 현재: 한국국제정치학회(KAIS) 국제개발협력연구분과위원회 위원

○ 심예리 신진연구인력

(박사후연구원: 임용기간 - 2022년 8월 1일 ~ 현재)

(1) BK21 교육연구단 관련 행정업무:

- 교육연구단 이메일 관리업무 전담 (gsis_bk21@snu.ac.kr)
- 해외석학초청·동문초청 특강시리즈 행정지원, BK21 워크숍, 세미나, GDF, SNU GSIS BK21 International Conference 등 사업단 주최 행사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외 참여대학원생 활동지원, 개별면담 등 교육연구단 관련 업무·활동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2023 교재개발사업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를 통한 교재개발 III-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에너지·식량안보 사례연구’ 참여

(2) 교육실적:

(가) 강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2022년 2학기 『국제개발세미나2: 젠더, 정치와 정책(Seminar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2: Gender, Politics and Policy)』 과목 강의
- 2023년 1학기 『국제개발세미나2: 젠더, 정치와 정책(Seminar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2: Gender, Politics and Policy)』 과목 강의

(나) 학생 논문심사 및 공동연구

- 학위논문심사(프로포절): 석사과정 , 석사과정
- 학생공동연구: 박사과정 김규영(BK교재개발사업 공동집필)

(3) 연구실적 및 기타학술활동:

(가) 학술논문: 총 2건

- 2022년 12월 (KCI등재지, 교신저자) “Common or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Leveling the Playing Field for the Global South in Sustainable Development”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4권 4호: 23-40.
- 2022년 11월 (KCI등재지, 교신저자) “농촌특화 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농촌지역 성평등 교육 참여자의 경험적 인식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제33권 4호: 685-702.

(나) 저서 및 발간물: 총 1건

- 2023년 2월 (국내단행본, 챗터공저) 누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인가? 유엔지속가능 발전의 비판적 성찰, 제3장 “SDGs 이행책임에 대한 글로벌 남반구의 대응전략” pp. 68-103. 서울: 인간사랑 (ISBN: 978-981-16-4600-3)

(다) 학술대회 발표 (국내·국제): 국내 - 토론 1건 / 국제 - 발표 6건·토론 1건

- 2023.07.01. The 25th Asian Studies Conference Japan (ASCJ) (국제-토론)
- 2023.06.29. Development Studies Association (DSA) 2023 Annual Conference (국제-발표)
- 2023.06.23.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하계학술대회 (국내-발표)

- 2023.06.22. 2023 Academic Council on the United Nations System (ACUNS) Annual Meeting (국제-공동발표)
- 2022.10.16. 2022 East Asi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EAAA) Annual Meeting (국제-토론)
- 2022.10.07. 국제개발협력학회 2022 추계학술대회 (국내-발표)

(라) 연구 프로젝트 참여: 총 4건

- 2023.05.01.-2023.08.31.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를 통한 교재개발 III -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에너지·식량안보 사례연구’ 연구 책임 (연구책임: 김보경 신진연구인력)
- 2022.10.20.-2022.12.20.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제4차) 심의대비 연구 (연구책임: 김태균 교수)
- 2022.07.01.-2022.10.24. 주요국의 대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동향 조사 (연구책임: 김태균 교수)
- 2022.01.-현재 농업인의 양성평등 평가지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책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마) 기타 학회활동: 3건

- 2023.01.01. ~ 현재: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연구부위원장
- 2023.01.01. ~ 현재: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젠더분과위원장
- 2022.03.01. ~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센터 공동연구원

5.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1) 박태균 교수 (교육연구단장)

- 2022년 2학기 “한미관계사연구” 교과목을 담당하였으며, 이는 독일 자유베를린대학과 공동수업으로 진행됨. 수강생 중 BK참여대학원생과 함께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독일을 방문하여 2023년 1월 31일 최종 수업을 진행하고 동년 2월 2일 공동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함께 세미나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마련함. 2월 1일에는 포츠담 회담이 열린 장소 및 베를린 장벽 박물관을 방문하여 ‘국제안보’ 및 ‘평화 SDG’ 와 관련된 답사를 실행함.
- 2023년 1학기 “한국의 역사(근현대사)” 교과목을 담당하였으며, 자유베를린대학과 공동수업으로 진행함. 자유베를린대학 측에서 참여한 학생 중 1인이 2023년 2학기부터 서울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예정 (Maria Angel 석사과정 학생).
- 소천한국학센터 소장으로서 “한중관계-조공관계의 다학제적 접근” (2023년 6월 9일), “정전협정 70주년 학술회의” (2023년 7월 21일) 등을 주제로 한 여러 학술회의 주최 및 주관. BK 학생들이 참여하여 국제개발 이슈에서 ‘국제정치’ 와 ‘평화’ 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음.
- 국제개발협력과 지역학을 주제로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컨소시엄 워크숍 “2023 SNU GSIS BK21 International Conference: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the Korean Parameters: For the Positive Connectivity” 주관.

2) 김종섭 교수

- 2023년 1학기 젠더와 개발을 주제로 한 “성평등의 사회경제적 분석” 과목을 개설하여 주로 경제학적 방법론으로 각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성평등/불평등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침.
- BK21 사업단 학생과 교재개발을 위한 공동 사례연구에 참여하여 교재를 위한 사례를 개발하고 이를 논문으로 발전시켜 학회 발표 및 학술지 게재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하도록 지도하였음. 여기서 개발한 사례는 수업에도 활용하고 있음.

3) 김태균 교수

- 2023년 1학기 “국제인권과 난민문제의 이해(Understand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Refugee Issues)” 교과목을 담당하여 법적·정치적·도덕적 제도에 있어 중요한 일부로 확립된 인권 규범의 여러 도전과제를 소개함. 강의는 이론적, 실증적 관점에서 인권 인식 및 보호에 대한 기원, 역사적 발전, 인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실천 방식 등에 대해 다룸.
- 2023년 1학기 “국제기구론(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교과목을 담당하여 학생들이 국제 수준에서 국가 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정부 간 조직의 형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함. 유엔, IMF, 세계은행, WTO 등의 국제기구와 글로벌 시민사회의 역사적 기원과 주요 조직적 기능 등을 검토하고 인권, 개발협력, 경제외교, 민주주의 등 다양한 이슈 영역을 국제기구의 관점에서 설명하였음.

4) 박지환 교수

- 2022년 2학기 “일본의 사회와 문화” 라는 수업을 개설하여 전후 일본의 역사를 간략하게 학습한 후 가족, 교육, 기업, 젠더, 에스니시티, 하위문화, 성 소수자, 노인, 지방, 극우 사회운동 등의 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현대 일본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음.
- 2022년 2학기 “현대일본사회의 쟁점: 청년문화의 이해” 라는 수업을 개설해, 청년의 시각과 경험을 통해 현대 일본의 구조적 변화를 검토함. 구체적으로는 청년문화론, 오타쿠 문화, 학교에서 회사로의 이행, 해외 이주 청년, 지방 거주·이주·잔류 청년, 현재지향적 청년, 자기 계발과 청년 등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룸.
- BK21 사업단 학생 조수빈과 교재개발을 위한 공동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일본-몽골의 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에 관한 국제협력프로젝트를 다각도로 분석함. 이후 논문게재를 목표로 원고를 투고하였으며, 심사 진행 중임.

5) 송지연 교수

- 2022학년도 2학기는 연구학기로 수업을 개설하지는 않았지만, 참여대학원생을 포함하여 다수 학생들의 석사학위 논문을 지도하였음.
- 2023학년도 1학기는 “세계화 시대의 국가, 자본, 노동,” “국제협력과 사회경제개발” 교과목 강의를 담당하여 학생들에게 세계화 시대의 국내외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사회경제개발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과 사례들을 다루었음.
- BK21 사업단 학생들과 환경, 에너지 주제로 2건의 공동 사례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연구를 토대로 2023년 2학기 해외학술대회에서 발표 및 논문 게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

6) 신성호 교수

- 2022년 2학기 국제대학원의 기본과목이자 최대 수강인원 과목인 “국제협력의 이해” 강의를 통해 각종 국제현안은 물론 국제개발과 기후, 에너지, 여성인권 문제 등을 60명의 학생들과 토의 및 교육. 동 과목에는 특히 국제대학원의 KOICA 지원으로 참여 중인 개도국의 중견관리 학생들이 전원 수강하여 개도국의 실상과 수요, 그리고 선진국 개도국 간의 협력과 발전 방안을 함께 토의
- 2023년 1학기에는 BK21 사업단 지도학생 중 박지수 학생과 교재개발을 위한 공동 사례연구에 참여하여 동북아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한 논문 작성 지도

7) 오윤아 교수

- 2022년 2학기 “동아시아지역의 이해” 와 “한국과 동남아 관계” 교과목을 담당하여 동아시아 최근 지정학적 상황과 그 구조적 연원, 한국과 동남아 협력관계 등에 대해 강의함.

8) 윤세미 교수

- 2023년 1학기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한 “지속가능발전의 이해(Understanding Sustainable Development)” 과목을 신규 개설하여 환경과 경제발전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모함. 학생들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이슈(기후, 질병, 농업, 자원 고갈, 인구학적 스트레스 등)를 선정하여 각국이 처한 상황과 타개하기 위한 개발정책,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을 분석함.
- 2022년 2학기부터 환경지속가능성 라운드테이블(Environment Roundtable) 주임교수로서 환경 지속가능성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함. 라운드테이블은 매주 세계적으로 다뤄진 환경이슈에 대한 뉴스를 공유하고, 학생들이 돌아가며 연구해보고자 하는 환경 이슈에 대해서 소개하고 연구 주제를 토론하는 자리임.

9) 은기수 교수

- 2022년 2학기 “젠더와 개발 (Gender and Development)”, 2022년 2학기·2023년 1학기 “비교방법론 (Comparative Methodology)”, 2023년 1학기 “한국의 사회 (Korean Society)” 교과목을 담당
-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센터장으로서 ‘포용사회와 돌봄’, ‘국제이주와 통합’, ‘젠더평등과 변호’ 라는 세 가지 큰 연구축을 토대로 다양한 공개세미나를 기획하여 사업단의 교육·연구의 지평을 넓힘.

10) 이수형 교수

- 2022년 2학기 “국제개발 정책평가” 과목을 담당하고 논문 지도함.
- 2023년 여름학기 “국제통상세미나 1(동아시아 국가의 이해: 경제, 사회, 정치) 과목을 담당함.

11) 이해영 교수

- 2023년도 1학기 “국제법(International Law)” 과목을 담당하여, 국제법 체제의 구조 및 전개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제고함.
- 2023년도 여름방학 동안 진행된 “Seminar in International Commerce: Understanding East Asian Countries: Economy, Society, and Politics” 에 “International and Regional Approaches to Human Rights Protection in East Asia” 강의를 개설하여 강의함.
- 다수의 석박사 학생 논문을 심사함.

12) 정종호 교수

- 2022년 2학기 “지역연구연습” 을 통해 “중국문화연구” 주제로 과목을 개설하여 미중 전략적 경쟁 속에서 중국의 변화를 참여대학원생들과 논의하였으며, 특히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대중국전략을 위한 중국문화의 이해에 중점을 둠.
- 2023년 1학기 “동아시아 지역의 이해” 수업을 통하여 동아시아 3국(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적 구성에 대한 이해는 물론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BK 참여 학생들과 논의

13) 한정훈 교수

- 2022년 2학기 “유럽통합: 유럽연합의 법과 제도 (European Integration: Law and Institutions of European Union)”, “글로벌 시대의 한국과 정치 (Politics in Global Korea)”, 2023년 1학기 “유럽연합의 정치적 발전 (Political Development of the European Union)”, “한국학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Studies)” 교과목을 담당.
- 한국학 전공 및 지역학 전공 7명, DCPP학생 4명의 석사학위논문을 지도하였음.

6. 교육의 국제화 전략

①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1) 인·아웃바운드 프로그램 지속 및 강화

(1) 개발협력정책프로그램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Program, DCP)

-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진행해 온 DCP 프로그램은 ‘젠더개발학 석사과정’에서 2023년 9월부터 ‘에너지 정책 석사과정’으로 전환될 예정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2020년 2학기부터 개발도상국 국가들에서 양성평등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0명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Gender and Development Program으로 초청하여 17개월 동안 교육하였음. 젠더개발학 석사과정을 통해 저개발지역의 국제개발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산업사회문제인 성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3기에 걸쳐 총 60명의 학생이 참여함. 2020년 8월에 20명(젠더개발학 1차과정)이 입학하여 2022년 8월에 전원 졸업하였으며, 2021년 8월에 20명(젠더개발학 2차과정)이 입학하여 2023년 8월 전원 졸업함 (2년 과정). 2022년 8월에 20명(젠더개발학 3차과정)이 입학하여 2024년 2월 졸업예정임(3차과정부터 1.5년 과정으로 단축).
- ‘에너지 정책 석사과정’은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대응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의 관료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 예정임. 최근 2023년 8월 15명(에너지정책분야 1차과정)이 입학하였으며 2025년 2월 석사학위 수여 예정임. 2023년도 2학기부터 3년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은 각국에서 해결해야 할 에너지 이슈를 파악한 상태로 학위과정을 시작하게 됨.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써 에너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유사한 에너지 이슈에 관심 있는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공무원 학생을 매칭함으로써 에너지 이슈의 다각화된 솔루션 도출을 위한 연구팀들을 구성할 계획임.
- 동 프로그램을 이수한 개도국 공무원들은 석사학위를 받은 후 본국으로 돌아가 자국의 정책적, 제도적 성평등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2) 공동강의·해외연수 프로그램

- 기존 해외대학과의 공동교과목 운영 지속(캠퍼스아시아) 및 신규과목 개발·개설을 통해 공동강의를 향후 공동연구로 확장하고자 함. 2022년 2학기 독일 자유베를린대학교 공동교과목을 개설하고 이후 겨울방학 중 자유베를린대학에서 해외연수를 이어 나감.
- 향후 중국연변대학교 융합대학원 한국학과와의 공동강의(신청서상 공동교과목명: 동북아의 지역적 특성과 개발전략), 태국 출라롱콘대학교와의 공동강의(신청서상 공동교과목명: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국제이주 연구)를 개설하고 이를 장기적인 국제공동연구로 발전시키고자 함.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은 개발도상국에서의 고등교육 질적 개선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음. 2008년부터 SNU-Chula 한국학프로그램(Korean Studies Program)을 시작하여 매년 2~3명의 교수가 태국 출라롱콘대학교를 방문하여 강의를 진행하면서 개도국 고등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발전을 위해 기여한 바 있음. 제4차년도 이후에는 유사프로그램 설치를 희망하는 호치민대학교와 필리핀 국립대학교에 대한 지원을 적극 고려하고 있음. 또한, 연변대학교에 대한 유사한 지원을 검토하여 국제화와 한국연구 거점으로 지정된 연변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국제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임.

(3) 해외학자(초빙교수, 객원교수 등 포함) 활용 계획

-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진과 해외대학 교원교류를 통해 파견된 교수진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교육연구단의 국제화 역량을 향상하고 증가하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측면에서 여타 해외대학과도 유사한 교원교류 제도를 더욱 활발히 모색할 계획임.

(4) 외국 대학과의 복수학위제도를 통한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계획

- 현재 서울대학교 본부와 국제대학원의 자체 장학금, 그리고 정부초청 장학생 유치를 통해 우수 외국인 학생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 SNU-Chula 한국학 프로그램(SNU-Chula Korean Studies Program)을 호치민대학 및 필리핀국립대학에 유사한 형태로 설치함으로써 동남아시아 대학원생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통한 개발도상국 전문가 프로그램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개발정책과정(DCPP) 졸업생의 진학을 유도함.
- 국제대학원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독일 튀빙겐대학교(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프랑스 에섹경영대학교(ESSEC Business School), 벨기에 루벤 가톨릭대학교(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등 동 대학원과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해외대학 및 기관에서 우수한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고 있음.

2) 외국연구소·대학과의 인적교류 및 국제 공동연구 확대 계획

(1) 2023 SNU GSIS BK21 International Conference를 통한 해외석학 및 대학원생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

- 2023년 8월 10~11일,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the Korean Parameters: For the Positive Connectivity를 주제로 교육연구단의 첫 대면 국제학술대회를 기획함. 그간 비대면 형태의 학생발표를 중심으로 운영하던 국제학술회의의 취지를 유지하고자 대학원생 패널 세션을 확대하고, 개발학과 한국학 패널을 추가 구성하여 해외석학을 초빙하는 방식으로 이틀에 걸쳐 5개 세션을 운영함.
- 해외학자는 영국 Sussex University, 남아프리카공화국 University of Pretoria, 호주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미국 University of Hawaii, 중국 Peking University, 캐나다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독일 Freie Universität Berlin, 중국 Fudan University에서 초청하였음. 대학원생 세션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BK참여학생 외에도 미국 Harvard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일본 Kyushu University 등 다양한 해외대학에서 참여하여 학생들의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 특히, 본 교육연구단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한 영국 Sussex University 국제관계학과 학장 Kevin Gray 교수가 참여하여 남남협력을 주제로 패널 발표함. 또한 글로벌 남반구 및 지역학 연구에 특화된 남아프리카공화국 University of Pretoria의 Alf Nilsen 교수를 초청함. 두 교수는 패널 발표뿐만 아니라 BK대학원생 세션 토론자로 참여하도록 기획하였음. 이를 통해 학생들이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2) 국제학연구소 글로벌 엑셀런스 세미나를 통한 학술교류

- 국제학연구소 주관 글로벌 엑셀런스 세미나(Global Excellence Seminar)의 경우 2022년 2학기, 2023년 1학기 각각 평균 약 10회 외부발표자를 초청하여 진행하였으며, 참여교수진 중 김태균 교수, 박지환 교수, 신성호 교수, 오윤아 교수, 이수형 교수, 한정훈 교수 등이 사회 및 토론을 맡음. 아울러 신진연구인력 2인 모두 발표자로 참여함.
- 2022년 2학기~2023년 1학기 글로벌 엑셀런스 세미나(Global Excellence Seminar) 19회 개최 참여
(2022.09.16.) 사회: 박지환 참여교수, 발표: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Koreagate Revisited: ROK Congressional Lobbying in the 1970s”
(2022.09.30.) 사회: 이수형 참여교수, 발표: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2022.10.07.) 사회: 이수형 참여교수, 발표: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Discrimination as an Agency Problem”

- (2022.10.21.) 사회: 김태균 참여교수, 발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 “Oil in War: The Fuel Dilemma and Military Effectiveness”
- (2022.11.04.) 사회: 박지환 참여교수, 발표: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 ‘달콤한 대만: 중국 내 대만 청년 식음료 창업을 통해 본 양안관계의 변화”
- (2022.11.11.) 사회: 박지환 참여교수, 발표: (인천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의 고령화와 지역의 공간적 변화”
- (2022.11.18.) 사회: 박지환 참여교수, 발표: 김보경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BK) “Scaling-up for Integrated Approach in Development: Mine Action in Cambodia and Lao PDR”
- (2022.11.25.) 사회: 오윤아 참여교수, 발표: (한국개발연구원)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과 정책적 시사점”
- (2022.12.02.) 사회: 김태균 참여교수, 발표: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한국의 디지털 불평등”
- (2022.12.09.) 사회: 한정훈 참여교수, 발표: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The Politics of Bride Immigration: Competitive Immigration Policy in South Korea”
- (2023.03.10.) 사회: 김태균 참여교수, 발표: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Does an Integrated Approach Lead to Better Outcomes? Youth Volunteers Supporting Peace and Recovery in Dafur”
- (2023.03.24.) 사회: 이수형 참여교수, 발표: (KAIST 경영대학원) “Why Does Some Markets Welcome Uber while Others Do Not? How Political Competition Affects Innovation”
- (2023.03.31.) 사회: Benjamin A. Engel, 발표: 심예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BK) “Mainstreaming Gender in Development: Focusing on the Role of Gender Experts in Vietnam and Cambodia”
- (2023.04.07.) 사회: 박지환 참여교수, 발표: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국경을 넘는 삶: 국경정책의 변화와 교역 이동성에 대하여”
- (2023.04.14.) 사회: 이수형 참여교수, 발표: (KAIST 경영대학원) “Cross-shareholding Business Groups and Liquidity Crises”
- (2023.04.28.) 사회: 신성호 참여교수, 발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Changing Dynamics of Security Commitment in the US-ROK Alliance”
- (2024.05.12.) 사회: 김태균 참여교수, 발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The Global Compact for Refugees and Complementary Pathways: Precarious Privatization or Alternative Future of Refugee Protection”
- (2023.05.19.) 사회: 박지환 참여교수, 발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BK) “우리는 왜 병원에서 죽게 되었나?: 근대적 생명정치부터 연명의료까지”
- (2023.05.26.) 사회: 오윤아 참여교수, 발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The Return of Industrial Policies: Neo-developmentalism in India and Indonesia”

(3) 국제학연구소 글로벌 프로미넌스 세미나를 통한 학술교류

- 국제학연구소 주관 글로벌 프로미넌스 세미나(Global Prominence Seminar)의 경우 국제학 및 지역학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중진학자들과의 학술적인 토론을 통해 학제 간 연구의 발판을 넓히고 연구진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된 세미나 시리즈에 해당함. 2022년 2학기, 2023년 1학기 각각 6회와 4회 개최되었으며, 참여교수진 중 김종섭 교수, 김태균 교수,

송지연 교수, 신성호 교수, 정중호 교수가 사회 및 발표를 담당함.

- (2022.09.21.) 제11회 GPS 사회 : 김종섭 참여교수, 발표: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아베 시대의 자민당 정치”
- (2022.10.19.) 제13회 GPS 사회: 송지연 참여교수, 발표: 신성호 참여교수 “미중 핵경쟁과 통합 억제, 한반도 비핵화 전망”
- (2022.11.16.) 제14회 GPS 사회: 박지환 참여교수, 발표: 정중호 참여교수 “Agents and Victims in Post-Mao China: Story of ‘Floating Party Members (liudong dangyuan)’ in Zhejiangcun during the ‘Beijing-Tianjin-Hebei (Jing-Jin-Ji) Coordinated Development”
- (2022.12.13.) 제15회 GPS 사회: 신성호 참여교수, 발표: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교수) “Korea’ s Arms Industry in the Global Hierarchy of Arms-Producing States”
- (2022.12.14.) 제16회 GPS 사회: 김태균 참여교수, 발표: 김종섭 참여교수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책에 주는 효과”
- (2023.04.20.) 제18회 GPS 사회: 신성호 참여교수, 발표: (Israeli Ambassador to the ROK) “From Isolation to Integration: Israel’ s Place in the Middle East and Its Relations with Korea”
- (2023.05.12.) 제19회 GPS 사회: 신성호 참여교수, 발표: (Chief Economist at the World Bank), Jun Rentschler (Senior Economist at the World Bank), Jason Russ (Senior Economist at the World Bank) “Green, Resilient and Inclusive Development (GRID) in Action”
- (2023.06.12.) 제20회 GPS 사회: 신성호 참여교수, 발표: (Pacific Forum) “US-China Maritime Security Issues in the Indo-Pacific”

(4) 토요타 재단 지원 외국인 교수 강의 프로그램

- 토요타 재단의 지원으로 국제대학원에서 그간 외국인 교수 강의 프로그램(비정기개최 “Asia and the World 공개강연회”, “Issues and Perspectives 세미나”)이 진행되어 왔으며, 오윤아 참여교수가 현재 주도하고 있음.
 - 2022년 2학기~2023년 1학기 Asia and the World 공개강연회 1회 개최
(2022.09.22.) Wendy Cutler (Vice-President of the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and former Acting Deputy USTR) “Recent Trends in US Trade Policy and Future Challenges to the US-Korea Economic Cooperation”
 - 2022년 2학기~2023년 1학기 Issues and Perspectives 세미나 1회 개최
(2022.10.13.) Michal Balcerzak (Nicolaus Copernicus University 교수) “Contemporary challenges to the universal and European human rights systems - a view from Eastern Europe”

② 참여대학원생 국제공동연구 현황과 계획

1) 국별·지역별 연구 보고서 발간

- (1)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를 통한 교재개발사업
 - 국제개발·지역학 분야의 지식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산업·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본 교

육연구단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

- 현재성 있는 지역·개발연구를 위하여 지역별 1-2개의 개발도상국 혹은 1-2개의 국제개발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Regional Report 또는 Country Case Study Report를 교재개발사업 형태를 통해 발간 중에 있음. 해당 사업은 현재 교내과제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를 통한 교재개발”로 추진 중에 있음. 제3차년도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를 위한 사례집 II (국제개발과 포용적 성장 - 젠더·빈곤·교육 사례연구)’ (참여교수 5인, 신진연구인력 1인, 참여대학원생 10인 집필완료)에 이어 제4차년도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를 위한 사례집 III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에너지·식량안보 사례연구)’ (참여교수 6인, 신진연구인력 2인, 참여대학원생 11인 집필중)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임.
- 각 사례연구별 참여교수 1인과 참여대학원생 1인이 팀을 이뤄 연구를 진행중이며, 연구팀(가나다순) 및 주제는 다음과 같음:
 - 김종섭(참여교수) - 곽지원(참여대학원생) ‘공유지의 비극과 지역공동체의 산림관리 - 중남미 국가의 사례’
 - 김종섭(참여교수) - 반혜원(참여대학원생): ‘빈민가는 환경을 파괴하는가? 브라질 Favela의 사례’
 - 송지연(참여교수) - 황준아(참여대학원생): ‘이해관계자 참여 프레임워크(SEF) 적용을 통한 산림복원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 남미 국가 분석 중심으로’
 - 송지연(참여교수) - 이윤서(참여대학원생): ‘해안 관광이 기후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 촉진에 미치는 영향 - 코스타리카, 과나카스테의 블루 이코노미 전략을 중심으로’
 - 김보경(참여교수) - 이효은(참여대학원생): ‘태평양 도서국의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에 대한 적응정책 재고: 키리바시 공화국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박태균(참여교수) - 한애림(참여대학원생): ‘중국 일대일로와 식량안보 정책’
 - 은기수(참여교수) - 강문현(참여대학원생): ‘기후변화 적응과정으로서의 황사 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중국 내몽골 아라산맹(阿拉善盟)의 사례’
 - 은기수(참여교수) - 안하경(참여대학원생): ‘국제공유하천 다자간 협의체의 기후재난 대응 -2019-2021 메콩 유역 가뭄 대응 방식을 중심으로-’
 - 신성호(참여교수) - 박지수(참여대학원생):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협력’
 - 한정훈(참여교수) - 강나경(참여대학원생):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수립 과정의 주요 쟁점: 유럽의회 수정안을 중심으로’
 - 심예리(신진연구인력) - 김규영(참여대학원생): ‘성인지적 기후행동에 관한 연구: 캐나다와 스웨덴 기후정책의 성 주류화 이행 사례를 중심으로’
- 사례연구 중간 점검을 위해 2023년 8월 7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박지환 참여교수, 윤세미 참여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 연구에 대한 상세토론 및 향후 수정 방향에 대해 자문함.
- 해당 연구는 2023년 8월 조기 종료하여 2023년 말 사례집 시리즈로 발간 예정이며, 향후 국제대학원 개설 교과목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코로나로 인한 해외방문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4차년도부터는 사례연구 수행 시 해당 국가와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병행하는 방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교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임. 이를 통해 해외공동연구 및 대면 국제학술회의를 기획하고 국제화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2) 해외 교환프로그램 제도의 활성화

-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자체협정 교환프로그램(GSIS Outgoing Exchange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파견을 위한 학생모집을 2021년 1학기부터 시행해왔으며, 2022년 2학기, 2023년 1학기 교환학생을 선발·파견함. 현재 2024년 1학기 파견을 위한 신청을 진행중임. 협약대학교는 총 25개이며, 교환프로그램 파트너십 체결 대상국가 및 기관은 다음과 같음:

- 노르웨이: BI Norwegian Business School
- 덴마크: Copenhagen Business School
- 독일: Universität Frankfurt am Main & 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 Münster
- 러시아: Moscow St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MGIMO University)
- 미국: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Texas A&M University
- 벨기에: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KU Leuven)
- 스위스: The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Development Studies (IHEID)
- 스페인: Institut Barcelona d'Estudis Internacionals (IBEI)
-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
- 이탈리아: Bocconi University
- 일본: Chuo University & International University of Japan & Kobe University & Waseda University
- 중국: Yanbian University & Peking University
- 칠레: Universidad Adolfo Ibáñez
- 태국: Chulalongkorn University
- 프랑스: Ecole Supérieure des Sciences Economiques et Commerciales (ESSEC)
- 핀란드: Hanken School of Economics
- 호주: The University of Melbourne
- 홍콩: The University of Hong Kong

3) 해외 외국교수의 공동지도

(1) 캠퍼스아시아 공동 석사학위 프로그램 (CAMPUS Asia Program)

- 캠퍼스아시아 사업(공동·복수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GSIS)에서 최대 1년간 머물며 수학하는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SIS), 일본 동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GraSPP),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리관유 공공정책대학원(LKYSPP) 학생들의 국제공동연구 활동을 장려할 계획임. 이를 위해 BK21 프로그램의 다양한 공동연구, 연구발표 및 학술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
-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 컨소시엄 대학 교수진·학생 간 유대 강화의 목적과 함께 4개 대학원의 교환 프로그램, 복수학위제도 운영을 통해 BK21 참여대학원생들이 해외교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으며, 파견을 희망하는 참여대학원생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함.
- 국제대학원 캠퍼스 아시아프로그램은 2020년 캠퍼스아시아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된 이후 참여 대학 간 활발하게 학술적, 인적 교류를 수행 중임.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동경대, 북경대 초청학생들이 전원 입국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수업을 수강하였음. 2021년 2학기부터 2022년 1학기 기간동안 학생 파견 계획을 이행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하고 있음.
 - 2022년 2학기 서울대 → 동경대 파견인원: 3명, 서울대 → 북경대 파견인원: 3명
(참고) 동경대 → 서울대 초청인원: 7명, 북경대 → 서울대 초청인원: 3명, 싱가포르국립대 → 서울대 초청인원: 1명
 - 2023년 1학기 서울대 → 동경대 파견인원: 6명, 서울대 → 북경대 파견인원: 1명
(참고) 동경대 → 서울대 초청인원: 3명, 북경대 → 서울대 초청인원: 4명

(2) 해외대학과의 공동강의 및 공동연구

- 독일 자유베를린대학과 2022년 2학기 공동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수강생 중 BK참여학생과 겨울방학 중 현지답사를 수행함. 또한 교환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한국학과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태국 출라롱콘대학과 중국 연변대학교 융합대학원 한국학과와도 논의가 진행중임.
- 향후 공동강의가 정례화될 경우 공동강의를 기반으로 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교환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상호 파견하며 공동연구의 틀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4) 국제대학원 내 다양한 연구센터 현황 및 활용 계획

- 2004년 국제대학원 산하 연구소로 설립된 이래 국제학연구소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학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국제통상, 국제협력, 국제지역학, 한국학 관련 연구수행 및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술지, 연구총서, 동향보고서 및 working paper 등의 출판물을 발행하며, 국제학술회의 및 워크숍 개최를 더불어 국제 및 지역정보의 수집·정리·교류를 지원해 왔음.
- 국제학연구소(소장: 신성호 참여교수)에는 현재 EU연구센터(센터장: 한정훈 참여교수),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센터장: 은기수 참여교수), 국제협력연구센터(센터장: 김태균 참여교수), 미주연구센터(센터장: 김종섭 참여교수), 중국연구센터(센터장: 정중호 참여교수), 한국학연구센터(센터장: 박태균 참여교수, 교육연구단장) 등, BK21 참여교수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개발·지역학 관련 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국제개발 및 지역학의 다양한 연구센터를 활용하여 해외기관과의 학생과교·공동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임.
- 베트남 내 ODA 총괄부서인 개발기획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소속 개발전략연구소(Vietnamese Institute for Development Strategy)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학생을 단기간 보내는 방식으로 한국의 개발 경험 등의 주제와 관련해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2022년 여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해외학자 방문 및 대면강의에 여러 제약이 있었으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향후 참여대학원생을 파견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창구를 마련하여 대학원생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III

연구역량 영역

□ 연구역량 대표 우수성과

○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논문·저서 실적 (2022년 9월 ~ 2023년 8월):

- 2022년 9월 ~ 2023년 8월 기간 동안 동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13인의 논문·저서 실적은 다음과 같음:
 - 국제저명(SSCI급) 논문 총 8건, 연구재단등재지(KCI급) 논문 총 15건, 저서 총 16건, 기타논문 1건
- 연구대표실적 1: 김종섭 교수는 연구재단등재지(KCI) 학술지 국제개발협력연구에 “Budget support and governance in foreign aid: Evidence from a panel Granger causality test” 를 게재하였음. 본 연구는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예산지원을 유치하는 조건인지 아니면 예산지원이 거버넌스를 촉진하여 원조의 성과로 나타나는 것인지 두 변수 간 인과 관계의 방향성을 분석하였음. 기존 문헌이 예산지원과 거버넌스의 관계를 원조 선택성과 효과성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본 연구는 예산 지원과 거버넌스 사이의 인과성에 초점을 맞추었음. 패널 그랜저 인과성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예산 지원과 거버넌스는 상호간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며, 이에 더해 그 방향성은 수원국이 속한 소득 그룹과 세부 거버넌스 지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음을 밝힘.
- 연구대표실적 2: 김태균 교수는 단독 저서인 “반동 이후: 글로벌 사우스의 국제정치사회학(진인진 출판사)” 을 저술하였음. 본 저서는 글로벌 사우스와 제3세계론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국제정치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고유의 시각으로 분석한 연구서임. 특히 저자는 제3세계에 대한 기존의 제한된 인식을 전방위로 확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부응하여 ‘거꾸로 읽는 국제개발’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했음. 연구 작업의 중요한 역사적 계기로 1955년 개최된 반동회의를 설정하고 국제정치사회학적 상상력을 접근 방법론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함. 이러한 대안적 상상력을 통해 19세기 이래 두 세

기 남짓한 기존의 강대국 국제질서에 도전해 온 글로벌 사우스의 역사를 관통하는 변증법적 공통분모로 ‘대항적 공존’ 개념을 도출하였음.

- 연구대표실적 3: 오윤아 교수는 국제저명학술지(SSCI) Pacific Review에 “Assessing Myanmar’s trade dependence on China during the reform period of the 2010s: a sectoral value chain approach”를 게재하였음. 본 논문은 2010년대 개혁시기 미얀마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산업별 가치사슬을 통해 분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 미얀마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지난 십여년 동안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서방 국가들의 제재 완화로 다소 완화되고 있음. 그러나 동시에,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국제적 가치사슬로 인해 천연가스, 채소, 의류 등의 분야에서 대(對)중 수입량이 증가함으로써 전반적인 미얀마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밝혔음.

○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연구비 수주실적**

- 동 교육연구단은 “국가전략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학과 국제개발을 선도하는 다학제적 학문후속세대와 전문 혁신인력 양성”이라는 비전에 따라 지역학과 국제개발의 융복합적 접근에 따른 교육과 다학제적 연구의 선순환을 추구하며 연구를 진행해 왔음. 참여교수들이 진행하고 있는 30건의 교육 및 연구사업 중 대표실적은 다음과 같음:
 - 연구비 수주 대표실적 1: 대학원 전공 설계 마련을 위한 교과과정 개편연구 (70,000,000원) -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전공 설계할 수 있도록 모듈 개발 및 교육과정 개편 계획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 융합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융합 전공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위명을 개편하고 학칙상 전공을 교과목상 전공으로 바꾸기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였음. 아울러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공 교수가 부족한 지역 전공의 교수 초청 등을 추진하였음. 학생들이 개별 전공의 경계를 넘어 보다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을 경험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설계 도입은 지속가능개발을 주축하는 개발협력·지역 전문가 양성에 있어 필수적인 과제이며, 본 교육연구단이 추구하는 비전과도 같음.
 - 연구비 수주 대표실적 2: 지속가능성과 국제개발: 스페셜티 커피 시장 사례연구 (50,000,000원) - 대부분의 커피 생산자는 개발도상국에서 저임금을 받고 일하지만, 그렇게 생산된 커피로 여유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소비는 거의 선진국임. 즉, 커피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남북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작물임. 이러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테라로사(한국)나 블루보틀(미국)과 같은 브랜드들은 직접 무역의 형태를 추구하고 있음. 본 연구는 BK21 학생들과 함께 이러한 노력 중 하나인 스페셜티 커피 대회(Cup of Excellence)가 어떤 방식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매개하고 있는지 분석함. 이 기회를 통해 참여학생들이 글로벌 공급망과 남북문제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현재의 개발협력 방향성을 고려해 볼 때 중요한 사례연구가 될 것임.
 - 연구비 수주 대표실적 3: EDCF를 통한 임팩트 투자 및 부가성 측정방안 (34,090,909원) -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의 개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공적 재원의 한계가 지적되며 민간 재원의 투자를 포함하는 형태인 혼합 금융 자원 추진이 제안됨. 최근 주요 공여국, 다자개발은행(MDB) 및 개발금융기관(DFI)은 임팩트 투자를 개발 재원의 새로운 활용수단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EDCF를 통한 사업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며 임팩트 투자 시장에 대한 로드맵이 부재함. 이에 본 연구는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국내 EDCF를 통한 임팩트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기존 지원수단을 통한 투자와 신규방식 투자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MDB, DFI와의 협력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기여 측면에서의 임팩트 투자 필요성을 평가함.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영국 BII 등 주요 공여국에서 사용되는 성과측정모델을 참고하여 EDCF 임팩트 투자시 적용 가능한 재무 및 가치 부가성 측정 모델을

개발 및 제안함.

- 연구비 수주 대표실적 4: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제4차) 심의대비 연구 (27,272,727원) - 국내 민주주의의 성숙, 경제 발달과 같은 내부적 변화를 통한 국력의 성장은 한국의 국제적 지위 및 명성의 향상으로 이어졌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증대됨. 특히 2005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등장과 함께 유엔 인권 메커니즘 상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는 2008년부터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심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주요한 척도가 되어왔음. 본 연구는 2023년 1월 예정된 제4차 UPR 심의를 대비하여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이행, 국내법/제도의 변화, 자유권, 사회권, 여성·아동·장애인·이주민과 난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부문 쟁점을 도출, 예상질의를 선별해 사전에 관계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본 연구에는 BK학생들이 조교로 참여하여 관심 분야인 인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추세 및 국내적 관심 쟁점을 파악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됨.
- 이 밖에 개발-지역 매트릭스 상에 다양한 교차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참여대학원생 연구와 교육의 기회로 활용되어 다학제적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개발과 지역학 지식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1. 참여교수 연구역량

1.1 국내 및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실적

〈표 3-1-1〉 최근 1년간(2022.9.1~2023.8.31.) 인문사회계열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항 목	수주액(천원)		
	3년간(2017.1.1.~2019.12.31.) 실적 (선정평가 보고서 작성내용)	최근 1년간(2022.9.1.~2023.8.31.) 실적	비고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입금액			
총 연구비 수주액			BK제외
인문사회계열 참여교수 수	13	18	

1.2 연구업적물

① 참여교수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실적기간: 2022년 9월 ~ 2023년 8월)

(1) 박태균 교수: 학술논문 1건, 저서 2건, 기타 1건

번호	논문제목	유형	계재정보			단독/공동	본인참여 형태	DOI	URL
			계재학술지명/ 발행기관	년	월				
1	한국의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 도입의 역사와 현황	연구재 단등재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2023	6	공동(2인)	교신	10.56115/ RIAS.2023.	

		지(KCI)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06.32.2.17 1	
한국의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아네스트의 분류 유형 및 MIPEX 점수 분석을 통해 국내 민주주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외국인 관련 정책은 이주의 흐름에 따라 조금 더 장기적이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수립 또는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국내 민주주의 수준 향상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2	[미국의 베트남 종전선언 50주년] 베트남 전쟁의 교훈: 오산과 오관, 그리고 그 현재적 의미	기타	지식의 지평 /대우재단	2023	5	단독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11407647&googleIPSearchBox=false&mark=0&ipRange=false&access=Y&language=ko_KR&hasTopBanner=true
베트남 전쟁을 통해 얻은 교훈이 현재와 미래의 정치, 군사 결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역사적 사례를 통해 배우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베트남 전쟁에서 참전국들이 동아시아와 베트남 지역학에 대한 깊이 없이 참전했다가 결국 문제가 되었던 점을 지적했음. 이를 통해 현재 한국의 지역학의 열악함을 지적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학을 지원하고 진흥해야 함을 역설함. 이를 통해 미래 한국의 지속적인 안정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저서제목	단독/공동	외국어/ 한국어	게재정보			ISBN
			출판사명	년	월	
대륙과 메가아시아	챕터(단독)	한국어	진인진	2023	4	9788963475424
1 아시아라는 단위로 수많은 국가들이 함께 하고 있지만, 이들 사이에 공통의 정체성을 찾기는 쉽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서로 간의 연결성 속에서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경험들이 시기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갖지만, 이 책에서는 대륙으로 연결되는 아시아가 큰 메가아시아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가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했음.						
동아시아와의 대화	챕터(단독)	한국어/영 어/일본어	화서원	2023	3	978-4-86561-291-2
2 큐슈대학의 한국연구센터에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했던 교수들이 필자로 참여하여 동아시아의 다양한 상황과 한국학, 일본학, 한일관계사에 대한 글을 서술하였음. 이 책에서는 한국인, 일본인 학자뿐만 아니라 조선족 학자들도 참여하여 동아시아의 다양한 정체성과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2) 김종섭 교수: 학술논문 7건

번호	논문제목	유형	게재정보			단독/공동	본인참여 형태	DOI	URL
			게재학술지명/ 발행기관	년	월				
1	브라질 파벨라의 환경개선 노력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향 모색	연구제 단등재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2023	8	공동(2인)	교신		

		지(KCD)							
	<p>본 논문은 노르만 룡의 행위자 중심 접근법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파벨라에서는 환경오염을 통제하지 못한 데 비해 Rocinha 파벨라가 환경보전에 성공한 원인을 분석하였음.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일반적인 파벨라가 자치기구, 정부, 범죄조직 간의 갈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환경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임. 특히 복잡한 지배구조는 파벨라의 치안을 극도로 불안하게 하여 외부 기관의 지원도 가능하지 않게 한다는 것임. 그러나 Rocinha의 경우 지배구조가 다른 파벨라보다는 안정적이었고 정부에서 설치한 평화유지경찰대(UPP)가 주민들의 협조로 잘 작동하면서 치안이 안정되고 이로 인해 외부기관의 지원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정책도 가능해졌다는 것임.</p>								
2	Gender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Marital Status and Type on Life Satisfaction and Self-Rated Health in Tanzania	연구재단 단등재 지(KCD)	한국아프리카 학회지	2023	8	공동(2인)	교신		
	<p>본 연구는 탄자니아의 젠더에 따른 결혼 여부 및 유형이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데이터를 갖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그 결과, 기혼남녀 모두 미혼남녀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나타냄. 그러나 건강과 관련하여 기혼 남성은 미혼 남성보다 건강을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기혼 여성은 미혼 여성에 비해 동일한 이점을 나타내지 않음. 결혼 유형과 관련하여 일부다처제 남성은 일부일처제 남성보다 더 높은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타내지만, 일부다처제 여성은 일부일처제 여성에 비해 더 부정적인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며 두 여성 그룹 간에 삶의 만족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p>								
3	환경규제 규제순응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 르완다와 케냐의 비닐봉투 규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재단 단등재 지(KCD)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센터	2023	7	공동(2인)	교신		
	<p>르완다는 2008년 비닐봉투의 생산, 사용, 수입, 판매 등을 전면 금지하는 환경규제를 감행했고, 오늘날 가장 성공적으로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를 시행한 국가로 손꼽힘. 이에 반해 케냐 역시 비슷한 규제를 시행했지만, 오늘날까지 규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본 연구는 두 국가 간 규제 성과 차이의 원인을 규제순응 확보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함. 환경규제는 강압적인 성격을 띠는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규제대상집단인 시민의 의식변화, 즉 시민사회의 협력이 관건임. 강압적인 규제는 통상 정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규제불응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인데, 르완다 정부는 강제적 방식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 간의 상호협력, 목표와 가치의 공유를 이끌어 냈고, 이로부터 불응 요인을 제거했다고 볼 수 있음. 반면, 케냐의 경우 이러한 시민의식의 변화 유도에 상대적으로 실패한 결과 규제순응 확보에 실패했음. 결과적으로 르완다 사례를 통해 환경규제 규제순응 확보에서의 시민의식 변화가 중요함을 밝혀냈으며, 강제적 방식일지라도 정부의 주도적 역할로 대상집단이 이해관계 동질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규제순응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이로부터 효과적인 환경규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p>								
4	Community Participation in Nonformal Education Systems in Senegal and Tanzania: A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Social Capital Theory	연구재단 단등재 지(KCD)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3	6	공동(2인)	교신	10.23071/jias.2023.30 .1.107	
	<p>본 논문에서는 역사적인 배경이 다른 두 개 국가에서 비정규 교육의 역할을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지역 사회 학교 시스템과 NGO 주도 프로젝트는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소유권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자본의 생성과 긍정적 활용을 촉진함. 그러나 종교</p>								

<p>기본 단체의 특정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구 부재와 구식 관행 준수로 인해 그들의 기여는 진전 부족과 기본 인권 침해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음.</p>								
5	Budget Support and Governance in Foreign Aid: Evidence from a Panel Granger Causality Test	연구재단등재지(KCI)	국제개발협력연구/국제개발협력학회	2023	6	공동(2인)	교신	10.32580/idcr.2023.15.279
<p>본 연구는 굿거버넌스가 예산지원을 유치하는 조건인 것인지 아니면 예산지원이 굿거버넌스를 촉진하여 원조의 성과로 나타나는 것인지 두 변수 간 인과 관계의 방향성을 분석함. 기존 문헌은 예산지원과 거버넌스의 관계를 원조 선택성과 효과성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본 연구는 예산지원과 거버넌스 사이의 인과적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어 두 학문 간의 연결고리를 제시하였음. 패널 그랜저 인과성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예산지원과 거버넌스 간 양방향의 인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거버넌스가 예산지원을 유치하는 조건인 동시에 예산지원의 결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인과 관계의 존재와 그 방향성은 수원국이 속한 소득 그룹과 세부 거버넌스 지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음.</p>								
6	Can the Law Pull the Custom? - A Gender Case Study on Rwanda and Nicaragua	연구재단등재지(KCI)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23	4	공동(2인)	교신	10.22945/ajlas.2023.36.1.35
<p>르완다와 니카라과는 성평등의 측면에서 매우 특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각각 정치사회학적인 방법론으로 분석된 경우가 많았음. 본 논문은 경제학 방법론으로 두 가지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러한 점에서 매우 우수한 논문으로 판단됨. 두 나라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법적 제도와 규범의 간극이 그 이유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적 성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와 실제 규범이 적절한 수준에서 균형을 이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여성들의 적극적 사회운동 참여가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p>								
7	S자 다중 균형 모형 적용을 통한 조혼에 관한 양적 연구 - 지역별 (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재단등재지(KCI)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23	2	공동(2인)	교신	10.17855/jlas.2023.2.42.11
<p>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조혼은 여전히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그 원인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본 연구는 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세 지역에서 대표적인 나라(방글라데시, 니제르, 온두라스)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 조혼의 근본 원인을 분석함. 특히, 조혼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다중균형을 설명하는 S자 모형에 적용하는 양적 연구를 진행함. 연구는 총 4가지 사회 요인인 미온적 정부 태도, 효과적이지 않은 법, 성차별적 문화 규범, 그리고 높은 공동체적 응집성이 조혼을 강화해 온 공통 요인임을 도출함. 특히, 적극적인 정부 태도와 전통적 문화 규범의 해소가 조혼에 대한 기대치와 실제치를 낮추는 데 더욱 효과적임을 밝혀냄. 세 지역의 양적 비교 연구를 통해 저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에 공동체 단위의 접근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을 그 시사점으로 제시함.</p>								

(3) 김태균 교수: 학술논문 2건, 저서 6건

번호	논문제목	유형	게재정보			단독/공동	본인참여 형태	DOI	URL
			게재학술지명/발행기관	년	월				

1	Relating History Education with National Identities on Modern State-Building: Korean and Chinese History Textbooks in Comparative Perspectives	연구재단등재지(KCI)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2022	12	공동(2인)	공동	10.23071/jias.2022.29.21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외세의 침략을 받은 아시아의 두 국가, 즉 한국과 중국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국가 정체성과 발전주의의 해석을 어떻게 다르게 기술하고 교육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교연구로 한국과 중국 간의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발전 전략이 국가정체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연구논문임.							
2	인도-태평양 시대의 개발-평화 넥서스: 역사적 진화와 포괄적 전략화	연구재단등재지(KCI)	국제정치연구	2022	12	단독	제1저자, 교신저자	DOI : 10.15235/jir.2022.12.25.4.131
	미중 전략경쟁 속에 인태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일본, 미국, 호주, 인도 등이 인태시대의 안보전략에 개발과 평화를 연계하는 프레임을 적극 수용하고 있음. 이러한 개발-평화의 넥서스는 단순히 작금의 인태시대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과거 냉전시대부터 현재까지 진화되어 온 포괄적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 현재 인태시대의 개발-평화 넥서스를 이해할 수 있음.							

저서제목	단독/공동 예) 공저(2인) 챕터(단독)	외국어/ 한국어	게재정보			ISBN
			출판사명	년	월	
The United Nations, Indo-Pacific and Korean Peninsula: An Emerging Security Architecture	챕터(2인)	영어	Routledge	2023	8	9781032460680
1	최근 국제관계의 무게중심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집중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시대에 한반도와 관련된 안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서임. 이 주제 하에 “Does Humanitarian Aid Save Civilian Lives in War? The Case of UN Aid in Myanmar’s Civil War” 라는 챕터를 집필하였으며, 인도적 지원이 미얀마 사례에서 민간인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시도했음. 또한 미얀마 사례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후 북한과 한반도에 유엔의 인도적 원조가 투입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해석을 유추했음.					
한국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챕터(단독)	한국어	명인문화사	2023	7	9791161930695
2	한국의 국제개발외교는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된 2010년 이후 세간의 주목을 받아 본격화된 새로운 외교정책 분야라 평가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는 한국을 해외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중견국으로 인지하고 있고 이에 걸맞은 역할을 한국이 맡아주기를 희망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한국도 국제개발외교를 글로벌 수준의 개발규범과 원칙, 로컬 수준의 파트너 국가와 협력, 그리고 한국의 국익을 국제사회에 투영할 수 있는 규범적 플랫폼으로서 개발협력 의제를 이행하고 선점할 필요가 있음. 본 챕터는 국제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국익과 글로벌 규범 간의 균형적 접근을 도모하며, 동시에 한국의 중견국적 위치를 전략화하여 글로벌 남반구와 북반구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다차원적인 가치외교가 실현될 수 있는 국제개발외교를 모색했음.					
반동 이후: 글로벌 사우스의 국제정치사회학	단독	한국어	진인진	2023	7	9788963475639
3	글로벌 사우스와 제3세계론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국제정치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고유 시각으로 분석한 연구서임. 한국의 제3세계 연구는 80년대 중반 이후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을 대상으로 본격화되었으나, 베를린 장벽 붕괴와 소련 해체로 미국 중심의 1국 체제가 성립된 이후 그 명맥이 끊어진 바 있으며, IMF 위기 이					

	<p>후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편입하여 착실하게 성장한 한국은 2010년 OECD DAC 가입 이후 그 지위가 개발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제3세계 혹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한국 고유의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본 단행본은 제3세계에 대한 기존의 제한된 인식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야 하는 국면에 걸맞은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거꾸로 읽는 국제개발’ 프레임을 제안하며, 그 연구 작업의 중요한 역사적 계기로 1955년 개최된 반동회의를 설정하며 그 접근 방법론으로 ‘국제정치사회학적 상상력’을 적용함. 이러한 대안적 상상력을 통해 19세기 이래 2세기 남짓 기존 강대국의 국제질서에 도전해 온 글로벌 사우스의 역사를 관통하는 변증법적 공통분모로 ‘대항적 공존’ 개념을 제시했음.</p>						
	The ‘Easternization’ of Development? The Politics of East Asia’s Developmentalist Cooperation	챕터(2인)	영어	Practical Action Publishing	2023	5	9781788532280
4	<p>글로벌 맥락에서 동아시아의 발전국가 전략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진단하기 위하여 한국, 일본, 중국의 개발정책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진화해 왔는가를 비교분석하는 전문서임. 이 중 한국의 발전국가론이 2010년 이후 공적개발원조(ODA)의 도입과 이행과정에 개발우선주의를 어떻게 배태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한국의 ODA 정책 성격이 다분히 발전국가론의 특징을 공유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해석을 강조하고 있음. ODA 이행의 분절화, 기재부 영향력의 강화, 경제성장 위주의 유상원조 강화 등의 한국 ODA 특징을 역사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ODA-발전국가론 간의 유사성을 증명했음.</p>						
	누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인가? 유엔 지속가능발전의 비판적 성찰	공편(2인)	한국어	인간사랑	2023	2	9788974184377
5	<p>본 단행본은 2015년 출범한 인류공동의 목표인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비판 없는 맹신과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인가에 대한 성찰적 사고와 분석을 시도한 전문서임. 특히, SDGs 이행을 위한 충분한 자원 확보 없이 시작된 SDGs 체제가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의 입장이 아닌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섹터에서 분석을 시도하고, 차후 2030년까지 진행될 SDGs 체제에 보완이 필요한 정책 제언까지 도출했음.</p>						
	평화학이란 무엇인가? 계보와 쟁점	챕터(단독)	한국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12	9788952131706
6	<p>군사적 갈등과 전쟁의 종식을 넘어 평화학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평화학의 발전과 복합화 과정을 추적하고 전쟁 방지와 안보 실현 방안을 살펴봄과 기후위기와 국제개발 등 오늘날의 주요 쟁점을 논하는 평화학 입문서이다. 평화학이란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 즉 전쟁과 폭력,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질병, 기후변화, 구조적 억압과 차별, 착취 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적·다학제적 성격의 학문으로서, 본 단행본 중 제9장(국제개발과 평화구축: 평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집필하여 평화구축을 위한 통합적 접근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제공하는 발전적 기여에 대한 분석 및 주요 쟁점을 짚었음.</p>						

(4) 박지환 교수: 학술논문 1 건, 저서 1 건

번호	논문제목	유형	게재정보			단독/공동	본인참여 형태	DOI	URL
			게재학술지명/ 발행기관	년	월				
1	일본 지방청년의 진로 선택 시 성별에 따른 지역 간 이동의 차이	연구재단등재지(KCI)	일본비평/서울대 일본연구소	2023	8	단독	주저자	https://doi.org/10.29154/ILBI.2023.29.238	
	<p>이 논문은 대졸 지방청년들 사이에서 진로 선택의 이유 및 출신지역과 관계 맺는 방식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함. 여성이 남성보다 본인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하는 추세가 나타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리적 이동의 패턴이 발생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음. 이 연구에서는 규슈 지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20대 청년 남녀 20명과 2021~2022년에 온라인 인터뷰한 결과료를 토대로, 진학, 취직, 유턴의 시점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의 차이를 분석했음. 지방권의 청년여성들은 대학에 진학</p>								

하거나 첫 직장을 구할 때, 개인의 관심사나 능력만큼이나 가족관계를 중시하고 부모의 의견에 따라 출신지역에 남으려는 경향을 나타냈음. 또한, 결혼이나 출산이라는 사적인 일을 계기로 출신지역에 돌아오길 희망함. 반면, 지방권의 청년남성은 대학이나 회사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개인적인 관심과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임. 그리고 대도시에서 경력을 쌓아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지방에 돌아오거나, 축제와 같은 지역사회의 공적인 장에 이에(家)의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등 넓은 의미에서 공적인 영역—일터와 지역공동체—에 관여함으로써 출신지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음. 이로써, 이 연구는 지방청년 남녀에 대한 상이한 기대나 가치관을 재생산하여 대졸 청년여성을 지방에 긴박(緊縛)하는 문화적인 힘이 작동하며, 그 결과 성별화된(gendered) 로컬 트랙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함.

저서제목	단독/공동 예) 공저(2인) 챕터(단독)	외국어/ 한국어	게재정보			ISBN
			출판사명	년	월	
1 Continuity and Change in Asia(“The Emergence of an Alternative Public Space in Contemporary Japan: The (Trans)formation of Civic Movements in a Working-class District in Osaka”)	챕터(단독)	영어	Palacky University Olomouc	2023	8	
<p>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일본 도시 하층 지역에서 이뤄진 사회운동의 전개 과정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현대 일본의 구조적 변동을 파악했음. 오사카시 가마가사키에서는 경기 변동으로 노숙인을 사회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운동이 다방면으로 이뤄졌음. 이 글에서는 이 지역에서 실시된 공공근로사업, 마을 만들기, 예술문화 활동, 고령자 복지 프로그램 등을 사례로, 현대 일본에서 등장하고 있는 자립과 공공성의 새로운 양태를 포착함. 이 연구는 도시공간에 대한 민족지적(ethnographic) 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며, 동시에 공공성 개념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요함.</p>						

(5) 송지연 교수: 학술논문 2 건

번호	논문제목	유형	게재정보			단독/공동	본인참여 형태	DOI	URL
			게재학술지명/ 발행기관	년	월				
1	Reinforcement of Labor Market Dualism and Inequality in South Korea	연구재단 단등재 지(KCI)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2023	6	단독	저자	10.23071/jias.2023.30.1.129	
<p>본 논문은 한국이 현재 당면한 가장 시급한 사회경제 문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살펴보고 있음.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20여 년 동안 주요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시스템 발전 시기에 국가의 과도한 개입의 유산과 기업노동주의로 대표되는 노동조합의 조직적 특성으로 설명하고 있음.</p>									
2	E-2020 아프리카 사례를 중심으로 본 국경 말라리아 차단요청	연구재단 단등재 지(KCI)	국제·지역연구	2023	6	공동(2인)	교신저자	10.56115/RIAS.2023.06.32.2.141	
<p>본 논문에서는 말라리아 퇴치 관련 치료 및 기술 발전과 청정국의 증가에도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여전히 말라리아 박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음. 기존 연구 대부분은 아프리카의 기후 환경적 특성과 불안정한 사회경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전염병의 확산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인 높은 국가 간 밀집</p>									

도를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음.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한 국경 유입 말라리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효과적인 말라리아 박멸 방안을 모색하고 유용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음.

(6) 신성호 교수: 저서 1 건

저서제목	단독/공동 예) 공저(2인) 챕터(단독)	외국어/ 한국어	게재정보			ISBN
			출판사명	년	월	
1 세계질서 변화와 주요국의 대전략: 미래질서 전망과 한국 중장기 외교전략에의 합의	챕터(단독)	한국어	국회미래연구원	2022년	12	9791198206503
국회미래연구원의 차정미 박사가 주관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미국의 대외전략을 맡아 21세기 미국이 당면한 도전과 이것이 가지는 국제질서와 미중경쟁에의 합의, 그리고 미국의 대전략을 분석하고 이것이 한반도, 한미와 한중관계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한국에 가지는 외교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음.						

(7) 오윤아 교수: 학술논문 4 건, 저서 1 건

번호	논문제목	유형	게재정보			단독/공동	본인참여 형태	DOI	URL
			게재학술지명/ 발행기관	년	월				
1	Types of Geoeconomic Power and Competition over Myanmar Before and During the Reform Era of the 2010s	국제저명(SSCI)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23	5	단독		10.1177/00219096231171538	
2010년대 미얀마는 군사정부를 거치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영향력이 거세지던 시기임.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미얀마에 대한 강대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기존의 지정학적 거리 분석에서 더 나아가 탈영토적인 금융규제 및 국경선 부근의 권력관계 등을 통한 국가 간 경제적 관계의 유형 분류)을 제시하고,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통계자료를 통해 그 증거를 제시하고자 했음.									
2	The Philippines in 2022: The Power of Dynastic Politics	국제저명(SSCI)	Asian Survey	23	4	단독		10.1525/as.2023.63.2.301	
본 연구는 2022년 필리핀의 정치, 경제, 외교관계를 검토하고 평가하고 있음. 지난해 전 독재자의 아들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가 대통령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필리핀은 또 한 번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음. 이러한 국내 정치의 정체 및 후퇴는 기존의 미국과 중국의 긴장 상태에 또 다른 변수가 되었음. 또한 COVID-19로부터 회복하면서 국경을 다시 개방했지만, 국제적 상황(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전 세계적 물가 상승 등)과 맞물려 전에 없던 식량난을 겪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3	Change or Continuity? Seoul's Approach to Southeast Asia under the New Southern Policy	국제저명(SSCI)	Korea Observer	23	3	단독	10.29152/ KOIKS.202 3.54.1.103
	2019년 발표된 신남방정책이 한국의 동남아정책 측면에서 이전과 보이는 지속성과 변화를 가정-자원 체계를 통해 분석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음. 기존의 연구는 남한의 외교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라는 외적인 접근법을 차용했으나,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를 중심으로 보다 내적인 동인에 초점을 맞추었음.						
4	Assessing Myanmar's Trade Dependence on China During the Reform Period of the 2010s: A Sectoral Value Chain Approach	국제저명(SSCI)	Pacific Review	22	12	단독	10.1080/09 512748.20 22.216079 7
	본 논문은 2010년대 개혁시기 미얀마의 중국에 대한 경제분야 의존을 산업별 가치사슬을 통해 분석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미얀마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지난 십여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서방국가들의 제재완화로 다소 완화되고 있음. 그러나 동시에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국제 가치사슬로 인해 천연가스, 채소, 의류 등 분야에서 대(對)중 수입량이 증가함으로써 전반적인 미얀마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저서제목	단독/공동 예) 공저(2인) 챕터(단독)	외국어/ 한국어	게재정보			ISBN
			출판사명	년	월	
1 Vietnam's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Understanding Vulnerability through a Typology of Trade Shocks (In The Dragon's Underbelly: Dynamics and Dilemmas in Vietnam's Economy and Politics)	16	영어	ISEAS - Yusof Ishak Institute	2023	1	9789815011395
베트남의 정치, 경제, 외교관계에 대해 16인의 국제 연구자들이 공저한 단행본에 한 Chapter를 저술한 것으로 베트남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무역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중심으로 유형화하고 그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						

(8) 은기수 교수: 학술논문 1 건

번호	논문제목	유형	게재정보			단독/공동	본인참여 형태	DOI	URL
			게재학술지명/ 발행기관	년	월				
1	코로나19 시기 재택근무가 남녀 취업자의 일-가족 양립에 미친 영향	연구재 단등재 지(KCI)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회	2022	09	공동(3인)	공동	10.31693/ KJPS.2022 .09.45.3.2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재택근무가 어린 자녀를 둔 남성과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했음. 이를 위해 2021년 전국 만 0-12세 자녀를 둔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아동돌봄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설문 응답자 중 기혼 맞벌이 가구 응답자만 추출하여, 재택근무 여부, 재택근무 기간, 주돌봄자 여부, 자녀의 연령, 가구 경제 상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재택근무가 일-가족 갈등 완화에 기여했는지, 그리고 재택근무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가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는지 분석하였음. 연구 결과, 남성의 경우 재택근무와 일-가족 양립 간 긍정적인 관계가 발견되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이는 향후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형태가 일-가족 양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근무형태 자체뿐 아니라 돌봄 부담과 기대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함.

(9) 이수형 교수: 학술논문 2건, 저서 2건

번호	논문제목	유형	게재정보			단독/공동	본인참여 형태	DOI	URL
			게재학술지명/ 발행기관	년	월				
1	Cayman Over China: Trends and Accounting Factors of South Kore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국제저명(SC OPUS)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한국국제경제학회	2023	7	공동(2인)	교신	10.1080/10168737.2023.2239205	https://www.tandfonline.com/doi/abs/10.1080/10168737.2023.2239205?journalCode=riej20
<p>해당 논문은 2001년부터 2021년까지의 대한민국의 해외 직접투자의 최근 동향을 조사했으며, 총액과 투자국 구성에서 상당한 변화를 확인했음. 중국 투자유치는 한중 정치 관계 악화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감소하였으며, 미국 투자는 지속적인 증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대의 직접투자 대상국인 것으로 나타남. 케이먼 제도를 포함한 조세 피난처에 대한 투자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고, 세금 탈루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해당 논문은 2023년 7월 한국국제경제학회의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에 발표되었음.</p>									
2	Sejong's Effects on People's Health: Consequences of a Long Commute	국제저명(SSCI)	ASIAN ECONOMIC PAPERS/ MIT PRESS	2023	6	공동(2인)	교신	10.1162/asiep_a_00863	https://direct.mit.edu/asep/article/22/2/116166/Sejong-s-Effects-on-People-s-Health-Consequences
<p>해당 논문은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활용하여 장거리 통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음. 이 정책의 영향으로 수도권에 고용인구 대부분이 소도시로 거주지를 이전했으나, 일부 공무원들은 수도권에 계속 거주하며 먼 거리를 통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해당 논문은 2SLS 모델을 이용하여 장거리 통근이 의료 서비스 사용량을 상당히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했음. 특히 호흡기, 순환기 및 내분비 및 대사 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현저히 많았음. 이 외에도 콜레스테롤, 신체 BMI 지수 등 건강 관련 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했는데, 장거리 통근이 건강검진과 신체활동의 증가 등 건강에 복합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해당 논문은 2023년 6월 MIT PRESS의 『ASIAN ECONOMIC PAPERS』에 발표되었음.</p>									

저서제목	단독/공동	외국어/ 한국어	게재정보			ISBN
			출판사명	년	월	
1 대한민국의 학부모님께 : 자녀의 미래를 위해 부모 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단독	O	김영사	2023	8	9788934982463
해당 저서는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미래의 일자리, 데이터 연구 경험, 그리고 공부 경험을 집약하여 저술한 자녀 교육 실천 지침서임. 입시 경쟁, 사교육비 증가, 의대 지망자 포화 현상 등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치열한 교육 환경에서 학부모가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자녀를 이끌어 주기를 바라며 저술했음. 영어유치원, 국영수 공부, 목적의식의 필요성 등 현실적인 교육 문제를 짚어냄으로써 복잡다변한 교육 현장에서 각종 입시 정보의 바다에서 헤매는 학부모들에게 저자만의 해법을 전달하고 있음. 본 저서는 2023년 8월 김영사를 통해 출판됐었음.						
2 Online and Matching-Based Market Design	공저	영어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5	9781108831994
해당 저서는 매칭 기반 시장 설계 분야에 관한 것으로, 경제와 사회학적 영향을 가진 응용 사례들을 중심으로 다루었음. 50명 이상의 최고 연구자들이 기고한 이 책은 시장 설계의 가장 중요한 결과에 대한 컴퓨터 과학과 경제학의 주요 아이디어를 설명하며, 주요 알고리즘 질문과 조합 구조를 소개하고 있음. 인터넷 이전 및 이후 시대의 방법론과 응용 사례가 상세하게 다루어져 있으며, 주요 장들은 효율성, 공정성 및 인센티브의 기본 개념과 시장 설계가 사회 선택 이론에서 가져온 규범적 기준에 따라 솔루션을 찾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음. 해당 저서는 Cambridge University Press를 통해 2023년 5월 출판되었음.						

(10) 정종호 교수: 학술논문 1 건, 저서 1 건

번호	논문제목	유형	게재정보			단독/공동	본인참여 형태	DOI	URL
			게재학술지명/ 발행기관	년	월				
1	한중관계와 사회문화 교류: 인적 이동과 문화콘텐츠의 확산 을 중심으로	연구재 단등재 지(KCI)	국제지역연구/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2	9	단독		10.56115/RI AS.2022.09. 31.3.1	https://pu blication.g sis.snu.ac. kr/?p=751 1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30년 동안 한중관계는 국제관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왔음. 특히 인적교류, 문화교류, 학술교류 등 수교 이전 철저히 단절되었던 사회문화 분야의 활발한 교류는 한중 양국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음. 그러나 2016년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시작되면서 한·중 관계는 최악의 관계로 급변하였고, 사실상의 한한령(限韓令)과 함께 일련의 보복 조치가 취해지면서 사회문화 교류에 있어서도 양국의 상호신뢰 또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 이상과 같이 사회문화적 갈등이 한중 양국 국민 사이에 고조되면서,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지금 협력과 상생의 한중관계보다 갈등과 대립의 한중관계가 주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인적교류와 문화콘텐츠 교류를 중심으로 지난 30년의 한중 사회문화 교류를 회고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영역과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									

저서제목	단독/공동	외국어/ 한국어	게재정보			ISBN
			출판사명	년	월	
한중 수교 30년, 평가와 전망	책임편집 및 공저(10인)	한국어	21세기북스	2022	12	978-89-509-4288-5
1	<p>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과 중국은 양국 관계의 미래를 결정할 전환점을 직면하고 있음.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따라 양국 관계의 비대칭성이 증가하면서 한중 경제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경쟁적인 관계로 변화하였고, 그동안 한중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담보하여 왔던 탈냉전의 국제질서가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와 함께 신냉전의 질서로 변화하면서 한중 관계의 미중 관계 종속화 및 한미 동맹과 북중 동맹 간 대립의 강화가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양국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상호 부정적 인식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음. 그 결과, ‘협력’ 과 ‘상생’ 보다 ‘갈등’ 과 ‘대립’ 의 한중 관계가 주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인식하에 이 책은 수교 30년을 맞이하여 한중 관계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환점에 선 한중 관계의 미래를 전망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음.</p>					

(11) **한정훈 교수:** 학술논문 2건

번호	논문제목	유형	게재정보			단독/공동	본인참여 형태	DOI	URL
			게재학술지명/ 발행기관	년	월				
1	Who Consumes Political News through YouTube? An Application of the OMA Framework to YouTube Use in South Korea	국제저명(SSCI)	Korea Observer/ Institution of Korean Studies	2022	12	단독		10.29152/ KOIKS.202 2.53.4.601	
1	<p>본 논문은 한국 사회 내 유튜브 정치정보에 대한 소비가 한국 시민들의 정치적 양극화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로, SSCI 저널인 Korea Observer에 게재되었음. 특히 시민들을 유튜브 소비자, 유튜브 뉴스 소비자, 단순 유튜브 소비자로 유형화하고 잠재적 선택 편향의 문제를 통계적으로 완화하여 분석한 결과, 시민들은 유튜브를 통해 정치정보를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으며, 그런 집단일수록 다른 전통적인 뉴스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유튜브를 통한 뉴스 소비는 특정 정당 및 정치이념과는 무관했음.</p>								
2	Voting Green in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issue voting in an electoral context	국제저명(SSCI)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2022	09	공동(2인)	제1저자	10.1080/13 501763.20 22.211608 2	
2	<p>본 연구는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녹색당이 선전한 원인을 규명한 연구로, SSCI 저널인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에 게재되었음. 이론적으로, 기본적인 이유는 환경 이슈가 해당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되었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녹색 정당의 경쟁 구도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유럽 선거연구와 비교공약프로젝트로부터 데이터를 취합했고, 통계적 분석을 한 결과, 2019년 유럽의회 선거의 녹색 이슈 투표는 해당 국가들의 선거 구도가 조건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밝혀냈음.</p>								

저서제목	단독/공동	외국어/ 한국어	게재정보			ISBN
			출판사명	년	월	
Oxford Handbook of South Korean Politics	공동(3인)	외국어	Oxford Univ. Press	2023	03	978-0192894045
1	<p>특히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 나아가 민주주의의 공고화, 그리고 활발한 시민사회 및 문화적 정체성이 강한 나라로서 그 특이성을 지닌바, 본 저서는 공동편집자 3인 가운데 연구자가 제1편집자로 참여한 저서로 이러한 한국정치 전반을 체계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최초의 저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p>					
2022 대통령 선거와 한국 정치: 정권심판론, 세대갈등, 사회양극화	공저(10인)	한국어	EAI	2022	10	9791166174261
2	<p>본 저서는 2022년 대통령 선거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정권심판론, 세대갈등, 사회양극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상을 다룸으로써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있음. 특히 한국 정치의 중대한 변곡점에서 발간되는 이 책은, 오늘날 정치 환경의 주목할 만한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한국 민주주의의 양상을 내다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더함.</p>					

② 이공계열 참여교수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해당 없음

③ 연구의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 (최근 1년: 2022.9.1.-2023.8.31.)

연번	대표연구업적물 설명
1	<p>○ 김종섭 참여교수 (교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정보: 김종섭 · 김다운 (2023) “Budget support and governance in foreign aid: Evidence from a panel Granger causality test” 『국제개발협력연구』 15권 2호, 79-94. DOI: 10.32580/idcr.2023.15.2.79 - 구분: 연구재단등재지(KCI), 논문발행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저자: 공동(2인) <p>1) 주요 연구내용 및 우수성</p> <p>본 연구는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예산지원을 유치하는 조건인지 아니면 예산지원이 굿거버넌스를 촉진하여 원조의 성과로 나타나는 것인지 두 변수 간 인과 관계의 방향성을 분석하였음. 기존 문헌이 예산지원과 거버넌스의 관계를 원조 선택성과 효과성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본 연구는 예산 지원과 거버넌스 사이의 인과성에 초점을 맞추었음. 패널 그랜저 인과성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예산 지원과 거버넌스는 상호간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이며, 이에 더해 그 방향성은 수원국이 속한 소득 그룹과 세부 거버넌스 지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음을 밝힘.</p> <p>2) 연구역량 향상계획 대비 실적</p> <p>본 연구는 거버넌스와 예산지원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음. 해당 주제는 현재 개발협력 정책 및 연구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협력자금의 조건성에 대한 경험적</p>

	<p>근거를 제시하는데 있어 큰 의의가 있음. 궛 거버넌스가 예산 지원을 하는데 주요 조건이라면 수원국들은 거버넌스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예산 지원 이후 해당 국가의 거버넌스가 향상된 것이라면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본 연구는 이러한 두 변수의 관계가 쌍방향임을 밝힘으로써 수원국들의 소득 그룹 및 세부 거버넌스 지표가 이러한 관계를 구체화하는 요인임을 시사했음.</p> <p>3) 향후 추진계획</p> <p>다학제적 전문인력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구축 목표를 계속해서 달성해 나가기 위해 향후 참여 학생들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국제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에 있음.</p>
2	<p>○ 김태균 참여교수 (단독)</p> <p>- 저술정보: 『반등 이후: 글로벌 사우스의 국제정치사회학』 (2023) ISBN: 9788963475639</p> <p>- 구분: 저서, 발행기관: 진인진 출판사, 저자: 단독</p> <p>1) 주요 연구내용 및 우수성</p> <p>본 저서는 제3세계론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국제정치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고유 시각으로 분석한 연구서임. 냉전 종식 이후 30년간 지속되던 국제질서가 현실주의 국제체제로 재편되는 국면에서 ‘대항적 공존’ 개념을 토대로 한국이 삼각협력의 중심축이 되어 새로운 세계질서에 기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이는 90년대 이래 명맥이 끊겨온 한국의 제3세계 연구의 복원과 함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첫 작업이자, 글로벌 노스의 입장을 수동적으로 수용해 왔던 외교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제언으로서 의의를 지님.</p> <p>2) 연구역량 향상계획 대비 실적</p> <p>본 저서는 대항적 공존을 통한 제3세계의 진화과정과 한국의 제3세계론 연구에 큰 기여를 하는 논의임. 특히 글로벌 남반구의 부상은 최근 다변화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주목할만한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이며, OECD DAC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서 공여국의 위치를 유지해온 한국의 국제개발에 있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p> <p>3) 향후 추진계획</p> <p>본 저서는 대안적 상상력을 통해 19세기 이래 2세기 남짓 기존 강대국의 국제질서에 도전해 온 글로벌 사우스의 역사를 관통하는 변증법적 공통분모로 ‘대항적 공존’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 향후 국제개발과 지역학의 다학제적 지식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기관 특히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학문후속세대 양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p>
3	<p>○ 오윤아 참여교수 (단독)</p> <p>- 논문정보: Yoon Ah, Oh (2023) “Assessing Myanmar’s trade dependence on China during the reform period of the 2010s: a sectoral value chain approach” <i>Pacific Review</i> 22권 12호, DOI: 10.1080/09512748.2022.2160797</p> <p>- 구분: 국제저명학술지(SSCI), 논문발행기관: Taylor & Francis, 저자: 단독</p> <p>1) 주요 연구내용 및 우수성</p> <p>본 논문은 2010년대 개혁시기 미얀마와 중국의 경제관계를 산업별 가치사슬을 통해 분석하였음. 구체적으로 미얀마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지난 십여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서방국가들의 제재완화로 다소 완화되고 있음. 그러나 동시에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국제 가치사슬로 인해 천연가스, 채소, 의류 등 분야에서 대(對)중 수입량이 증가함으로써 전반적</p>

<p>인 미얀마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분석 결과는 미얀마의 대(對)서방 대외관계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비례하여 대(對)중 무역에 대한 의존이 감소하지는 않음을 시사함.</p> <p>2) 연구역량 향상계획 대비 실적</p> <p>2010년대에도 계속되는 미얀마의 정치적, 경제적 저개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특히 미-중 국제사회의 재편과 갈등에서 외교해야 하는 많은 개도국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즉, 개도국들의 정치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외교의 다각화가 필요함을 역설함과 동시에 그 현실적 어려움 역시 시사함. 따라서 해당 연구는 국제개발 및 국제협력의 분야에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융복합적 접근을 추구하는 본 교육연구단의 계획과 방향과 일치함.</p> <p>3) 향후 추진계획</p> <p>본 연구는 국제저명학술지(SSCI)인 Pacific Review에 게재되었으며, 향후 참여교수의 전문성을 살려 동남아시아의 국제관계 및 ASEAN 지역적 통합에 관한 연구를 이어 나갈 계획임.</p>
--

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p>1) 국제지역·개발의 지식생태계 및 분야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교육연구단의 주요 목적은 국제지역·개발분야의 지식생태계 활성화이며, 이는 참여연구진의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해 이행되고 있음. 특히, 본 교육연구단이 설정한 4대 주제인 지속가능발전, 민주적 거버넌스, 경제·사회정책, 국제협력 분야 이론과 실무 및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기타지역 등 지역 전문성 간 크로스오버를 통해 다학제적 학문후속세대와 전문 혁신인력 양성 비전을 달성해 나가고 있음. - 참여교수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을 둘러싼 세계정세를 이해하고 국제개발과 협력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음. 아울러 한중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상호간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회의를 마련하였고,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음. 이러한 회의들은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여러 매체에 크게 보도되었으며,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있었음. 아울러 이와 관련된 주제들을 신문에 칼럼으로 기고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국제개발과 협력, 그리고 평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박태균 교수). - 참여교수는 한국의 보건 NGO인 메디피스가 KOICA로부터 수주하여 수행 중인 “베트남 팽찌성 장애인 종합재활센터 설립사업 PMC 용역”에 전문가로 참여함. 메디피스는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참여교수에게 기초선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참여교수는 한국 NGO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베트남 보건 분야, 특히 장애인 재활분야의 개선에 있어서 해당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여함. 또한 학생들의 전문성 강화와 경험 축적을 위해서 국제대학원 BK21 참여학생인 석사과정생(심소은, 곽지원, 서예주)들을 기초선 조사에 참여하게 하여 베트남 현지조사를 같이 다녀왔으며 기초선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학생들은 한국 개발협력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들과 협업을 하면서 이 분야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으며, 역량강화와 경험 축적의 기회를 얻음. 심소은 참여학생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 봄 졸업 후 한국조세연구원 개발협력센터에 취직함 (김중섭 교수). - 참여교수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아프리카센터 센터장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탄자니아 대사 등을 초청하여 한국과 아프리카와의 관계에 대한 특강 시리즈를 기획 및 운영하였음. 특히 르완다대사관에서 주최하는 2023년 르완다
--

제노사이드 추모식에 BK 대학원생들과 함께 참석하였음 (김태균 교수).

- 참여교수는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4개국 학생들의 교류 프로그램인 서울대 국제대학원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여, 상호 인식 개선 및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였음. 일본 동경대학교, 중국 북경대학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서울대 국제대학원으로 복수학위 또는 교환학생으로 방문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개발모델 및 국제개발협력 모델 관련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 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송지연 교수).
- 참여교수는 국제법 역량 강화 및 국제소송에 대한 국내적 관심의 제고를 위하여 외교부가 주최하고 대한국제법학회가 주관하는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참여대학원생 참가를 독려하고 지도함. 이중 학생 3인이 자발적으로 팀을 꾸려 참가신청하였으며, 참여교수는 해당 행사에 재판관으로 초빙되어 본선진출팀 대상으로 구두변론을 심사함.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법 모의재판대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필요한 학생지도를 제공하며, 재판관으로 참여하여 구두변론을 심사함으로써 국제법 실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전문성을 신장하고 국제법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쌓는 데 이바지할 계획임 (이혜영 교수).
- 참여교수는 서울대 인권센터 주최 대학원생 인권논문 공모전 심사위원으로 참여함. 서울대 인권센터는 대학원생 인권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학문적 연구를 증진 장려하기 위해, 대학원생들이 인권 관련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연구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우수 논문을 심사,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음. 인권지향성, 주제의 독창성, 논리적 정합성, 연구방법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이 논문들을 심사하여 시상자를 선정할 예정임. 우수 논문 시상을 통해, 인권관련 주제에 대한 학제간 융합연구,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시도하는 연구를 장려하고 향후 인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을 격려하는데 취지가 있음 (이혜영 교수).

2) 사회문제 해결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정부 부처와 여러 개발협력기관에서도 느끼고 있음. 참여교수진은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와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ODA와 전반적인 국제개발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참여대학원생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개발협력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참여교수는 시흥미래교육포럼 이주배경청소년 분과 위원으로 참여함.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위치한 시흥시는 주민 중 외국인의 비율(10%)이 매우 높은 도시로서, 시화공단에서 일하기 위해 이주해 온 중국,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들어온 이주 노동자와 이들의 자녀가 거주하고 있음. 참여교수는 시흥미래교육포럼 이주배경청소년 분과에 참여해,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을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원활하게 교육하기 위한 방안을 시흥시청, 시흥시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장, 시민 활동가 등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음 (박지환 교수).
-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이라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2번째 목표로서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과정 가운데 천연자원과 유해물질 사용을 감소하고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으며,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목표임. 참여교수는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환경인식 척도와 스마트폰 활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실효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용되는 전자기기가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냉장고와 같은 큰 규모의 가전제품의 재활용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스마트폰과 같은 소규모 전자제품의 재활용은 미비한 실정임. 생산자(예: 삼성전자, 공식 핸드폰 판매점)를 통한 재활용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개발도상국으로 비공식적으로 판매되어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과정으로 스마트폰이 해체된다는 연구가 인도와 중국에서 진행된 바 있음. 본 연구에는 BK학생들도 참여하여 e-waste 사례를 통해

산업·사회문제를 해결하고 SDG 12번 달성하는 데 협력해야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배우게 됨 (윤세미 교수).

- 참여교수는 지속가능발전과 글로벌 커피 시장 연구를 통해 글로벌 북반구와 남반구 간 불평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 본 연구는 대부분의 커피 생산자가 개발도상국에서 재배를 하는 반면에, 커피 한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회인들의 다수는 선진국에서 커피를 소비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음. 커피라는 작물이 거래되는 공급망의 특성에 따라 생산자가 받게 되는 비용은 소비자 지불액의 극히 일부라는 지점을 타파하기 위해, 최근 직접 무역(direct trade)을 추구하는 테라로사(한국)나 블루보틀(미국)과 같은 로스터리 브랜드가 탄생했음. 참여교수는 미국 에모리 대학 피터 로버츠 교수팀 및 국제NGO Alliance for Coffee Excellence와 협력하여 스페셜티 커피 대회(Cup of Excellence)가 어떤 방식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음. BK학생들이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윤세미 교수).
- 참여교수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센터장을 역임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평범한 일상이 가능하도록 우리 삶을 뒷받침하는 귀중한 행위인 돌봄과 이로 인한 젠더 불평등 영역들을 발굴해 탐구하고, 가시화하며, 더 의미있는 변화와 실천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음. 디지털 기술과 돌봄, 국제 돌봄 컨퍼런스, 국제이주와 돌봄 등 다양한 세미나를 기획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있음. BK참여학생은 이 센터에 조교로 활동하며, 해당 분야 전문성을 키워나감 (은기수 교수).

3) 한국 정부의 문제 해결

- 국제질서 재편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라 한국 정부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제지역·개발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제를 안고 있음. 참여교수진은 정책자문위원회 활동 및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서 추진한 국제지역개발 관련 정책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정책에 대한 권고를 수행하고 있음.
- 참여교수는 2020년 한국 정부가 도입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EIPP)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용역에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음. EIPP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혁신 분야 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협력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는 한국 기업과 개발도상국의 산업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함. 해당 사업을 평가하는 내부 지침이 부재한 가운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가이드라인 제작의 필요성을 느끼고 KDI에서는 이 분야 전문가인 참여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함. 참여교수는 국제대학원 학생이며 BK21에도 참여하고 있는 박사과정생(김다운, 이수지)과 석사과정생(이은진, 금유진, 이주현)을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본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EIPP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평가지침 수립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 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하는 데도 크게 기여함. 학생들은 KDI와도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개발협력 분야의 경험을 얻을 수 있었음 (김종섭 교수).
- 참여교수는 4~5년 단위로 OECD DAC 회원국들에 대한 OECD 자체의 동료검토(Peer Review)를 준비하는 국무조정실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이 ODA를 통해 글로벌 공공재 제공으로 글로벌 사회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바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함 (김태균 교수).
- 참여교수는 2023년도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제4차 UPR) 준비회의를 위한 법무부 예상질의 연구용역을 총괄하였으며, 사회권, 자유권 등으로 구분하여 UPR 대비 회의를 진행하였음. 해당 프로젝트에는 BK신진연구인력(심예리)과 BK참여학생(임윤정, 신송학, 경민경)이 참여하여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유엔인권기구 사이클에 대한 이해 및 해당 분야 역량개발을 지원함. 이후 인권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갖게 된 신송학 학생은 세계식량기구 인턴십에 지원하였으며, 2023년 하반기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서 근무할 예정임 (김태균 교수).

- 참여교수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최고 단계의 정책위원회인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 한국의 ODA 예산 증액과 유무상 원조 간의 통합운영, 그리고 다양한 개발협력 정책결정 및 현안 검토에 참여함 (김태균 교수, 송지연 교수).
- 참여교수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 참여를 통해서 민주주의 위기 및 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학술회의와 행사를 조직하고 참여함. 한국 사례와 다른 선진국 및 개도국의 민주주의를 비교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향후 민주주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학술활동을 바탕으로 “Reinforcement of Labor Market Dualism and Inequality in South Korea” 논문을 작성하여 출판하였음 (송지연 교수).
- 참여교수는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여러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하였음.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개발협력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송지연 교수).
- 참여교수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다학제적 연구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미-중 인도-태평양 지역질서 구축 경쟁과 한반도” 주제의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책임을 맡아 수행함. 동 프로젝트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구체화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무역, 다자주의 등의 지역 질서 구축을 둘러싸고 미-중 경쟁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역내 및 역외 국가들의 정책은 무엇이며 나아가 이들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안보, 무역 및 에너지, 4차산업 기술과 공급망, 동북아와 동남아의 지정학 등의 세부 분야별로 고찰함으로써 한반도와 미중 경쟁,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의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특히 개발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정책 함의를 제시. 이를 위해 참여교수를 포함한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전임교수 4명과 중국 산둥대, 그리고 일본 게이오대학의 전임교수가 참여하는 3국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2022년 가을 서울대 통일평화학술대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이후 보고서를 제작함 (신성호 교수).
- 참여교수는 장거리 통근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함. 공공기관 이전 정책으로 많은 공무원이 거주지를 이전했으나 일부 공무원들은 현 거주지를 유지하며 장거리를 통근하는데, 이들의 건강상태를 분석하여 장거리 통근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 참여교수는 2SLS 모델을 이용하여 장거리 통근이 의료 서비스 사용량을 상당히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했고, 특히 호흡기, 순환기, 내분비 등 대사 질환 치료의 빈도가 높았음. 이 외에도 일부 건강 관련 지표들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했는데, 장거리 통근이 건강검진 빈도와 신체활동에 복합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으로 생각됨. 해당 연구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했음. 또, 일상적인 통근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으로 확대하여 통근과 개인의 의료 지출 증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하고,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함 (이수형 교수).
- 참여교수는 2001년부터 2021년까지의 대한민국 해외 직접투자의 최근 동향, 총액, 투자국 구성 등을 빅데이터와 통계 기법을 이용해 분석함. 연구 결과, 대중 투자액은 한중 정치 관계 악화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감소하였으며, 대미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최대의 직접투자 대상국인 것을 확인함. 이 외에도 케이먼 제도를 포함한 조세 피난처에 대한 투자 증가 추세도 발견함.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해외 직접투자 경향을 분석하고 조세피난처로의 투자를 통한 탈세의 정확을 실증적으로 포착함. 이는 정부의 조세피난처 투자 단속 및 해외 직접투자 정책 결정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이수형 교수).

- 참여교수는 사법부의 국제인권 메커니즘에의 참가 방식을 주제로 개최된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하여 이론적·실무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가 인권조약상 의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 대한민국은 유엔 회원국이자 주요 인권조약 당사국으로서 UPR과 각 조약별 국가심의 절차에 참여해 왔음. 이러한 국가심의 절차의 대상인 국가기관에 사법부가 당연히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법부가 어떤 식으로 심의 절차에 참가할지에 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23. 7. 18.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와 본인, 박진열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을 초청하여 전문가간담회를 마련하였음. 향후 사법부와 법무부가 국내 판사 및 사법부 구성원의 국제인권 메커니즘에의 참가 방식을 고민하고 관련 내규를 마련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문이 있다면 참여교수는 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임 (이혜영 교수).
- 참여교수는 2023년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의 학술회의 개최 지원을 통해 한국과 유럽의 학자와 공무원을 초청한 60주년 기념학술회의를 개최하였음. 이를 통해 60년의 수교 역사를 통해 한국과 EU 시민들이 상호 교류협력의 현황과 상대 정치체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현황을 한국과 유럽의 학자들이 정치, 사회, 경제, 교육적 측면에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함. 이는 장기간의 교류협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도가 낮은 현실을 타개하는 중요한 전환을 마련한 회의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학술회의 결과는 대학원 수업 등에 활용함으로써 BK21사업 참여학생들이 EU에 대한 이해를 도움 (한정훈 교수).

4) 한국기업의 문제 해결

- 한국기업은 저개발지역이 시장으로서 갖는 잠재력 및 글로벌사회공헌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참여교수진은 국제지역·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저개발지역에 관심 있는 기업과 협업하며 문제해결 방안을 제공해 줌.
- 참여교수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수행 중인 국무조정실 연구용역 “기업의 ESG 경영 활동과 연계한 PSE(Private Sector Engagement) 모델 구축 및 컨설팅 연구”에 전문가로 참여하였음. 최근 세계적으로 글로벌 ESG 논의가 확산되면서 효율성 이외 회복력·지속가능성에 기반한 기업 성장 인식이 증대하였음.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 요소이며,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도 연계되어 있음. 참여교수는 국제대학원 학생이며 BK21에 참여하고 있는 석사과정생(심소은, 박지원)들을 본 사업에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참여하게 하여 이 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하였음. 학생들은 법무법인 지평의 ESG 경영전략 그룹과의 협업 기회를 얻어 많은 경험을 쌓게 됨. 심소은 석사과정 졸업생은 이러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2023년 봄에 졸업하자마자 한국조세연구원 개발협력센터에 취직하였음. 법무법인 지평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의 협력관계에 만족하여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함 (김종섭 교수).

5) 저개발국가 개발 분야 직접적 참여

-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진행해 온 개발협력정책프로그램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Program: DCPP 프로그램)은 ‘젠더개발학 석사과정’에서 2023년 9월부터 ‘에너지 정책 석사과정’으로 전환될 예정임. 젠더개발학 석사과정을 통해 저개발지역의 국제개발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산업사회문제인 성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3기에 걸쳐 총 60명의 학생이 참여함. ‘에너지 정책 석사과정’은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대응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의 관료로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 예정임. 2023년도 2학기부터 3년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은 각국에서 해결해야 할 에너지 이슈를 파악한 상태로 학위과정을 시작하게 됨.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 에너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따라서 유사한

에너지 이슈에 관심 있는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공무원 학생을 매칭함으로써 에너지 이슈의 다각화된
 솔루션 도출을 위한 연구팀들을 구성할 계획임 (김종섭 교수, 윤세미 교수, 은기수 교수).

3. 연구의 국제화 현황

① 참여교수의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실적 및 현황

1) 국내·국제학술회의 참여실적 (기간: 2022년 9월 ~ 2023년 8월)

(1) 박태균 교수: 국내학술대회 5회, 국제학술회의 1회

구분	학술회의명	장소	기간	주관/주최	역할	발표논문명
국내	2023년 백범김구기념관, 김구재단 공동 국제학술회의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2023년 8월 29일	백범김구기념관, 김구재단	발표	카이로 선언과 반탁운동, 그 현재적 의미
	국제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공약했던 1943년 카이로 선언에 대해 세계사적 시각에서 접근해 보고자 했음. 이를 위해 카이로 선언 자체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이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정책,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단체들의 반응을 다루었음.					
	2023년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푸단대학 한국연구중심, 한국역사연구회 군사외교사반 공동학술회의: 한반도 정전체제 70주년과 한중관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23년 7월 21일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푸단대학 한국연구중심, 한국역사연구회	기조발표	정전협정보다 억지력이 약했던 평화협정: 정전협정 70년에 바라보는 중국
	중화제국의 성쇠와 한반도의 대응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23년 6월 9일	서울대학교 국제연구소 소천한국학센터, 한국역사연구회 중세국제관계사반, 푸단대학	기조발표	전근대 한중관계의 해석이 갖는 현재적 의미
	한중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세계사적인 보편성을 찾고자 함. 이를 위해서 오스만투르크 제국에서 있었던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오스만 제국에 대한 조공제도를 발굴하여, 이와의 유사성을 살펴봄. 아울러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 소련과 제1, 제2세계의 관계를 조공제도의 다른 변형으로 분석한 유럽 학자의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체제의 세계사적 보편성에 접근을 시도함.					
	2023년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소천한국학센터 및 푸단대학 한국연구중심 제1차 공동학술회의: 대중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23년 4월 20일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소천한국학센터, 푸단대학	개회사	
소천한국학센터 및 푸단대학 한국연구중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22년 9월 26일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사회		

	공동개최 제3차 학술회의: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Chin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소천한국학센터, 푸단대학		
국제	2023 SNU GSIS BK21 International Conference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the Korean Parameters: For the Positive Connectivity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23년 8월 10~11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BK21	개회사 의장	

(2) 김종섭 교수: 국내학술대회 1회, 국제학술회의 2회

구분	학술회의명	장소	기간	주관/주최	역할	발표논문명
국내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정기학술회의	제주대학교	2023.06.17.	한국라틴아메리 카학회	발표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Reducing CO ₂ Emissions
	<p>지금까지 정부의 형태가 이데올로기가 CO2 배출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은 있었으나 비정부기구(또는 시민사회기구 CSO)가 CO2 배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논문은 없었음. 본 논문은 CSO에 대한 국별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CSO가 CO2 배출에 주는 영향을 패널회귀분석으로 분석함. 논문은 일반적으로 시민사회기구가 활동적인 국가에서는 CO2 배출이 적다는 것을 보여줌.</p>					
국제	The Asian Studies Conference Japan	일본	2023.07.01.	ASCJ	발표	Managing Risks in Hydroelectric Dam Construction in Mekong Region: A Comparative Risk Analysis of Three Mainstream Dams in Lao PDR
	<p>메콩강을 둘러싼 수자원의 문제는 중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등의 국가에서 경제, 정치, 외교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음. 메콩강에 수력발전을 위한 댐을 건설할 때 지금까지의 평가 틀은 주로 환경적 위험과 기술적 문제를 다루는데 그쳤음. 본 연구는 정치적 위험을 포함하는 새로운 평가틀을 만들어 라오스에서 건설되었거나 그럴 계획이었던 세 개 댐에 적용하였음. 새로운 평가틀은 기존의 틀보다 훨씬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줌.</p>					
	East Asi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Annual Meeting	대만	2022.10.15.~ 10.16.	East Asian Anthropologist Association	발표	Can the Law Pull the Custom? - a Gender Case Study on Rwanda and Nicaragua
<p>르완다와 니카라과는 성평등의 측면에서 매우 특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권위주의 정부에서 성평등에 관한 법률이 많이 도입되어 법적으로는 여성의 지위가 많이 올라갔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꼭 그렇다고 할 수 없음. 본 논문은 경제학 방법론으로 두 가지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짐. 특히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의 문제, 가정내 폭력의 문제 등의 문제가 왜 해결되고 있지 않은지를 밝혀냄.</p>						

(3) 김태균 교수: 국내학술대회 발표 3회, 국제학술회의 2회

구분	학술회의명	장소	기간	주관/주최	역할	발표논문명
국내	통일부/수출입은행/서울대학교 공동주최 국제포럼	콘래드 서울	2023.07.05.	통일부, 수출입은행, 서울대학교	발표	북한개발협력에 있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의미, 북한의 국가경제개발계획과 지속가능발전목표
	<p>대북제재 국면, 미중 전략경쟁, 러우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하에 북한개발협력의 가능성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활용하여 보편성과 특수성이 교차하는 교집합을 전략화하는 방안을 발표함. 특히, 북한이 최근에 유엔에 제출한 Voluntary National Review와 북한 내부의 국가경제개발계획이 어떻게 유엔 SDGs와 연계되고 이를 한국과 국제사회가 전략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을 제안함.</p>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제18차 평화학 포럼	서울대학교	2023.06.2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표	적극적 평화, 전략적 평화를 위하여: 복합학으로서 평화학
	<p>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개최하는 평화학 포럼에 연사로 초청되어 “적극적 평화, 전략적 평화를 위하여: 복합학으로서 평화학”의 주제로 평화학 이론과 역사적 진화과정에 대한 개론을 특강함. 요한 갈통의 적극적 평화론과 미국 노트르담대학 학파의 전략적 평화론을 근간으로 다학제적인 평화학의 특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강연하였고 특히 국제개발과 평화구축의 연계성을 강조함.</p>					
	2023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이화여자대학교	2023.06.21.	한국국제정치학회	발표	국제적 개발목표와 규범을 적용한 남북협력사업의 가능성
<p>한국국제정치학회와 북한연구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특별패널세션에서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간 협력사업의 가능성과 전망을 기존의 남북관계 맥락에서 찾지 않고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통합적 접근 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규범에서 찾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북한의 특수성에 매몰되지 않고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글로벌 규범에서 남북협력의 정당성을 찾고자 하는 데 그 중요성을 강조함.</p>						
국제	Development Studies Association (DSA) 2023	University of Reading, UK	2023.06.28.~2023.06.30.	Development Studies Association	발표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silience in South Korea's Policies: Its Approach and Impact on Regional Cooperation
	<p>영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전 세계 최대규모 개발학 학회인 Development Studies Association (DSA)에 발표자로 2023년 6월 영국 레딩대학(University of Reading) 패널45(Translating resilience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ective climate action)에 참석하여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silience in South Korea's Policies: Its Approach and Impact on Regional Cooperation” 논문을 BK 연구교수인 김보경 박사와 같이 발표함. 개발학에서 논의하는 회복력 연구에 한국 사례가 보여주는 ‘민주적 회복력’의 특수한 경험을 추가하여 정치적 의미의 회복력에 관한 연구결과를 공유했음.</p>					
	South Korea's Policy Options in Asia	준회의	2022.10.04.	Rand Corporation	패널	ODA and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Options
<p>미국 Rand Corporation의 the RAND Center for Asia Pacific Policy에 소속된 Korean Chair와 한국 LA 총영사가 주최하는 웨비나에 패널로 참석하여, 변화하는 국제관계 외부환경 속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p>						

	미국 중심으로 외교정책을 조율하고 있는 한국 신정부가 앞으로 아시아에서 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함. 본 패널에서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방향성과 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개발협력을 통한 정책수단의 가능성을 타진했음.
--	---

(4) 박지환 교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1회

구분	학술회의명	장소	기간	주관/주최	역할	발표논문명
국제	Asia Re-Connecting?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Taiwan	2022.10.15.-16	East Asi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주저자 (총 저자 2명)	Localization or Distribution? The International Delivery of Japanese Inclusive Education to Mongolia: A Case Study of the Project for Strengthening Teachers' Ability and Reasonable Treatment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START)
	이 논문은 일본과 몽골 간의 교육협력 사업에서 일본의 교육 방식과 몽골의 교육 현실이 어떤 식으로 상호 작용하는가를 분석한 연구임. 국제교육협력에 대한 연구는 종종 수원국과 지원국의 교육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해당 사업의 성과 평가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음. 이 연구에서는 일본-몽골 간의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 프로젝트를 검토함으로써, 일본 내 통합교육의 이중성이 몽골 장애아동 교육의 현실과 어떻게 충돌하고 결합하는가를 분석했음.					

(5) 신성호 교수: 국제학술회의: 발표 1회

구분	학술회의명	장소	기간	주관/주최	역할	발표논문명
국제	“Bolstering U.S.-ROK Cooperation on Reg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Governance	하버드 대학 벨퍼 센터	2022년 10월 3일	하버드 벨퍼 센터와 동아시아 연구원 공동 주관	발표/ 토론	Exploring the Impact of the Russia-Ukraine War on South Korean Security
	북핵위협 고조와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동북아 상황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지는 함의와 한반도 비핵화 전망을 최고의 석학인 그래함 엘리슨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하버드 벨퍼 센터의 핵 전문가들과 함께 토의와 발표했으며, 공개와 비공개 세션으로 진행함.					

(6) 윤세미 교수: 국내학술대회 3회

구분	학술회의명	장소	기간	주관/주최	역할	발표논문명
국내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 학술대회	서울대 국제대학원	2022.12.15	한국국제 경제학회	사회 및 토론	국제개발
	사회갈등, 세대간 교육성과 및 빈곤퇴치를 위한 현금 지급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 공유했음. 국제개발 연구를 진행하는 다양한 기관 관계자들의 의견 발제(조세재정연구원, KIEP, 한국은행, KDI School, 서울시립대)와 말라위, 라이베리아, 캄보디아 등 개발학 연구에서 쉽게 다뤄지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 논					

의했음.					
한국개발정책학회 추계학술포럼	서울대 국제대학원	2022.11.18	한국개발 정책학회	발표	Good governance and household resilience to natural disasters: evidence from Vietnam
지구 온난화로 인해 자연재해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난 20년 동안 이뤄져 왔으나 주로 고, 중소득국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룸. 그러나 자연재해가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하여 자연재해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고,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거버넌스의 역할 분석이 필요함. 본 연구는 자연재해에 취약한 베트남의 가구 수준의 데이터와 UNDP의 거버넌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베트남 취약계층의 자연재해 회복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음.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포럼	코엑스 컨퍼런스룸	2022.10.11	한국공학교육학회	사회자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 정책분과
SDG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활동에 대한 소개하는 회의로, 기후변화, 전염병 대처 등과 더불어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연구투자과 확산이 소수의 글로벌 기업과 해외 주요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개발에 미치는 영향력과 의미 고찰했음. 국내 과학기술계와 국내외 정책/국제개발/국제기구 등 다양한 파트너들의 협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짐.					

(7) 이수형 교수: 국내학술회의 3회, 국제학술회의 1회

구분	학술회의명	장소	기간	주관/주최	역할	발표논문명
국내	2023 경제학 공동학술회	고려대학교 국제관	2023.2.2.~ 2023.2.3	한국경제학회	공동 (교신)	Sejong' s Effects on People' s Health: Consequences of Long Commute
	근무지 이전에 따른 통근시간의 증대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한 2023 경제학 공동학술회에 23년 2월 2일 참여함. 한국재정학회 분과회의에서 세종시 공공기관 이전 정책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장거리를 통근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병원 방문 횟수와 의료 지출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것을 발표했음. 이후 저명학자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Asian Economic Papers에 Sejong' s Effects on People' s Health: Consequences of Long Commute를 출판했음.					
	A Roundtable Discussion on the Economic Opportunities in the Metaverse	서울대학교	2022.11.04.	Meta&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단독	Metaverse:Economic Implications for Jobs and Employment
	Meta와 서울대학교 AI 연구원(AIIS)가 공동 주최한 XR허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라운드 테이블에서 디지털 경제의 일자리와 고용에 대해 발표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메타버스 경제의 도입을 위해 정부, 산업, 학계 등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Metaverse: Economic Implications for Jobs and Employment를 주제로 토론했음.					
AEP (Asian Economic Panel)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2022.09.26.~ 2022.09.27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공동 (교신)	Sejong' s Effects on People' s Health: Consequences of Long	

		브람스홀		Economic Policy		Commute
	<p>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통근시간의 증대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Asian Economic Panel 행사에 22년 9월 26일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함. 해당 세션의 토론자들과 함께 연구결과에 대해 토의하고 피드백을 받았으며 이를 참고하여 논문을 출판했음.</p>					
국제	The 2023 IAAE Annual Conference	BI Norwegian Business School, Campus Oslo	2023.06.27.~2023.06.29	BI Norwegian Business School, Campus Oslo	공동(교신)	Men against Nature: How Technological Innovation in Rice Farming Marginalized Women
	<p>Norwegian Business School에서 열린 2023 IAAE Annual Conference에 23년 6월 27일 참여하여 Men against Nature: How Technological Innovation in Rice Farming Marginalized Women 논문을 발표했음. Session 7: Inequalities in work에서 의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고, 유수의 저명 학자들과 노동 환경에서의 불평등에 대해 논의함. 해당 논문은 쌀 생산 기술이 남성의 신체적 힘을 요하는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젠더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쌀 생산 의존도가 높을수록 여성의 사회진출이 저해된다는 것을 주장했음. 실제로 해당 논문에서 중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의 쌀 생산과 관련지어 젠더 불평등 사례를 다루었음. 학술행사에서 받은 피드백을 참고하여 곧 학술지에 투고할 계획임.</p>					

(8) 이해영 교수: 국내학술대회 2건

구분	학술회의명	장소	기간	주관/주최	역할	발표논문명
국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곤지암 세미나: 대전환기 대한민국 국가전략	곤지암 리조트	2023. 8. 18. ~ 8. 19.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지정 토론	한국의 국가 리스크와 국제법의 역할
	<p>한국이 주변국 및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비롯된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함에 있어서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것에 기반한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한국 정책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데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논변함. 특히 오늘날 국가들이 자국의 행위나 정책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국내외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국제법을 정치화하고 무기화하여 국익추구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률전(law fare)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한국의 법률전 수행 역량을 갖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p>					
	제15회 국제법 캠프: 국제사법정의 실현과 국제재판관의 역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 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2023. 7. 20.	국제법평론회,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세대 법학연구원	기획 및 사회	국제사법정의 실현과 국제재판관의 역할
<p>국제법평론회는 후속 세대의 국제법 지식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배움의 장으로서 ‘국제법캠프’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음. 본인은 2023년 국제법평론회 기획이사로서, 7월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 함께 ‘국제사법정의 실현과 국제재판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캄보디아특별재판소(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백강진 재판관과 성균관대 김성원 국제법 교수를 주 강연자로 초빙하여 국제법캠프를 기획 및 개최함. 국제법캠프를 수료한 학생들에게는 국제법평론회 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번 행사에 약 90명의 학생이 등록하여 수료하였음. 이는 국제법캠프 개최 이래 최다 인원이 수료한 것임.</p>						

(9) 한정훈 교수: 국제학술회의 1회

구분	학술회의명	장소	기간	주관/주최	역할	발표논문명
국제	한-EU 수교 60주년 기념 학술회의	브뤼셀	2023.5.2.-5.3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회의조 직 및 발표	Perceptions on Public Understanding of the Korea-EU Relationship: Suggestions for the future Korea-EU relations
	본 발표는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학술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 60년 간의 교류를 통해 양국 시민들이 상대국에 대해 어떤 인식을 발전시켰는지를 연구한 결과임. 이를 통해 경제적 교류협력의 증진으로 인해 양국 시민들은 상대국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를 희망하는 반면, 장기간의 교류협력과는 대비되게 여전히 상대국에 대한 이해는 높지 않다는 점을 검증하였음.					

② 국제 공동연구 실적

1) <표 3-6> 최근 1년간 국제 공동연구 실적

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소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국의 공동연구자			
1	김태균	Marieline Bader	스위스/ Solafirca	The 'Easternization' of Development? The Politics of East Asia's Developmentalist Cooperation 단행본 가운데 한국의 사례인 "Decoding South Korea' s development cooperation through the lens of developmental state politics: In search of symbiotic embeddedness" 논문을 스위스 Solafirca에 근무하는 Marieline Bader 전문관하고 공동 집필함. 한국의 발전국가론이 국제개발 정책에 깊숙이 배태되어 있고 개발중심주의가 한국 ODA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함.	97817885322 80
2	오윤아	15인	미국 외 다수/University of Oregon 외 다수	단행본의 장(chapter) 저술: Vietnam' s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Understanding Vulnerability through a Typology of Trade Shocks (In The Dragon' s Underbelly: Dynamics and Dilemmas in Vietnam' s Economy and Politics)	97898150113 95
3	이수형	Federico Echenique, Nicole Immorlica, Vijay V. Vazirani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미국/ Microsoft Research New England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Online and Matching-Based Market Design 매칭 기반 시장 설계 분야에 관한 것으로, 경제와 사회학적 영향을 가진 응용 사례들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50명 이상 의 최고 연구자들과 함께 시장 설계 분야 의 컴퓨터 과학과 경제학적 아이디어를 설명. 해당 저서는 Cambridge University Press를 통해 2023년 5월 출판되었음.	ISBN :9781108831 994

			Irvine		
4	한정훈	Daniel Finke	덴마크 / Aarhus University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라는 SSCI 저널에 공동(2인) 논문을 게재함.	https://doi.org/10.1080/13501763.2022.2116082

③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및 계획

○ 지속가능발전: 윤세미 교수 (아프리카, 중남미)

- ‘지속가능발전과 글로벌 커피 시장’ 연구는 대부분 커피는 개발도상국에서 생산·재배되는 반면, 커피 한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회인들의 다수는 선진국에서 커피를 소비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커피라는 작물이 거래되는 공급망의 특성에 따라 생산자가 받게 되는 비용은 소비자의 지불액의 극히 일부라는 지점을 타파하기 위해, 최근 직접 무역(direct trade)를 추구하는 테라로사(한국)나 블루보틀(미국)과 같은 로스터리 브랜드가 탄생함. 참여교수는 에모리 대학 피터 로버츠 교수팀 및 국제NGO Alliance for Coffee Excellence와 협력하여 스페셜티 커피 대회(Cup of Excellence)가 어떤 방식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석 중임. 향후 스페셜티 커피 및 환경라벨링(eco-labelling)이 된 커피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 커피 시장 분석과 미국 커피 시장 분석을 진행할 예정임.

○ 민주적 거버넌스: 김태균 교수

- 참여교수는 네덜란드 Maastrich University 교수와 함께 “Degrowth and Non-Western Discourses: How Ubuntu and Dure can inspire us to pursue social justice and ecological integrity for a sustainable future”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Development Studies Association에서 공동발표한 바 있음.

○ 경제·사회정책: 김태균 교수

- 참여교수는 영국 Cambridge University 교수와 영국 Oxford University의 Albert Park 교수, 그리고 BK 신진연구인력인 김보경 박사와 함께 Resilience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과정에서 2023년 6월 Cambridge University와 Development Studies Association에서 발표를 진행한 바 있음.

○ 국제협력: 이해영 교수

- 독일 비교공법 및 국제법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국제공법, 유럽연합법, 비교공법 분야에서 유럽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보유한 연구소로, 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전 세계에서 방문하는 방문연구자들에게 645,000원 이상의 장서와 25,000종 이상의 저널 및 정기 간행물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참여교수는 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2023. 7. 24. ~ 8. 7.까지 방문연구를 수행함. 방문기간 동안 전용 책장과 열람실을 배정받았으며, 연구소 전담 사서들의 보조를 받아 본인의 연구과제 주제인 ‘국제법 발전에 있어서 국내법원의 역할에 관한 비교국제법적 분석’에 관한 다양한 장서와 논문을 열람함. 이뿐만 아니라 연구소는 방문연구자들 간에 활발한 학문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바, 방문기간 동안 여러 국제법 연구자들과 본인의 연구 주제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를 교환할 수 있었음.